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석사 학위논문

지역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본 새로운 공공성과 여성 주체

- 〈모기동 공동체〉 사례 연구 -

2021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여성학전공

이 현 아

지역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본 새로운 공공성과 여성 주체

- <모기동 공동체> 사례 연구 -

지도교수 배 은 경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여성학 전공

이 현 아

이현아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2월

위 원 장 김 수 아 (인)

부위원장 김 보 명 (인)

위 원 배 은 경 (인)

국 문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마을공동체 사업이 등장하고 시민주도의 새로운 민주주의의 개념이 활발하게 소개된 201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지역공동체 활동이 갖는 의미와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에서 여성이 중심이 되어 10년 이상 탄탄하게 활동하고 있는 <모기동 문화예술공동체>를 사례연구 하였다. <모기동 공동체>는 2010년 공공미술을 하던 문화기획자 2인이 서울 '모기동(목2동)'에 카페를 열고 마을살이를 시작한 것을 계기로 함께 작은 축제를 열었던 사람들의 소규모 관계로부터 출발했다. '동네 사람'이 되고자 소박하게 시작한 여성들의 문화예술 활동이 여러 성과들을 낳으면서 탄탄한 지역공동체의 출현으로 이어졌으며, 협동조합 등 법적 제도적 틀거리를 마련하고 자신들의 활동을 지역의 커먼즈(commons)로 만들어가면서 지자체 정책의 카운터파트로까지 성장해왔다. 지역공동체의 주체로서 여성들은 누구이며 무엇을 경험하고 공유하며 공동체로 성장했는지,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고 여전히 지켜지고 있는 <모기동 공동체>의 독특한 운영원리는 무엇인지를 <모기동 공동체>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읽어내고자 하였다.

<모기동 공동체>의 참여자는 대부분 여성이지만, 이들의 경험은 기존의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쉽게 나타나는 '여성=어머니, 참여동기=공동육아'의 구조에서 벗어나 있었다. 문화기획자들은 일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것을 꿈꾸며 '동네 사람'이 되었고 주민들은 예술에 대한 욕구와 오롯한 개인이 되고자 하는 열망으로 <모기동 공동체>에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가족에 파묻히기보다는, 자신의 삶의 맥락을 버리지 않고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곳으로써 <모기동 공동체>를 만났으며, 그 속에서 주체적 · 자율적으로 문화예술을 할 수 있었다. 이들에게 문화예술은 취미나 여가활동이 아니라 자신의 자아를 투영하고 사회적 존재로서 자기증명을 하는 작업이었다. 이들은 개인의 일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며 즐거움을 느꼈고, 서로 배려하고 신뢰하며 포용하는 공동의 감각을 키워나갔다. 이들은 축제라는 즐거운 경험을 통해 '축제를 함께 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해나갔고 카페 '숙영원'에서 시작된 공간성을 공유하면서 <모기동 공동체>로 성장해갔

다. ‘협동조합 카페마을’, ‘모기동마을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 함께사는집뜨락’이라는 3개의 협동조합이 결성되었고 <모기동 공동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적 기틀이 되었다.

‘수다’로 표현되는 친밀함과 수평적인 소통 역량을 갖춘 <모기동 공동체>의 참여자들은 외부에서 주어진 목표나 관료적 언어에 함몰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우리들만의 규칙’을 만들어 나가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의사결정’을 할 때 충분히 시간을 두고 숙의의 과정을 가졌으며 차이와 갈등이 부각되는 국면에서도 갈등의 봉합 그 자체가 아니라 소통과 성찰을 통해 함께 해결해나가는 과정에 더 큰 의의를 두는 대안적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였다. 참여자들은 서로 돌보고 일상을 돌보며 ‘함께 돌봄’을 실천하고 있으며, 여기서 만들어진 돌봄의 가치는 지역사회로 확장되어 지역의 문제를 보살피고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졌다. 이런 확장은 <모기동 공동체>의 성취를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마을과 지역의 공동자산, 즉 커먼즈가 되도록 만들어갔다. ‘모기동 마을축제’와 ‘협동조합 카페마을’, ‘모기동마을학교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들은 특정한 사람만이 향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커먼즈로 축적되었다. 이제 <모기동 공동체>는 동네와 골목을 넘어 양천구에까지 그들의 역량과 가치를 확산하며 양천구 문화예술 정책의 카운터파트 역할도 하고 있다. 이러한 확장과 성장 속에서도 <모기동 공동체> 참여자들은 초심을 잃지 않고 원래의 공간성인 모기동의 골목, 동네, 마을에 밀착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하고자 한다. 기왕의 성과들을 자치구나 지역사회의 커먼즈로 만들고 운영을 공유하면서도, 공동체가 직접 운영하는 ‘골목문화재단’을 설립해 동네 사람으로 마을살이에 터를 둔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꿈을 꾸고 있다.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예술을 매개로 지역공동체를 만들고 운영해온 여성 주체들의 경험에 주목하여 이들의 활동으로부터 새로운 민주주의의 등장을 살펴보았다. 둘째, 일상의 맥락을 놓지 않고 지역공동체 활동에 뛰어든 여성 주체들의 역량인 관계와 배려, 돌봄의 감각이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함을 드러냈다. 셋째, <모기동 공동체>의 활동은 삶으로부터 정치과정으로 이어지는 ‘생활정치’의 구체적 사례가 될 수 있으며 넷째, 문화예술의 권리가 시민에게 있다는 문화민주주의 개념에도 부합한다. 다섯째, <모기동 공동체>의 활동을 통해

커먼즈의 축적과 새로운 공공성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이에 따른 정책적 제언은 첫째,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공공거버넌스 사업 추진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양적 성과가 아니라 참여하는 주체들과 지역의 삶에 대한 맥락이다. 참여자의 목소리가 얼마나 잘 반영되는지, 과정이 투명하고 민주적인지, 내용과 결과가 지역의 삶 속에 작동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가장 중시되어야 한다. 둘째,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문화정책과 지원사업은 문화예술 활동의 안정성과 성장을 위해 필요하지만, 참여자들의 문화예술적 역량과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주요어: 여성 주체, 문화예술, 지역공동체, 커먼즈, 공공성, 민주주의

학 번: 2002-23237

목 차

국문초록 ····· i

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문제제기 ····· 1

제 2 절 선행연구 ····· 3

1. 마을공동체의 개념과 의미 ····· 4

2. 마을공동체와 여성에 관한 논의 ····· 5

제 3 절 이론적 배경 ····· 7

1.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 ····· 7

2. 공공성 ····· 9

1) 공공성의 전환과 생활정치 ····· 9

2) 커먼즈와 공공성 ····· 12

제 4 절 연구대상 및 방법 ····· 14

1. 연구대상 ····· 14

2. 연구방법 ····· 16

3. 연구 참여자 소개 ····· 18

제 2 장 〈모기동 문화예술공동체〉의 역사 ····· 23

제 1 절 <모기동 문화예술공동체>의 배경 ····· 23

1. 목2동의 지역적 특성 ····· 23

2. 문화예술정책의 변화: 지역과 시민을 중심으로 ····· 24

제 2 절 <모기동 문화예술공동체>의 형성과정 ····· 27
1. 카페와 마을축제(2010~2015) ····· 27
1) '숙영원'과 축제의 시작(2010~2011) ····· 27
2) 공간성과 주체의 변화(2012) ····· 29
3) '모기동 문화발전소'와 공유공간의 가능성(2013~2016) ····· 32
4) 축제의 정례화 ····· 34
2. 협동조합과 다양한 지역 문화예술 활동(2016~현재) ····· 36
1) 협동조합 설립과 공동체의 안정화 ····· 36
2) 양천구에서의 문화예술 활동 ····· 38

제 3 장 〈모기동 문화예술공동체〉와 여성 주체 ····· 41
제 1 절 '동네 사람'과 예술 ····· 41
1. '오롯한 나'로 있을 수 있는 곳 ····· 41
1) '동네 사람' 되기 ····· 41
2) '쿵짝이 맞는 사람'과 관계망의 확장 ····· 44
3) 문화예술을 좋아하는 나 ····· 49
2. 여성의 자아 추구 ····· 52
1) 누구 엄마가 아닌 '나'로 살기 ····· 52
2) <모기동 문화예술공동체> 활동을 '일'로 이해하기 ····· 54
제 2 절 '우리'가 만들어지는 과정 ····· 57
1. 동네에서 문화예술 하기 ····· 57
1) 축제, 우리가 만들어진 공동의 경험 ····· 57
2) 일상이 된 문화예술 ····· 61
3) 스스로 기획하는 문화예술 ····· 65
2. <모기동 문화예술공동체>의 관계 맺기 ····· 69

1) ‘일 보다 관계 먼저’ ····· 70
2) 배려와 세심하게 들여다보기 ····· 71
3) 응원과 지지 ····· 73
4) 포용과 안전한 관계망 ····· 74
3. ‘우리’가 만들어지는 이 곳 ····· 76
1) 마주침의 공간 ····· 76
2) 공간을 공유하기 ····· 77
3) 함께 운영하는 우리의 공간 ····· 79
제 3 절 지역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상생의 조직 ····· 80
1. 동네 문제에 대한 공동의 관심 ····· 81
2. ‘목2동’과 ‘모기동’: 행정 구역이 아닌 ‘동네’ ····· 84

제 4 장 〈모기동 문화예술공동체〉의 운영원리와 새로운 공공성의 가능성 ····· 91

제 1 절 <모기동 문화예술공동체>의 운영원리 ····· 91
1. 대화의 방식과 우리들의 규칙 만들기 ····· 91
1) 수다와 일의 시작 ····· 91
2) 수평적인 관계와 소통 ····· 93
3) 우리들이 스스로 만든 규칙 ····· 95
2. 일상과 돌봄 ····· 99
3. 숙의민주주의와 갈등을 넘어서는 공동체 ····· 106
제 2 절 지역성에서 공공성으로 ····· 112
1. 동네에서 공동의 자산 만들기: 커먼즈로서의 <모기동 문화예술공동체> 활동 ····· 112
2. 지역성에 대한 관심과 심화: 양천구와 골목 ····· 119

제 5 장 결 론 ····· 124

참 고 문 헌 ····· 130

Abstract ····· 136

표 목 차

[표 1]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 비교 ····· 9
[표 2] <모기동 문화예술공동체> 주요 구성원(2020) ····· 15
[표 3] 연구 참여자의 특성 ····· 18
[표 4] ‘모기동 문화발전소’ 프로그램(2013~2016) ····· 34
[표 5] ‘N개의 서울’ 회의 내용 정리 ····· 97

그 림 목 차

[그림 1] <모기동 문화예술공동체> 연혁 ····· 27
[그림 2] 2011 '모기동 궁여지책' 포스터 ····· 29
[그림 3] '모기동 궁여지책' 축제 사진 ····· 29
[그림 4] '추억을 담은 하루 展' ····· 30
[그림 5] '모기동 문화다방' ····· 30
[그림 6] 2012 축제 포스터 및 축제 사진 ····· 31
[그림 7] '아델의 청소년 문화공간 청청청' 개소식 준비 ····· 32
[그림 8] '모기동 문화발전소' 운영 모델 ····· 33
[그림 9] 제 4회 모기동 축제 사진 ····· 35
[그림 10] '협동조합 카페마을' 사업소개 자료 및 사진 ····· 37
[그림 11] '모기동마을학교 사회적협동조합' ····· 38
[그림 12] '주택협동조합 함께사는집뜨락' ····· 38
[그림 13] 양천문화예술지도 ····· 39
[그림 14] '2018 용왕산 별헤는밤' 포스터 및 사진 ····· 40
[그림 15] 3회 모기동 마을축제 포스터 공모 배너 ····· 60
[그림 16] '손바닥 라디오' 참여자 모집 안내 ····· 66
[그림 17] '모기동 문화발전소' 소개 ····· 78
[그림 18] 'N개의 서울' 회의(2020.6.9.) 사진 ····· 96

보존용 학위논문 정오표

페이지	정정 전	정정 후
p. 10 : 12	'공론장의 구조변동'	『공론장의 구조변동』
p. 12 : 15, 23	Resourses	Resources
p. 36 : 12	'주택협동조합 함께사는집뜨락'를	'주택협동조합 함께사는집뜨락'을
p. 72 : 18	발달은	발달을
p. 74 : 13	'내'	'내'가
p. 79 : 16	기존에서	기존에
p. 80 : 5	것	건
p. 83 : 15	살아야 하는	살아나가는
p. 95 : 13	다루는지	다루는
p. 96 : 5	이들은	이들의
p. 103 : 6	여성을	여성의
p. 106 : 29	합의하는 것을 과정이며	합의하는 과정이며
p. 108 : 5	삶은	삶을
p. 110 : 12	그랬'어요	그랬어요
p. 113 : 8	가져야	가져가야
p. 115 : 7	이해까지	이해하고
p. 115 : 8	공공성에	공공성을
p. 117 : 25	영리를	영리가
p. 118 : 27	斎藤	齋藤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제기

2010년대 중반 이후 한국사회에서 일어난 페미니즘의 대중화는 서구 1물결 페미니즘의 참정권 운동 이래 다시 한번 여성들이 정치적 주체로서의 인정을 요구하는 뚜렷한 흐름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과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이어진 촛불집회를 거쳐, 2018년 (이른바 '혜화역 시위'로 알려진)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여성들은 배제되고 타자화된 비체(abject)로 머무르기를 거부하고, 스스로를 헌법 제 1조에 명시된 주권자 '국민'으로 동일시하며 마땅한 권리와 평등한 대우를 요청하는 주체로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는 공적 공간에 나타난 수많은 여성 개인들의 몸을 통해 현실 정치의 장(場)에 분명하게 각인되었다(김보명, 2018).

그러나 여전히, 삶의 현장 곳곳에서 여성들의 목소리는 쉽게 지워진다. 제도화된 대의정치와 예외상태의 광장정치 사이에서, 우리의 일상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시민적 민주주의의 가능성이 모색되는 가운데서도 이 주체들은 주목되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주체로서의 시민 혹은 국민은 젠더가 없는 범주로 상상되고, 여성들이 드러내는 주체성과 행위성은 민주주의나 정치와는 무관하며 오직 '페미니즘'에만 연관되는 어떤 것인 양 여겨진다. 공공성과 커먼즈의 모색, 지역사회의 공간성에 기반한 마을공동체 논의 등 새로운 민주주의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구체적인 가능성보다는 추상적인 희망 수준의 논의가 많은 것은 이러한 상상력의 몰젠더성에 기인한다.

이로 인해 새로운 민주주의의 비전을 정책화하고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시민적 참여와 주체화보다는 정책추진의 편의나 행정적 관성이 더 강한 힘을 발휘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 기존 마을공동체나 문화민주주의 논의에서 참여자에 대한 성맹적 접근으로 여성 참여자에 대해서 충분히 주목하지 않았고, 사업에 따라서는 여성을 단순히 정책 수혜자로 치부하거나 공동체를 위해 자원봉사 하는 젠

더화된 존재로 정형화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 이 사례연구를 추동한 원초적인 문제의식이다. 커먼즈나 사회적 돌봄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공동체' 들에서는 돌봄을 여성의 성역할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역시 문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본 연구는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탄탄하게 운영되고 있는 한 지역 기반 문화예술공동체의 사례에 주목함으로써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한다. '동네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여성들이 만든 작은 공간성과 관계성으로부터 출발하여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면서 지역에 기반한 문화예술공동체로 성장한 <모기동 문화예술공동체>가 그것이다. 10년이 조금 못 되는 기간동안 그 성격과 활동의 범위를 끊임없이 변화시켜온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지자체의 문화정책 공모사업 등을 수행하고 협동조합 등 조직적 틀거리를 만들며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참여하면서도, 끊임없이 관료화나 경직화에 대해 경계하는 동시에 공동체로서 키워온 특유의 정체성과 관계맺음 방식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다. 공동체를 만들고 꾸려온 여성들은 '동네 사람', '문화예술', '돌봄'이라는 키워드를 놓지 않으면서 문화적 주체로서 문화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실천하며, 자신의 문화예술공동체 활동을 통해 공동의 자산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들에게 공동체 활동은 가족 속에서 찾을 수 없었던 '오롯한 나'로 있을 수 있는 공간이며 그러한 '나'들이 서로 돌보면서 비위계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공동의 활동을 해나가는 모습을 이 공동체의 정체성으로 규정한다.

제도화된 정치의 틀을 넘어 시민의 삶과 공동체성을 복원하고자 하는 다양한 대안적 정치의 모델이 모색되는 가운데, 마을공동체나 문화민주주의, 생활정치와 커먼즈 등의 논의가 주된 키워드로 등장하는 <모기동 문화예술공동체>의 사례는 풍부한 함의를 제공한다. 공공미술사업의 관료성과 일회성을 떠나 '동네 사람'이 되기로 한 결정, 그리고 카페라는 형태로 만들어진 새로운 공간성을 기반으로 알음알음으로 뭉쳐 '오롯한 나'를 찾고 공적 영역에서 관계성을 실현해 나갔던 이야기들은 딱히 어떤 '대안성'이나 구체적인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고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안적 민주주의의 내용과 구성요소들에 대한 함의를 전달

해 준다. 이들이 여성으로서 겪어온 경험들과 그 속에서 만들어진 어떤 공동의 감각들이 <모기동 문화예술공동체>의 공간성과 관계성을 구성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인들로 작동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새로운 민주주의 관련 논의 속에 여성 주체를 가시화하고, 젠더의 작동과 이것과 씨름하며 삶을 꾸려온 여성들의 존재와 활동에 주목함으로써 '새로운 공공성'의 상상이 가능함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기동 문화예술공동체>에 참여하는 여성들은 누구이고 자신들의 공동체 활동을 어떻게 의미화 하는가.

둘째, 지역 기반 문화예술공동체로서 <모기동 문화예술공동체>에서 동네와 지역이라는 공간성과 공동체 활동의 내용으로서 문화예술의 특성은 무엇인가.

셋째, <모기동 문화예술공동체> 활동에서 드러나는 독특한 운영원리는 무엇이고 그 함의는 무엇인가.

넷째, 궁극적으로 문화예술공동체의 활동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공공성의 가능성은 무엇인가.

제 2 절 선행연구

여성들이 중심이 된 지역 기반 문화예술공동체 사례를 연구하기 위해 필요한 선행연구는 다양하다. 여기서는 우선 '지역'에 기반한 '공동체'로써 <모기동 문화예술공동체>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마을공동체에 대한 연구를 살펴본다. 그 다음으로는 <모기동 문화예술공동체>의 여성참여와 활동을 알아보기 위해 마을공동체와 여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살펴본다.

1. 마을공동체의 개념과 의미

최근 정책담론에서 지역 기반 공동체를 다루는 개념으로써 부상한 것이 마을공동체다. 마을공동체는 현대 도시생활의 비인간성에 대한 비판과 대안적 삶에 대한 욕구를 드러내는 말로 1990년대 이후 간간이 주목받았으나 정책담론에 전면에 등장한 것은 2010년대 초반 이후 서울시가 마을공동체 지원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이후이다.[1)]

마을공동체란 공간적 개념인 '마을'에 사람들의 삶이 영위되는 일차적 관계인 '공동체'를 결합한 개념이다. 마을공동체에 대한 선행연구는 도시에서의 공동체성 회복과 로컬 거버넌스에 초점이 맞춰있다(김찬동, 2012; 유창복, 2013).

유창복(2013)은 마을을 일상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해 협력하는 가운데 형성되는 이웃들의 관계망이라고 보았다. '마을살이'를 '생활의 당사자가 문제해결의 주체로 나서는 과정'으로 해석하며 시민의 주체성을 강조했다. 김찬동(2012)은 마을공동체의 복원을 통해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 주민참여가 전제조건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주민이 공동체 활동을 통해 호혜와 연대성을 가지고 지역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정성훈(2011)은 친밀공동체란 용어를 사용해서 자신의 논의를 제시한다. 친밀공동체를 '다수의 친밀관계들이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형성되고 약화되고 강화되기를 반복하는 관계망'으로 규정하며 친밀공동체의 생성 기반인 '도시마을'에 주

1) 서울시에서는 2011년 박원순 시장이 보궐선거를 통해 취임하면서 마을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전면에 등장했다. 급격한 경제성장에 반해 OCED 국가기준 행복지수는 32위에 그치는 한국 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정(情)과 삶의 즐거움이 사라져가는 거대 서울'에 대한 문제의식에 마포 성미산 마을 등의 성공 사례 등이 결합하여 2012년 1월 '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의 주요과제로 마을의 주민참여를 통해 인간적 가치와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마을공동체 육성이 채택되었다. 2012년 3월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설립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사람 사는 재미가 있는 행복한 서울, 서로 돕고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서울'이란 비전 하에 1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2012)을 세워 마을공동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은 2017년 2기로 이어져서 '주민의 등장, 연결, 성장을 통한 마을공동체 형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주민주도적으로 지역의 사회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목한다. 그는 친밀함의 위기 속에 친밀공동체가 우정의 관계망으로 작동하여 익명의 현대 도시에서 자기를 찾을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공동체'들이 어떻게 하면 이러한 친밀공동체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부재하고 단지 '우정'의 가치에 기대를 걸면서도 이러한 우정의 발생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해명되지 않는 아쉬움을 남겼다.

박주형(2013)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을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새마을운동'과 교차 비교하며 문제제기한다. '마을'과 '공동체'에 대해 지나치게 이상화, 낭만화하고 신자유주의와 도시화에 저항하는 해방적 정치보다는 공동체 통치를 위한 정치작업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질문한다. 이러한 박주형(2013)의 비판은 서울이라는 거대도시 내부의 어떤 주체들이 어떤 삶의 맥락을 갖고 살고 있는지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정책 주체의 열망만으로 시작된 사업의 태생적 한계를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마을공동체와 여성에 관한 논의

여성들은 예전부터 풀뿌리 운동, 도시빈민운동 등 다양한 형태의 마을 활동에 참여해왔으며 주로 공동육아 운동, 소비자 운동 및 환경 생태운동, 생협 등의 활동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지적된다(백은미, 2012; 장수정, 2012; 전희경 2014).

마을 활동에서 공동육아는 중요한 영역을 차지한다(김영정, 2015). 조한혜정(2006)은 이웃끼리 서로 돌봄을 강조하며 과거 마을, 지역과 같이 상호호혜를 기반으로 하는 돌봄 공동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류경희・김순옥(2000)은 핵가족의 고립, 맞벌이 가족의 증가, 자녀양육의 어려움 속에 이웃과의 연결망, 유대감, 다양한 협업을 통해 공동육아가 가능한 공동체적 가족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대안적 가족의 형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의 지역활동이 가장 활발한 영역인 생협운동에 대해서도 고정된 성별분업이나 공/사구분을 뛰어넘을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해석하는 연구가 많다(이현희, 2004; 백은미, 2012; 장수정, 2012). 이현희(2004)는 기존 생활영역이 가부장적 공/사구분에 의해 사적인 영역으로 한정되어 있었다면 생협운동은 고정된 성별 분업에서 벗어나 생활영역을 공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 생협운동을 통해 여성의 살림활동이 사회적 영역으로 확장되며 공/사구분의 경계를 넘나드는 가부장적 사회에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백은미(2012)는 개별 가족 내에서 고립된 여성, 주부들이 생협활동을 통해 사적 영역에서 사회적 영역으로 새로운 위치를 만들어가는 것에 주목했다. 돌봄과 보살핌 등 살림 노동이 여성을 고정된 성역할로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생활에서 중요한 새로운 일임을 인식해야 하며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나가야 함을 주장했다. 장수정(2012)은 여성에게 전담된 돌봄 노동이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적 호혜관계에 기초하여 사회적 돌봄으로 확장되고 사회자본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하였다.

그러나 여성의 마을공동체 활동이 자녀 돌봄이나 살림의 영역에만 집중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존재한다. 특히 마을공동체가 지나치게 이상화되는 가운데 실재하는 젠더관계에 대한 비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조옥(2012)은 마을공동체에 대한 주목이 과거 두레나 품앗이에서 활발했던 공동체성에 대한 향수나 회복 욕구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녀는 과거 공동체들이 근대적 성별분업과 남성 중심의 불평등이 존재하는 사회 속에서 작동했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희경(2014)은 '마을'에 대한 논의들에서 '공/사분리, 성별분업 정상가족'을 중심으로 한 젠더질서를 당연시하고 여성을 '관계중심적 모성'을 가진 존재로 상정하는 것에 대해 비판한다. 그녀는 공/사구분이나 고정된 성별분업에 대한 무비판적 시각으로 지역공동체의 여성 참여를 강조할 경우 단순한 여성동원이나 기존 젠더질서가 재생산될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정(2015)은 서울시 마을공동체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활동에 주목했다. 실제 마을공동체 참여자 구성에 여성이 압도적으로 다수를 이루지만 경제적 보상과 전문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우려하며 여성들의 경험과 기여가 인정받지 못한 채 마을이 필요로 하는 돌봄 활동을 여성들이 전담할 경우 가족 내 가부장성이 지역사회로 확장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비판했다. 여성을 단순히 돌봄 담당자로 여겨 동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문제시하며 동시에 여성의 마을 활동과 돌봄의 가치를 재의미화할 것을 주장했다.

여성의 마을 활동을 돌봄과 살림에만 국한하지 않으면서 좀 더 확장된 의미의

여성 참여 및 근대적 공/사분리의 재구성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제 3 절 이론적 배경

<모기동 문화예술공동체>의 활동을 통해 새로운 민주주의와 공공성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사례 연구로써 본 연구는 문화민주주의의 개념과 새로운 공공성, 즉 생활정치 및 커먼즈의 개념을 이론적 배경을 삼는다.

1.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

문화민주주의(cultural democracy)는 '문화'와 '민주주의'의 합성어로 문화의 권리가 시민 모두에게 동등하게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배제없는 참여의 장이자 실천으로서의 문화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을 담은 의미로 해석된다(김경욱, 2003).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는 상이한 개념이지만 모든 인간에게 문화권[2]이 있음에 기초하여 출발하였다. 문화적 권리는 인간의 기본권에 속하는 것으로 모든 발전은 이러한 인간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확대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기인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각국에서는 엘리트 예술을 대중에게 보급하려는 문화의 민주화 정책을 추진한다. 문화의 민주화 정책에서 예술은 협의의 전통적 개념인 고급예술로 제한되며, 고급예술을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는 문화예술의 감상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문화복지 차원의 전략이다. 국내에서도 국립극장, 예술의 전당 등을 중심으로 고급예술을 시민들에 전파하고 찾아가는 예술 활동을 하는 등

2) 1948년 유엔에서 제정된 세계인권선언 제27조 1항 "모든 인간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지닌다"를 통해 문화가 인간의 기본권임이 선언되었다. 이후 유엔은 1966년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ESCR)'을 통해 문화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향유기회 확대 목적의 하향식 정책이 추진되었다(김경욱, 2003; 서순복, 2007). 문화의 민주화에서 시민은 문화 생산의 주체라기 보다는 고급문화예술의 단순한 수용자가 된다는 차원에서 비판을 받았다.

문화의 민주화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970년대 후반 이후 등장한 문화민주주의는 문화예술이 예술가 등 특정 계층에 의해 독점되는 구조가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문화예술의 생산자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1976년 유럽문화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이 개념은 문화예술은 고급예술로 제한한 것이 아니라 아마추어 예술, 대중예술, 실험 예술 등이 포함된 광의의 개념이다. 랑스테드(Langsted, 1990)는 '문화의 민주화'를 '모든 사람을 위한 문화(culture for everybody)'로 '문화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에 의한 문화(culture by everybody)'라고 설명하며 문화예술소비자의 주체적이고 생산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문화민주주의 정책하에 문화예술소비자는 고급문화의 수동적 수용자가 아니라 문화 생산의 주체이자 문화예술 프로슈머다. 서순복(2006)은 사람들은 창조적 소양이 있어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창조적 활동(creative activity)과 실천을 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그런 이유로 문화민주주의는 시민이 스스로 지역문화를 할 수 있는 상향적이고 자발적인 방식이라고 말한다.

문화의 민주화	문화민주주의
문화의 단일성(mono cuture)	문화의 다양성(plurality of cultures)
기관중심(institutions)	비공식/비전문가 조직(informal groups)
기존/기성의 기회 (ready-made opportunity)	역동적 활성화(animation)
틀(구조) 중심(create framework)	활동 중심(creative activities)
전문가 중심(professional)	아마추어 중심(amateur)
미학적 질(aesthetic quality)	사회적 평등성(social equality)
보존(preservation)	변화(change)
전통(tradition)	개발과 역동성(development, dynamics)

향상(promotion)	개별 활동(personal activity)
생산물(products)	과정(processes)

[표 1]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 비교
출처: 랑스테드(1990), “Double strategies in a modern cultural policy”.

문화의 민주화가 예술의 질의 개념을 도입했다면 문화민주주의는 사회적 평등성, 형평성을 중요한 개념으로 삼았다. 문화민주주의는 문화예술의 우수성이나 우열을 가리기보다는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며 하나의 통일된 정체성과 문화는 없다는 것을 전제한다.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과 다양한 취향에 대한 존중을 주요한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에 시민들은 문화 생산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문화예술의 향유자에서 생산자이자 예술가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김경욱, 2003; 서순복, 2007; 이선영, 2020). 김경욱(2003)은 고급 예술, 예술가, 대도시 중심의 문화정책이 강조될 경우 진정한 의미의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시민권리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녀는 소통을 강조하며 관객이나 아마추어 중심, 역동성과 다문화, 사회적 형평성 등의 과제에 주목하고 실천할 것을 주장했다.

2. 공공성

1) 공공성의 전환과 생활정치

공공영역, 공공성에 대한 개념은 복잡하고 다의적이다. 사이토(齋藤, 2009)는 『민주적 공공성』에서 공공성(public)을 3가지 의미로 구분했다. 첫째는 국가와 관련된(official) 것으로 반대의 의미는 민간의 사적 활동이다. 둘째는 특정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관련된 공통적인 것(common)의 개념으로 공통의 이익, 재산, 공통적으로 타당한 규범, 공통의 관심사 등이 해당된다. 셋째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다(open)의 의미로 접근 제한이 없는 공간이나 정보 같은 것을 가리킨다. 조대엽(2012)은 공공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를 시민이 공공성의 주체가 되는 공민성, 제도와 규범적 차원의 공익성, 행위의 차원에서 공개성으로 구분함으로써 공공성 개

념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였다. 최태현(2019)은 공공성(公共性)이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공공성은 'publicness(公)'과 'commonness(共)'이라는 서로 다른 개념이 병치되어 있는데 국가 및 가치 중심인 '公'에 비해 사람의 관계인 '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며 이런 차원에서 공적인 것은 다시 국가를 중심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보았다. 그는 현대사회에 '共'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며 '共'의 개념 재정립은 공공성 의미의 확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3)]

근대사회 성립 이후 국가영역의 비대화로 공공성은 국가적 공공성을 의미한다는 관념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시장화 경향, 탈냉전의 사회변동, 정보통신기술의 폭발적 증가 등으로 국가적 공공성은 위기를 맞게 된다(이상봉, 2011).

국가적 공공성에 대비되는 시민적 공공성의 개념은 하버마스(Habermas, 2001)에 의해 제시된다. 하버마스(2001)는 '공론장의 구조변동'에서 절대주의 공권력에 대항하기 위해 부르주아 공공권인 시민적 공공성 개념을 제안한다. 그는 체계(시장과 행정권력)에 의해 생활세계가 식민화되는 것을 문제시하며 시민들이 공개적인 장에서 논쟁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공론장의 정치를 통해 공공영역의 확장될 것을 기대했다. 시민적 공공성을 통해 체계에 의해 지배된 생활세계가 복원될 수 있으며 새로운 공공성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생활세계[4)]의 복원을 통한 공공성의 확장이라는 문제의식은 생활정치의 개념으로 이어진다.

생활정치는 시민의 일상생활에 주목해 삶의 문제를 정치화한다. 양적중심의 근대화 또는 무분별한 산업화에 대한 자기 성찰성[5)]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삶의 결

3) 최태현(2019)은 '사람들의 삶에 밀착적인 사회 단위'인 '작은 共'들이 제공하는 인간의 실존적 삶의 가능성, 정치적 참여의 가능성, 그리고 개인의 자유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공공성 개념은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고 보았다.

4) 기든스(Giddens, 2010)는 정치를 해방정치와 생활정치로 구분한다. 착취와 불평등의 문제를 정치학적 접근으로 해결하려는 해방정치와 달리 생활정치는 자아의 윤리적 선택과 정체성, 상호성을 강조한다. 기든스(2010)는 현대사회가 합리적 이성에 의해 조작됨에 따라 감정의 영역이 사적 영역에 갇히게 되고 남/녀, 이성/감정이라는 공/사구분을 가져왔다고 주장하며, 계몽적 시선에서 배제되었던 감정과 친밀성의 영역을 강조했다.

5) 성찰성은 산업사회와 근대화의 예측하지 못했던 부작용 및 자기위협과의 자기대면의 과정을 말하며 근대사회의 창조적 자기파괴의 가능성을 내포한 개념이다. 벡(Beck, 1998)은 성찰적 근대화, 성찰성을 통해 새로운 사회구조와 공공성의 전환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

정에 관한 정치로서 기존 정치에서 배제되거나 억압되었던 일상생활의 영역이나 의제를 전면에 소환한다는 차원에서 공적 질서의 생활세계적 확장을 가능하게 해준다(정상호, 2009; Giddens, 2010). 조대엽(2012, 2014)은 생활정치를 사람과 삶을 중심으로 하는 주체의 자아실현과 의제의 자기 확장성의 정치라고 보았다. 시민이 공공성의 주체가 되고 소통과 참여를 통해 형식적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며 이슈의 확장을 통해 공감을 확보함으로써 새로운 공공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상호(2009)는 생활정치의 지향을 성찰적 시민, 의제의 확장, 소통으로 보았다. 생활정치의 새로운 주체로서 성찰적 시민은 물질 위주의 근대적 생활방식의 문제점을 성찰하고 더 많은 일상의 선택을 주장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생활정치는 시민 참여와 선택을 증진시키는 시민주도의 정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생활정치가 기존 정치에서 배제되었던 정책과 의제를 새롭게 부각시킴으로 정치적 확장성을 담보하고 있으며 소통을 통해 시민적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주체나 일상, 삶의 맥락에 대한 논의가 다루어지지 않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생활정치를 페미니즘 시각에서 접근하는 오장미경(2002)은 근대 정치의 근간에 있는 공/사 이분법을 문제시함으로써 생활정치에 개념에 일상적 삶의 차원을 재도입한다. 생활정치는 공적 정치나 전통적 이분법 하에서 배제되고 무시되었던 개인 주체를 드러내고 주제를 의제화함으로써 공/사의 경계를 흐트러뜨린다고 보았다. 특히 공적영역으로부터 정의, 평등, 자유라는 개념들을 가져와 사적 영역에 적용시키는 한편, 사적 영역의 실천들을 지배해온 배려, 유대, 책임, 모성의 개념들을 공적 생활에 적용시킴으로서 공/사를 재구성하며 새로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오장미경의 논의에도 한계는 있는데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과 생활정치를 가능하게 해주는 관계의 속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다.

하승우(2009)는 한국의 시민운동의 사례에서 생활정치를 살펴본다. 정치를 제도정치로 한정하거나 일상생활의 문제를 비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것, 공공성을 추상적으로 한정하여 생활정치를 축소하고 사적으로 해석하는 것, 생활정치가 활동

았다(조대엽, 2014, 재인용).

공간인 지역과 결합되지 못하고 시민운동으로 그치는 것을 한계로 지적했다. 그는 비/제도정치를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강조하고 학교, 직장, 지역사회의 공공기관이 생활정치를 실천하여 아래로부터 시민적 공공성을 확립해야 함을 주장한다. 생활정치와의 결합으로 지역사회가 민주 정치의 장이 되기 위해 주민과 쌍방향 소통을 통한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문제해결 교육과 참여학습, 공동연구 등의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여기 일상생활을 조직하는 원리로서의 젠더나 구체적인 주체들끼리의 관계맺음의 문제는 충분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2) 커먼즈와 공공성

커먼즈(commons)는 비교적 최근에 주목받게 된 만큼 하나의 개념으로 설명하기 쉽지 않다. 커먼즈는 중세 유럽에서 황무지, 숲, 하천 등과 같은 공유지(共有地)를 의미하는 말로 미국 생물학자 하딘(Hardin, 1968)은 공유지가 사용제한이 없어 결국 고갈되고 마는 비극적 결말을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개념화하였다. 커먼즈는 공유지, 공유재, 공유자원 등의 근대 소유제도에 관련된 개념으로 해석되다가 최초 여성 노벨경제학자 오스트롬(Ostrom, 2010)[6]이 공동 소유의 개념에서 감소성이 있는 공동자원(CPRs: Common Pool Resourses)으로 정의하는 등 최근 들어 공용자원, 공동자원, 공통자원 등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특히 위키피디아, 오픈 플랫폼, 오픈소스 운동 등 디지털 커먼즈가 등장하면서 커먼즈의 개념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정남영 2017).

볼리어(Bollier, 2015)는 커먼즈를 '자원 이용의 공동체가 그 공동체의 규칙과 규범에 따라 운영하는 공유된 자원'으로 정의했다. 커먼즈는 공유된 자원이자, 자원을 관리하는 공동체, 일련의 사회적 규약이며 이 요소들은 서로 상호작용한다고 주장했다. 볼리어(2015)는 커먼즈가 자연이 선물한 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만든 문

6) 오스트롬(2010)은 커먼즈를 소유개념의 공유자원(common property resource)이 아닌 추상적인 재화개념이자 비배제성과 감소성을 지닌 공동자원(CPRs: Common Pool Resourses)으로 정의하고 커먼즈를 남용과 파괴로부터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 관리제도적 차원의 방법론을 제시했다. 하지만 오스트롬은 커먼즈를 경제학적 재화범주로 해석한 나머지 인간의 삶이나 자연과의 관계, 규범과 문화 등은 배제하였고 자원을 공동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과 실천(commoning)의 영역을 놓치는 한계를 보였다(정영신, 2016).

화적인 것, 작품, 지식 생산물 등까지 포함된다고 보았다. 정영신(2017)은 커먼즈를 추상적인 재화나 자원으로 환원될 수 없는 역사적·문화적 차원을 지닌 것으로 보고 공동체와 커뮤니티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축적되는 집단적인 기억과 문화, 인식과 실천의 차원도 포함된다고 하였다. 페데리치(Federici, 2013)는 커먼즈를 경제적 재화나 객체화된 자원으로 보는 것을 경계하며 물, 공기 같은 자연적인 것뿐 아니라 돌봄, 감정노동도 중요한 공공재라고 주장한다. 그녀는 재생산 노동의 공유재화를 주장하는데 이를 통해 자본주의와 국가의 공공화에 대항하여 가정과 공동체 내에서 대항권력을 구성하는 것을 제안한다.

커먼즈는 공공성의 개념에 기초하는데 사이토(齋藤, 2009)는 커먼즈가 공통의 자산이나 이익, 공통적으로 타당한 규범, 공통의 관심사 등 모든 사람들과 연관된 공통적인 것으로 특정 사람이나 특정 이해에 치우치지 않는 차원에서 공공성을 지닌다고 보았다. 이일영(2017)은 커먼즈가 국가와 시장, 개인과 국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중 하나를 택일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적인 것이자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제3의 영역으로 보았다. 백영경(2017)은 공(共)적인 것으로 이해되는 커먼즈가 공(公), 공(共), 사(私) 전반에 걸쳐있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신자유주의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 또한 공적이라고 단순 분류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공공성을 복합적, 다층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커먼즈는 그 자체를 단순하게 공/사의 영역으로 구분짓는 것은 어려우나 공유의 과정이자 실천의 과정인 커머닝(commoning) 통해 공공성을 확보해 나간다(Bollier, 2015; 백영경, 2017; 정영신, 2017). 볼리어(2015)는 피터 라인보우(Peter Linebaugh)의 '공유화 없이 커먼즈는 없다(there is no commons without commoning)'를 인용하며 공유화의 실천성을 강조했다. 커먼즈는 상향식 참여, 개인과 사회적 책임, 투명성, 개방성에 의해 생명력을 가지며 커먼즈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보호하는 다양한 실천인 커머닝을 통해 운동성을 가지고 확장될 수 있다(Bollier, 2015).

정영신(2017)은 제주도 선흘리 마을 지역 주민들이 숲이라는 커먼즈를 새로운 방식으로 공유화하여 커먼즈와 커뮤니티의 관계가 재구성되는 사례를 보여준다. 과거 숲을 공동자산으로만 여겼던 폐쇄적인 접근에서 2010년부터 마을 주민들이 개방적인 방식의 생태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숲은 새로운 의미로 재구성된다. 숲과

주민들이 함께 해온 역사를 담은 그림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들이 숲 해설사로 참여하는 등 적극적이고 생태적인 접근을 통해 숲이 모두에게 향유 가능한 것으로 전환됨을 보여줌으로써 공유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백영경(2017)은 현대사회에서 돌봄의 문제는 개별 가족이나 국가, 시장을 통해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하며 함께 삶의 꾸려나가는 공동체로써 커먼즈를 만들어내는 내고 확장할 것을 주장한다. 돌봄과 사회재생산이 공동체의 중요한 가치로 판단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백영경(2017)은 공감과 호혜성에 기반하여 함께 돌봄을 가능하게 할 커먼즈를 확대하는 것을 공공성을 확보하는 과정으로 보았다.

제 4 절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례는 서울시 양천구 목2동을 거점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모기동 문화예술공동체>(이하 <모기동 공동체>)이다. ‘모기동’이란 ‘목2동’이라는 행정명을 음차한 것으로 구성원들과 지역민들이 이 공동체를 부른 애칭이다. 사실 이 공동체는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꾸준히 활동해왔고 안정적인 멤버십과 공식적인 조직형태까지 갖추고 있지만 스스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공식적인 공동체의 명칭을 만든 적이 없다. 이들은 목2동에 위치했던 카페 ‘숙영원’(現 ‘협동조합 카페마을’) 중심의 공간성과 이곳을 중심으로 축제를 같이해온 공동의 경험이 만들어온 인적네트워크이다. 다양한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프로젝트 별로 유연하게 새로운 명칭과 새로운 틀거리를 만들어간다. 하지만 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하나의 공동체라는 감각을 가지고 있고 문화예술을 하고 문화예술을 지향하는 집단이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갖고 있었다.

<모기동 공동체>가 위치한 양천구 목2동은 1980년대 목동 신시가지 개발 사업에서 제외되면서 재래시장과 작은 상가, 빌라, 다세대주택 등이 여전히 남아있는

동네이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진행되지 못하여 낡고 좁은 골목과 낮은 건물들이 조밀하게 모여있는 이 동네에 공공미술 활동을 해온 은지, 연희가 2010년에 들어와서 카페 '숙영원'을 열었다. 이 사람들은 카페를 운영하다 몇몇의 동네 사람들과 의기투합하여 2011년에 축제를 하게 되었고 축제를 기점으로 문화예술 워크숍, 소규모 공연, 전시, 인문학 강의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6년 '협동조합 카페마을', '모기동마을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 함께사는집뜨락' 등 소규모지만 작은 조직들이 생기면서 <모기동 공동체>의 활동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각각의 틀거리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은 중첩되고 한 구성원이 여러 개의 틀거리에 참여하기도 한다. <모기동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이 틀거리들은 공동체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젝트 베이스의 기구들로 이해된다.

주요 구성원	설립연도	구성원수	성격
협동조합 카페마을	2016	9명	카페, 문화공간, 前 '숙영원'(2010), 前 '모기동문화발전소' (2013~2017)
주택협동조합 함께사는집뜨락	2016	7세대 13명	공동주택
모기동마을학교 사회적협동조합	2016	마을주민, 교사, 활동가 등 30여 명	사회적 협동조합
플러스마이너스 1도씨	2012	3명	비영리단체 (은지, 연희, 나영)
기타		30~40여명	조직적 성격이 아닌 다양한 네트워크와 구성원

[표 2] 〈모기동 문화예술공동체〉 주요 구성원(2020)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모기동 공동체>의 활동을 하나의 사례로 삼아서 그 활동에서 나타난 지역성과 문화예술성의 결합, 독특한 운영원리, 새로운 공공성의 가능성 등을 읽어내고자 하는 사례 연구이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참여관찰, 그리고 <모기동 공동체>에 참여한 사람들과의 심층면접이다. 문헌연구와 참여관찰을 통해 이 공동체의 활동 내용과 역사, 대략적인 특징을 파악하고 심층면접을 통해 주체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자 했다. 문헌연구로는 관련 블로그('플러스마이너스1도씨')와 <모기동 공동체>에서 생산해 낸 리플릿, 프로그램 결과집과 연구보고서, 통계연감, 그리고 신문 등을 검토했으며 참여 관찰은 2020년 6월부터 10월 기간 중 공동체 모임 및 행사 등을 참관하였다.

심층면접 관련하여 연구 참여자 모집은 <모기동 공동체>의 생성과 발전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화기획자 2인을 먼저 목적표집(network selection)으로 선정하고 이들로부터 모집단 내에 핵심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대상을 추천받는 눈덩이표집(snowball sampling) 방법으로 총 11명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에 활용된 심층면접은 2020년 6월에 진행한 파일럿 인터뷰 1회를 바탕으로 동년 6월부터 12월까지 총 11명을 대상으로 13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약 1시간 반~2시간 반 정도 목2동에 위치한 '협동조합 카페마을', '함께사는집뜨락'의 공유공간, 근처 카페 등 조용한 공간과 부득이한 경우 전화통화를 통해 1: 1 심층면접을 진행하였으며 사전에 인터뷰 내용이 녹음과 녹취되어 연구에 활용된다는 설명과 함께 <연구 윤리 동의서>에 서명을 받고 인터뷰를 진행했다.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연구 참여자의 공동체 참여 경로, 주요 활동과 경험 등을 질문하였고 활동의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주요 사례 중심으로 질문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기본적인 특징은 아래와 같으며 연구 참여자의 실명 대신 가명으로 표기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나이는 2020년을 기준으로 표기하였다.

연번	이름(가명)	성별	나이	참여시점	자녀수	공동체 활동 전	주요 마을 활동
1	은지	여	40	2011	-	공공미술 기획자	플러스마이너스1도씨, 협동조합 카페마을, 모기동마을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 함께사는집뜨락
2	연희	여	41	2011	-	공공미술 기획자	플러스마이너스1도씨, 협동조합 카페마을, 모기동마을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 함께사는집뜨락
3	주영	여	52	2011	1	도예작가	나무도예방(2005~2013), N개의 서울
4	경희	여	62	2012	1	前 ○○ 신문사 직원, 前 구의원	지역아동센터 나무와 숲, 협동조합 카페마을, 모기동마을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 함께사는집뜨락
5	정은	여	38	2012	-	前 □□ 미디어 지원센터 실장	주택협동조합 함께사는집뜨락, N개의 서울 (살롱장네트워크)
6	소현	여	32	2015	-	회사원	N개의 서울 (예술×동네 컬렉티브), 마을 예술교육, 축제
7	나영	여	32	2016	1	음악 과외강사	플러스마이너스1도씨, 손바닥 라디오

8	현정	여	54	2016	2	前 출판사 직원, 주부	협동조합 카페마을, 꼬리달린 책방, N개의 서울 (살롱장 네트워크)
9	명숙	여	59	2016	1	주부	협동조합 카페마을, N개의 서울 (살롱장 네트워크, 소소공방 도예작업)
10	효진	여	41	2016	-	배우, 성우	손바닥 라디오, 마을 예술교육, 축제
11	성환	남	62	2016	2	회사원	협동조합 카페마을, 모기동마을학교 사회적협동조합, 나무 공방

[표 3] 연구 참여자의 특성

3. 연구 참여자 소개

<모기동 공동체> 사람들의 일상과 문화예술 활동의 공간은 대부분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연구 참여자 중 소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목2동과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소현의 경우 2015년 '서울시 뉴딜일자리 사업'을 통해 지역혁신청년 활동가로 선정되어 이 지역에 오게 되었으나 활동이 끝난 이후에도 일주일에 4~5일을 목2동에서 활동하고 있다.

<모기동 공동체> 사람들은 공동체 활동을 자신의 직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전업이 따로 있는 정은을 제외하고는 본인의 활동과 직업을 동일하게 응답하였다.

연구 참여자 11명 중 성환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성이다. 성환은 '모기동마을학교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이자 '협동조합 카페마을'의 이사, 나무공예 작업자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모기동 공동체> 참여자는 대부분 여성들이지만 여성만을 수용하는 등의 성별에 따른 배제가 있거나 여성성을 특별하게 강조하는 공동체는 아니다.

은지와 연희

은지와 연희는 문화기획자이다. 2005년부터 공공미술을 시작해 2006년 공공미술 활동을 하는 예술단체에서 서로를 만났다. 2009년까지 타지역을 돌며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했지만 본인의 동네가 아닌 곳에서 사업으로 접근하는 것에 한계를 느끼고 그만둔다. 2010년 일상과 작업이 분리되지 않을 수 있는 동네를 찾다 목2동 골목에 카페 '숙영원'을 열게 되고 동네 주민으로 지냈다. 2011년 동네 '나무도예방' 사람들과 축제를 열며 마을과 지역을 기반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다시 시작하였으며 2012년 비영리단체 '플러스마이너스1도씨'를 창립했다. '협동조합 카페마을', '모기동마을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 함께사는집뜨락'의 구성원으로 '함께사는집뜨락'에 거주하고 있다. 현재 서울문화재단 지역문화진흥사업 'N개의 서울' 사업에 선정되어 양천구로 네트워크를 확장해 활동하고 있다.

주영

도자기를 전공했지만 결혼과 육아로 인해 도예작업을 중단하다 2005년 아이가 다니는 양화초등학교 근처인 목2동 작은 골목에 '나무도예방'을 열었다. 초등학교 아이들과 엄마들을 대상으로 도예수업과 개인 작업을 이어왔으며 '지역아동센터 나무와 숲'에서 그림책 읽어주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경희와 수녀님과 알게 된다. 2011년 은지, 연희와 함께 모기동 마을축제를 시작하고 이후 2회 모기동 마을축제와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주도로 이주한다. <모기동 공동체> 사람들과는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했고 2019년 다시 목2동 인근인 염창동으로 이사해 <모기동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다.

경희

90년대 중반부터 양천구 목 5동에 거주했고 2000년대 중반 목2동으로 이사했다. 1983년부터 18년간 신문사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2002년에 무소속으로 양천구 구의원에 당선되었다. 2007년 목2동에 '지역아동센터 나무와 숲'을 열었고 2012년 모기동 마을축제부터 함께 활동해온 <모기동 공동체>의 초기 구성원이다. 2016년

‘함께사는집뜨락’에 입주했으며 ‘협동조합 카페마을’, ‘주택협동조합 함께사는집뜨락’의 구성원이자 ‘모기동마을학교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이다.

정은

정은은 前 □□미디어지원센터 실장으로 마을미디어 사업을 진행하며 마을과 마을사업에 대한 감각을 익혔다. 2012년 목2동으로 이사왔고 마을미디어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아델의 청소년 문화공간 청청청’을 컨설팅하다 목2동 사람들과 동네 사람으로 가까워졌다. 축제와 인문학 강의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으며 마을영화 관련해서 본인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기도 했다. 주거 불안정 문제를 함께 고민하던 동네 사람들과 2016년 ‘주택협동조합 함께사는집뜨락’을 설립하여 함께 거주하고 있다.

소현

소현은 어렸을 때 꿈이 가수였지만 성적에 맞게 대학을 갔고 회사에 약 5년간 근무하다 꿈인 음악 활동과 인도 여행을 위해 회사를 그만두었다. 2015년 서울시 뉴딜일자리 사업의 일환인 지역혁신청년활동가 지원사업을 통해 ‘숙영원’ 카페지기로 마을 활동을 시작했다. ‘숙영원’에서 매월 동네 사람들에게 노래와 이야기를 들려주는 ‘식탁의 노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음악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모기동 마을축제, ‘N개의 서울’ 등에서 마을 예술가로 활동 중이다. 안산에 거주하지만 일주일의 4~5일은 목2동에서 활동하고 있다.

나영

양천구 토박이로 이 동네서 나고 자랐다. 대학교에서 플루트를 전공하고 졸업 후 플루트 과외를 했지만 음악에 대한 즐거움을 가르치기보다는 단순입시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는 것에 한계를 느끼고 그만두었다. 2016년에 동네를 지나가다 ‘카페마을’에서 진행하는 ‘마을의 학교’ 예술교육 프로그램 현수막을 보고 참여하게 되었으며 이후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마을 교사 양성 수업을 받은 후

2017~2018년 ‘손바닥 라디오’ 프로그램 기획하게 되었고 <모기동 공동체> 활동과 방향성이 맞아 2018년 본격적으로 ‘플러스마이너스1도씨’에 합류하게 되었다. 2019년에 육아로 활동을 쉬다가 2020년에 복귀해서 다시 활동하고 있다.

현정

목 5동에 거주하고 있다. 결혼 전 그림책 기획 관련 일을 하다가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해 한동안 일을 그만두고 가끔 프리랜서로 책 작업을 했다. 2015년 영일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모기동 마을축제에서 동아리 공연으로 참여한 것을 계기로 <모기동 공동체>에 대해 알게 되고 관심을 가졌으며 2016년 카페 ‘숙영원’이 ‘협동조합 카페마을’이 될 때 조합원으로 참여한다. 본인의 관심과 경력을 살려 ‘카페마을’ 한 켠에 ‘꼬리달린 책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책 관련 전시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그림책 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다.

명숙

도자기를 전공하였으나 출산과 육아로 20여 년간 전업주부로 지냈다. 아이가 영일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어 아이 친구들의 엄마들과의 모임을 통해 <모기동 공동체>를 접하게 된다. 현정과 마찬가지로 2016부터 ‘협동조합 카페마을’에 조합원으로 참여하였으며 2018년부터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다. 2016년부터 도자기 공방을 열어 도예작업자로 활동 중이며 2019년부터 지역 공방 등과 ‘느긋한 시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목 5동에 거주 중이다.

효진

효진은 홍대에서 8년 거주하다 사람 냄새, 풀냄새가 그리워 2016년 목2동으로 이사하였다. 대학에서 방송연기과를 전공하였고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증을 땄으나 경력부족으로 수업기회가 적어 고민하던 중에 ‘카페마을’에서 진행하는 ‘마을의 학교’라는 마을 교사 양성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2017~2018년 나영과 함께 ‘손바닥 라디오’를 기획, 운영했으며 축제 등에서 배우, 모기동마을학교 선생

님, 방과 후 활동 교사, 성우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성환

성환은 2012년 모기동 마을축제를 보고 이 동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2016년에 목2동에 이사하였다. 원래 엔지니어로 회사에 다니다 은퇴하였고 현재는 나무공방을 열어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은 나무 공예작업을 하고 있다. 2017년부터 목공, 자전거 정비 등 수업을 하며 모기동마을학교 선생님으로 활동하다 2020년부터 '모기동마을학교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 '협동조합 카페마을'의 구성원이다.

제 2 장 〈모기동 문화예술공동체〉의 역사

제 1 절 〈모기동 문화예술공동체〉의 배경

1. 목2동의 지역적 특성

<모기동 공동체>는 서울시 양천구 목2동에 위치한다. 양천구는 서울의 남서부에 위치하며 동쪽으로는 영등포구, 서쪽으로는 경기도 부천시, 남쪽으로는 구로구, 북쪽으로는 강서구와 접하고 있다.

양천구[7]는 목동지구 중심의 신시가지 개발과 더불어 현재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목동지역은 이름처럼 원래 '나무와 숲', 논이 있던 지역이었다. 1960~70년대만 해도 안양천 인근이 여름이면 수시로 넘치는 상습 침수구역이었으며 상대적으로 지대가 높은 신월동, 신정 3, 4동 일대가 먼저 주거지로 형성되었다. 1980년대 신시가지 건설 사업이 진행되었고 2000년대 들어서서 목동 오목교 근처에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등 중・대형 프랜차이즈 중심으로 상권이 크게 들어서면서 강서지역의 대표적인 상권으로 자리잡게 된다. 또한 2005년 신정뉴타운 계획이 확정되면서 신정동과 신월동 일부 지역에 대규모 뉴타운이 형성되었다(양천구, 201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20).

양천구 개발의 중심인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는 목 1, 5동과 신정 1, 2, 6, 7동에 건설되어 행정구역 상 단순히 '목동'이라고 부를 수 없으며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지역과 그 외의 지역 간의 주거 환경 격차가 심하다. 이에 양천구에서도 균형 발전을 구의 과제[8] 로 삼고 있지만 서울시의 강력한 재개발 억제 정책으로 행정구역

---

7) 2019년 기준 양천구의 총면적은 17.406㎢으로 서울시 전체면적(605.20㎢)의 약 2.9%를 차지한다. 주거지역은 12.7㎢로 양천구 전체 면적의 약 73.0%를 차지하며 전체주택 중 62%가 아파트인 전형적인 아파트 주거지역이다. 양천구의 등록인구는 총 468,145명으로 남자가 230,457명, 여자가 237,688명이다. 양천구의 인구밀도는 26,894명/㎢으로 기초지자체 인구밀도 1위의 과밀한 지역적 인구특성을 보였다(양천구, 2019; 국토교통부, 2019).

8) 양천구는 목동과 비목동 간의 지역 격차가 아주 크며 1990년부터 꾸준하게 지역균형 및

상 목동으로 묶인 목 2, 3, 4동 지역은 낙후된 주거지 환경임에도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신정뉴타운 사업 등을 통해 신정동과 신월동 일부 지역에 뉴타운이 들어섰으나 목2동의 경우 이 모든 개발에서 빗겨나 있다.[9]

목2동은 1970~80년대 택지 위주로 개발되어 단독・다세대・다가구주택, 소규모 아파트 등이 주를 이룬다. 도로, 주차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며 같은 목동이지만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가 있는 목 1, 5동과 비교해 주거 환경 격차가 심하다. 2006년도에 뉴타운 논의가 있었으나 진행되지 못했고 지속적으로 개발 관련 민원이 있는 지역이다. 목동 신시가지와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2010년 하반기부터 염창역 주변에 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였으나 상가와 일부 지역 주민의 반대로 무산되었다[10] 양천구에서는 2018년부터 주민 공동체 육성 및 저층 주거지역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목2동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11]

2. 문화예술정책의 변화: 지역과 시민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정책이 지역과 시민의 개념을 포괄하기 시작했던 것은 1980년대 이후 공공미술 개념의 변화와 더불어 일어났다. 우리나라의 공공미술[12]은 60~70년대 국

균형발전을 구정목표로 삼아왔다. 김수영 양천구청장(2014~현재) 또한 'H-Plan'을 발표하고 양천구 동서 간을 균형 발전시켜 빈부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H-Plan'은 남부순환로 문화・물류벨트, 목동 경제・성장벨트 그리고 그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국회대로 교통・환경벨트 조성이 주요 내용이다(김두일. 2020. "'Yes 양천' 비전 H-Plan으로 동서 간 빈부격차 줄일 것". 『파이낸셜 뉴스』 2020.3.15.).

9) 양천구의 「2015 행정수요조사」에 따르면 양천구 거주환경 만족도는 만족이 51.9%, 보통이 43.9%, 불만족이 4.2%로 조사됐다. 거주환경 불만족의 이유로 '지역간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의견이 34.1%로 가장 높았고 '교통 불편'(29.5%), '주택, 주거환경이 열악' (15.9%) 순으로 조사되었다(양천구, 2015).

10) 서일범. 2010. "서울 목2동 일대 34만㎡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서울경제』 2010.10.10. 이정은. 2011. "역세권 시프트 공급 겉돈다". 『아주경제』 2011.6.15.

11) 김민수. 2020. "[인터뷰] 김수영 양천구청장 "목동 아파트 재건축 빠를수록 좋다" ". 『노컷뉴스』 2020.6.25.

12) 공공미술(public art)이라는 용어는 1967년 존 월렛(John Willet)이 쓴 「도시속의 미술」에서 처음 등장했는데 전시장 예술의 반대적 개념으로 사용하였다(박삼철, 2006). 공공미술은

가의 정체성이나 역사를 미화하기 위해 기념탑, 동상 등을 세우는 건축물 장식 위주의 방식에서 80년대에 이르러 공공장소에서 공중과의 접근성과 실용성을 강조한 '모더니즘' 작품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변화한다(정철현・박윤조, 2011). 이 시기 공공미술은 사회변화를 요구하는 민중미술과 조우하게 되는데 90년대 민중예술의 후배 세대들이 대중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공공미술 개념을 도입하고 시민운동과 결합하면서 '공동체 기반의 미술(community based art)'을 포함하여 시민과 지역에 무게를 둔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이 펼쳐지게 된다(박찬경・양현미 2008). 한편 정부 주도의 마을만들기 사업 시행도 가속화되어 2004년까지 문화환경 바꾸기, 문화마을 만들기 사업 등의 이름으로 실현되었다(서윤경, 2017).

2000년대 중반 이후 문화예술정책은 인프라 확충이나 환경 개선 중심에서 지역성, 시민성, 공공성 중심으로 강화된다.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의 아이디어가 정책 속에 구체화 된 것은 이 시기이다. 가령 2006년 문화관광부는 '공공미술이 도시를 바꾼다'는 모토로 '공공미술추진위원회'를 만들어 2006~2007년 '아트인 시티' 공모사업을 진행했는데 이는 미술 장식이나 공간 개선 차원이 아닌 '커뮤니티 아트' 범주의 공공예술을 지원하고 확산한 계기가 되었다. 2009년부터는 소규모 지역성을 강조한 마을 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지원하게 된다.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변화는 고급문화를 더 많은 시민이 누릴 수 있게 하려는 '문화의 민주화' 모델에서 문화예술의 주체가 시민인 '문화민주주의'로의 제도의 지향점이 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의 과정을 겪는데 먼저 1단계 공공미술은 1930년대 경제공항 속에서 실직한 미술가들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작되었다. 1934년 미국 정부는 실직한 미술가들을 위해 '미술을 위한 퍼센트 법(percent)'을 제정하였다. 정부는 예술가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예술가들은 정부 건물에 장식적인 기능을 담당하였으며 이 제도는 '건축 속의 미술(art in architecture)'이라는 형태로 남아있다. 2단계는 '공공장소 속의 미술(art in public places)'로 공공건물 장식을 넘어서 광장, 공원 같은 공공장소를 예술공간으로 활성화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3단계 '도시계획 속의 미술(art in urban design)'은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공공미술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제를 도입한 경우다. 가로시설물, 문화시설,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으로 영역이 확장되었다. 4단계는 레이시(Lacy, 2010)가 말한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new genre public art)'이다. 미술을 통해 지역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 확대하고 문화공동체를 형성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형태로 공동체 예술로도 불린다(손은하・신나경, 2010). 한국에서는 1982년 '1% 건축조형물법'이 권장사항이 되면서 '건축 속의 미술'이 도입되었다. 이 법은 1995년 의무화되었고 2000년 '1% 이하'로 하향 조정돼 공공 및 민간 건축물에 적용되고 있다(김혜진, 2010).

화함을 드러낸다(박찬경・양현미, 2008). 오늘날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소외지역의 문화예술 향유 여건 증진, 지역 활성화와 공동체 구현, 도심 재생, 일자리 창출 등의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거나 공동체의 통합화에 과도하게 집착해 주체의 차이를 간과하고 주민을 관객으로 만들어 버리는 등 문화민주주의의 취지를 살릴 수 없는 한계를 나타내기도 한다(이영욱, 2010). 또한 1년 단위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대한 이해 부족과 도구적 접근을 이유로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고 사업의 완성도 저하와 사업 종료 후 관리 부족 등의 문제점이 보여지기도 한다(김혜진, 2010).

2010년대 이후 문화예술정책에서 지역과 시민에 대한 강조는 더욱 높아졌다. 2000년대 신자유주의 시대를 뒤덮었던 '창조' 대신 '지역문화'와 '생활문화'를 키워드로 정책이 설계되었다.[13] 「문화기본법」(2013)과 「지역문화진흥법」(2014)의 제정으로 문화를 만드는 권리를 보편적 시민에게 돌려주고 지역 중심의 문화 형성을 지원하는 법적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서울시의 문화정책도 이러한 궤를 같이한다. 2012년 1월 '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을 통해 시민이 창조적 문화의 주체임을 선언하였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문화예술 분야를 포함시켜 2012년 8월 '마을 예술창작소'[14]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2016년 12월 <서울시민 문화권 선언>을 발표했고 이듬해 1월 '서울특별시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일상생활' 속 '시민문화주체'를 강조하는 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지원을 강화하였다.

---

13) 라도삼(2017)은 2010년대에 들어 문화가 형성되는 구체적인 지점을 지역으로 설정하고 자치와 분권을 강조하는 지역문화와 시민이 스스로 문화를 만들고 창조하는 문화민주주의 차원의 생활문화 중심으로 문화예술정책의 지형이 바뀌었다고 주장한다.

14) 마을예술창작소는 자율성(주민 자율적 조직 운영), 마을성(공동체 회복), 지속성(지속가능한 운영), 공공성(개인이 아닌 마을의 공용공간)의 원칙을 가지고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총 105곳이 선정되었으며 현재 64개 소가 운영되고 있다(서울시, 2019).

제 2 절 〈모기동 문화예술공동체〉의 형성과정

<모기동 공동체>는 10년 정도의 역사를 지니는데 <모기동 공동체>의 주요거점인 카페 '숙영원'을 빼고는 이해할 수 없다. 카페 '숙영원'은 <모기동 공동체>의 뿌리일 뿐 아니라 이후 공동체의 모든 활동이 카페 '숙영원'과 모기동 지역의 특정한 공간성과 상호구성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절에서는 <모기동 공동체>의 형성·발전 과정을 카페 '숙영원'과 이를 중심으로 맺어진 사람들의 관계, 그리고 이를 주변으로 확장된 활동과 공간성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도록 한다. 연혁을 간단히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모기동 문화예술공동체〉 연혁

1. 카페와 마을축제(2010~2015)

1) '숙영원'과 축제의 시작(2010~2011)

2010년 2월 공공미술을 하던 문화기획자 2인이 양천구 목2동 작은 골목으로 이주하여 '숙영원'이라는 카페를 열었다. 2006~2009년까지 타지역을 이동하며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하던 2인은 프로젝트가 끝날 때마다 지역을 이동해야 하고 자기

삶과 활동이 분리되는 것에 한계를 느끼고 그만두게 된다. 그녀들은 일상과 작업이 일치되기를 바라며 빌라와 작은 공방, 가게들이 있는 목2동 조용한 골목에 카페를 열었다.

카페를 열고 약 1년간은 문화기획자들이 카페 운영에만 집중하던 시기다. 카페 주인으로 동네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고 손님은 늘어갔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본업인 문화예술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답답함을 느낀다. 어느 날 문화기획자들은 건너편 '나무도예방' 사람들과 함께 수다를 떨다가 "심심한데 뭐라도 해보고 싶다"는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고 도예방 사람들이 바로 "해보자"라고 긍정의 화답을 하면서 작은 축제를 함께 준비하게 된다. 문화예술이라는 공통점을 지닌 이들에게 축제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문화기획자들이 전체 프로그램 기획 및 홍보 역할을 담당했고 공방에서 활동하는 8인이 기존 네트워크를 활용해 아트마켓 참여자를 구성하고 벼룩시장 등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내용을 채워갔다.

이렇게 준비된 마을축제는 '모기동 궁여지책'이라는 이름으로 2011년 10월 29일에 열렸다. 카페 '숙영원'과 '나무도예방', 주차장 등과 좁은 골목을 축제 공간으로 아트마켓, 벼룩시장, 먹거리 장터, 공연, 주민참여 벽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수강생을 포함한 도예공방 사람들이 아트마켓에 주로 참여했고 사전에 주민참여 프로그램으로 모집했던 동네 주민들이 쓰지 않는 물건들을 벼룩시장에 내놓으며 참여했다. '숙영원'의 손님들은 골목 벽에 함께 벽화를 그렸고 축제 현장을 방문한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관계자가 즉석에서 인형극단을 섭외해주기도 하였다. 단 하루지만 목2동이라는 조용한 동네가 축제 공간으로 변신했고 약 250여 명의 사람들이 축제를 참관하며 모이는 계기가 되었다.

[그림 2] 2011 '모기동 궁여지책' 포스터

[그림 3] '모기동 궁여지책' 축제 사진

마을축제가 끝나고 문화기획자들과 공방 사람들, 벼룩시장 참여자들은 뒷풀이 자리에서 내년 축제를 논의했다. 참여자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내년에도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고 "2012년 축제에는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 하자", "안전을 위해 길을 막고 하자" 등의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작은 골목에 벌어진 축제를 통해 사람들은 공동의 즐거운 경험과 성취감을 느끼고 다음 축제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된다.

2) 공간성과 주체의 변화(2012)

축제를 계기로 카페 '숙영원'을 운영하는 2명의 기획자는 지역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기로 결심한다. 기획자들은 '함께 일하는 재단'의 소셜벤처 인큐베이팅 사업에 도전하게 됐고 그 결과 2012년 1월에 비영리단체를 설립했다. 이 두 사람이 설립하고 이후에 <모기동 공동체> 활동의 기반이 되는 단체의 이름은 '플러스마이너스1도씨'이다. '플러스마이너스1도씨'는 '지구의 온도는 1℃ 낮추고 사람 간의 온도는 1℃ 올리는 활동'이라는 이들의 지향점을 담은 이름이다.

'플러스마이너스1도씨'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2012년 4월부터 운영한 '삶은 아트'라는 지역밀착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었다. 축제를 같이 준비했던 '나무도예방' 사람들과 축제 이후 접점이 커진 '지역아동센터 나무와 숲', '기억발전소' 등이 함께 참여했다. '삶은 아트'는 삶과 일상이 예술이 될 수 있으며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지역 아동과 주민이 동네에 대해 새로운 시선을 갖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삶은 아트'는 두 가지 프로젝트로 운영되었는데, 4개월간 지역 아동 대상으로 동네에 대한 추억과 기억을 사진으로 남기고 '추억을 담는 하루展'을 진행한 것과 주민 대상으로 '모기동 문화다방'이라는 인문학 강좌를 연 것이었다. 카페 '숙영원'은 '삶은 아트'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동네 주민들이 더 쉽게 드나드는 사랑방 겸 문화공간으로 변모한다.

[그림 4] '추억을 담은 하루 展'

[그림 5] '모기동 문화다방'

2012년 2회 마을축제를 준비하기 위해 3월부터 동네 반상회가 열렸다. 2011년 카페 주인인 문화기획자 2인과 건너편 '나무도예방' 사람들 8인으로 시작했던 작은 축제는 축제 7개월 전부터 동네 주민과 다양한 지역 주체들이 함께 고민하고 준비하는 마을축제로 변모했다. '플러스마이너스1도씨'와 '나무도예방' 사람들을 비롯하여 '삶은 아트'를 함께 진행한 '지역아동센터 나무와 숲', '어린이책시민연

대', '알음알음 마을돌이 사업단' 등이 함께 축제를 준비했다. 서울문화재단의 후원도 받았고 양천구도 협력으로 참여했다. 10월 13일에 진행된 '모기동 일장추몽' 축제에는 100m가 넘는 골목길을 막고 공연과 그림책 전시, 모기동 벼룩놀이터, 먹거리 장터 등이 진행되었으며, '지역아동센터 나무와 숲' 아이들의 댄스 공연, 마을 이야기가 담긴 마을영화 상영회 등도 진행되었다. 축제의 참여자, 규모는 1회 축제에 비해 더 확장되었으며 축제로 다져진 네트워크는 목2동에 크고 작은 다양한 활동들이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그림 6] 2012 축제 포스터 및 축제 사진

마을축제와 카페 '숙영원'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함께하며 다져진 동네 사람들의 네트워크는 청소년 문화공간을 여는 데도 힘을 모았다. 목2동에 위치한 '마리아의 딸 수도원'에서는 수도원 일부 공간을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바꿀 것을 고민하게 되는데 축제를 통해 알게 된 '플러스마이너스1도씨' 기획자들과 논의하다 함께 수도원 내 공간을 개선해 보기로 결심한다. '플러스마이너스1도씨'와 '나무도예방', '기린청소년센터' 등이 '함께일하는재단'의 후원을 받아 수개월간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단순 공간 리모델링이 아니라 지역 청소년과 주민의 참여를 유도해 아이디어를 모으고 의견을 수렴하여 함께 공간을 바꾸었다. 2012년 12월에 '아델의 청소년 문화공간 청청청'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게 되는데, 이 공간은 청소년들이 공연 연습이나 자체 축제를 진행하는 아지트이자 마을학교 등 동네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되며 지역의 커뮤니티 공간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림 7] '아델의 청소년 문화공간 청청청' 개소식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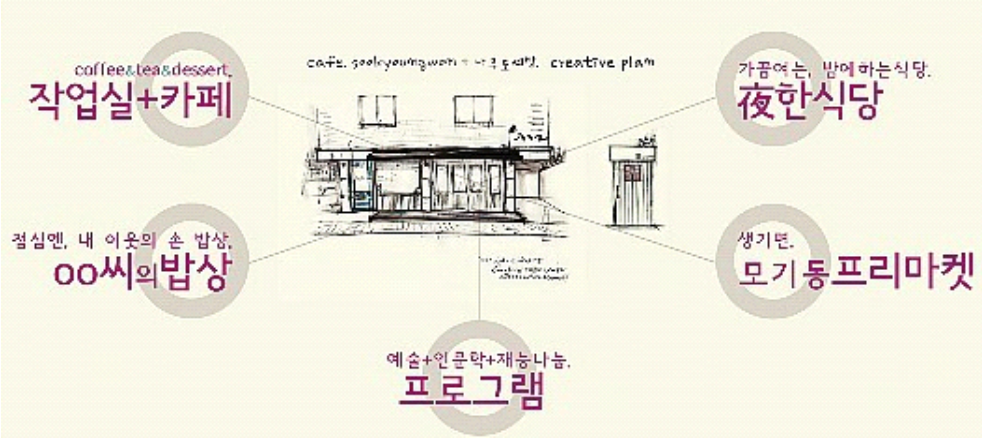
3) '모기동 문화발전소'와 공유공간의 가능성(2013~2016)

2011년 10월 26일 보궐선거로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면서 2012년부터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이 서울시 주요 정책과제가 되었다. 정책 수립 전부터 자생적으로 활동하던 <모기동 공동체>는 마을공동체의 우수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서울시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자치형 문화공간인 '서울시 마을예술창작소'[15] 지원사업을 발표한다. '플러스마이너스1도씨' 기획자들은 공방 사람들과 함께 이들이 운영하는 카페 '숙영원'과 '나무도예방'을 묶어 '모기동 문화발전소'라는 이름으로 신청하여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비, 시설비, 인건비, 운영비 등을 서울시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모기동 문화발전소'는 <모기동 공동체> 활동의 거점공간이자 모두에게 열린 공유공간으로 운영된다. 카페 '숙영원'과 '나무도예방'은 이들 각자의 이름을 버리지

15) '서울시 마을예술창작소'는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 9호(마을문화예술사업)' 및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 6조(생활문화사업의 지원)', '희망서울 시정운영 3개년 계획-마을권 문화공간운영'을 근거로 2013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마을예술창작소는 마을주민 간 예술활동을 매개로 함께 살아가는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주민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문화(활동)공간이자 주민주도의 생활문화시설로 일상 속 주민 문화활동을 활성화하고 생활문화의 저변을 강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자율성, 공공성, 마을성, 지속성(자생성)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2019년 12월 기준으로 64곳이 운영되고 있다(서울시, 2019).

않고 따로 또 같이 활동을 이어간다. '모기동 문화발전소'는 복수성을 띠게 되는데 공간이 필요한 작가에겐 작업실로, 누구나 쉐프가 되어 동네 사람들과 한 끼 나눔을 할 수 있는 식당으로, 자신의 재능을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이웃과 나눌 물건, 작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교환과 판매가 가능한 프리마켓의 장으로 운영되었다.



[그림 8] '모기동 문화발전소' 운영 모델

'모기동 문화발전소'는 일상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양적으로도 확장해 동네 주민들과 접점을 늘려갔다. 생활예술교육 프로그램 '밥상도 예술이다'(2013)', '술상도 예술이다'(2014), '시간은 예술이다'(2015)와 공유 모임 '식탁의 노래'(2015) 등 예술의 일상화를 통해 대안적 삶의 방식을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모임을 지속적으로 운영했고 <모기동 공동체> 사람들이 수시로 만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문화예술공동체가 활성화되는 데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하였다.

2013	2014	2015	2016
야(夜)한 식당 ○○씨의 밥상 생기면 모기동 프리마켓 모기동 문화다방	독서 스터디 도시야학 이야기하는 마을 사진관 이야기 하는 마을극장	식탁의 노래 테라스마켓 인문학강의 (삶의 전환과 생각하는 손을 위한 백서) 공동주택+커뮤니티 공간 연구모임	교육의 학교 모기동 마을 소풍 양천구에 청년방있수다 모기동마을탐방+골목 공방체험
밥상도 예술이다	술상도 예술이다	시간은 예술이다	

[표 4] '모기동 문화발전소' 프로그램(2013~2016)

4) 축제의 정례화

카페 '숙영원' 골목에서 시작된 작은 축제는 회를 거듭할수록 마을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 잡아간다. 2013년 3회에는 '수상한 수(手)작! DIY 모기동 마을축제'가 2014년 4회에는 '서말의 구슬을 보배로 만드는 101가지 방법'이라는 이름의 마을 축제가 진행됐다. 3회 축제부터 '축제추진위원회' 이름으로 축제가 준비되었다. 1회부터 추진했던 '플러스마이너스1도씨', '나무도예방'을 비롯하여 '지역아동센터 나무와 숲', 목2동 재래시장, 목2동 주민센터, 양천구청, 양천마을 생태계 지원단, 양화초등학교 어머니회 등 지역의 다양한 네트워크가 축제에 합류해 참여의 규모는 더욱 확대된다. 주민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3회 축제에는 동네 주민 대상 축제 포스터를 공모했으며 4회 축제부터는 양화초등학교 운동장까지 축제의 공간으로 개방되었다.

축제추진위원회 모임

목2동 골목

양화초등학교

목2동 공간

[그림 9] 제 4회 모기동 축제 사진

2015년에 진행된 5회 축제부터 목2동 인근 학교들이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축제명칭도 '마을과 학교가 함께 만드는 목2동 마을축제'로 변경되었다. 기존에 축제를 준비하던 주체들에 더해 양화초등학교, 영일고등학교 선생님, 학부모, 학생과 모기동 공동육아팀 등이 결합되어 기획부터 실행까지 함께 참여했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후원으로 참여했다. 축제의 공간도 목2동의 주요 공간이자 숲과 잔디 운동장이 펼쳐진 용왕산 공원으로 이동했다. 사전 접수를 통해 40여 개 팀이 벼룩시장에 참여했고, 10여 개의 체험 놀이 부스, 20여 개 팀이 참여한 아트마켓, 인디밴드 공연, 전시, 먹거리 장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90여 개의 참여팀과 2,000여 명의 관람객이 모이는 대규모 마을축제로 성장했으며 축제를 위해 자원봉사도 모집되었다.

2015년 5회 축제를 기점으로 주도적으로 축제를 만들어왔던 '플러스마이너스1도씨'의 두 기획자는 주요 기획에서 빠지고 일반 참가자로 축제에 참여하기로 결정한다. 축제가 마을축제로 자리잡았고 정례화 과정에서 다양한 지역 네트워크들

이 발굴되었으며 자치구와 지역자치회에서도 큰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2016년도부터 양천구가 모기동마을축제추진위원회와 함께 축제를 주최하고 있으며 '플러스마이너스1도씨', '모기동마을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아동센터 나무와 숲', '아델의 청소년 문화공간 청청청', 양화초등학교, 양화중학교, 영일고등학교, 목동종합사회복지관 등이 지속해서 축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축제는 조직적 안정성을 갖추어 간다.

2. 협동조합과 다양한 지역 문화예술 활동(2016~현재)

1) 협동조합 설립과 공동체의 안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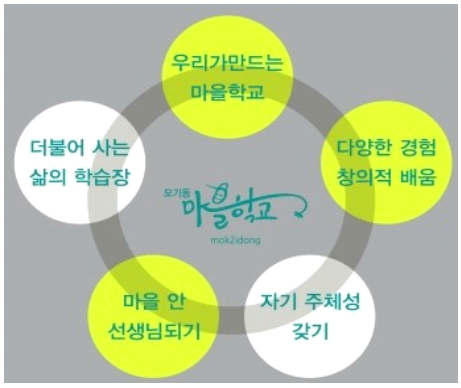
2016년부터는 <모기동 공동체>가 '협동조합'이라는 조직적 틀거리와 안정성을 갖추기 시작한 시기다. 모기동 사람들은 마을의 다양한 삶의 문제에 대한 공동의 관심과 그동안 쌓은 신뢰와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협동조합 카페마을', '모기동마을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 함께사는집뜨락'를 설립하였다.

개인이 운영했던 카페 '숙영원'은 2016년 4월 <모기동 공동체> 사람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동조합 카페마을'이 된다. 카페 '숙영원'을 운영하는 두 기획자가 '플러스마이너스1도씨' 일로 바빠지면서 하루종일 카페를 운영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이 공간이 없어질 것을 걱정한 동네 사람들이 카페 '숙영원'을 협동조합으로 전환해서 함께 운영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기존 동네 사람들과 축제와 마을학교 등을 통해 새로 결합된 총 10명의 사람들이 '협동조합 카페마을'의 조합원이 되었다. '협동조합 카페마을'은 공유공간, 커뮤니티 카페, 책방, 전시 공간 등의 역할을 하며 <모기동 공동체>의 주요 활동이 펼쳐지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림 10] '협동조합 카페마을' 사업소개 자료 및 사진

지역 아이들의 교육환경에 대해 고민하던 모기동 사람들은 2016년 6월 '모기동 마을학교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한다. '모기동마을학교 사회적협동조합' 활동은 문화예술 활동과 마을 교육이 결합된 모델로, 지역 아이들이 마을 안에서 삶의 철학을 배우고 마을의 보살핌 속에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목2동에 있는 21명의 마을주민, 교사, 활동가들이 학교 방과 후 수업과 대안교실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에 있는 양화초등학교, 양동중학교, 영일고등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주택협동조합 함께사는집뜨락'은 주거 불안정에 대해 걱정하던 동네 주민들의 공통된 고민에서 출발했다. 2명의 문화기획자를 포함하여 동네 주민 몇몇이 1년간 연구모임을 운영하며 준비하였고 2016년 8월 '함께사는집뜨락'을 마련하게 되었다. 공동주택을 통해 주거불안정 문제가 해결되는 동시에 동네에 들어와 삶과 일이 일치되기를 바랐던 문화기획자들의 막연한 꿈도 실현된다. 현재 다양한 연령대의 7가구가 모여 살고 있으며 격주에 한번 반상회를 통해 공동주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논의한다.



[그림 11] '모기동마을학교 사회적협동조합'

[그림 12] '주택협동조합 함께사는집뜨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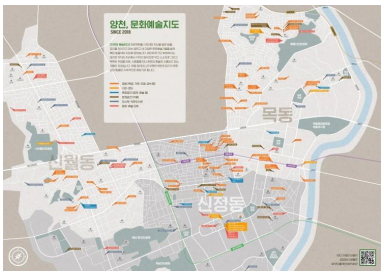
<모기동 공동체>는 협동조합을 만든 동시에 프로젝트 베이스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간다. <모기동 공동체>의 구심점인 '플러스마이너스1도씨'는 다양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모기동 공동체>의 사업영역과 스케일을 키워갔으며 공동체의 안정성에도 기여했다. <모기동 공동체>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으로 마을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의 학교' 프로그램[16]을 운영했다. 또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양천구가 용왕산 공원 지하배수지 자리에 만든 커뮤니티 공간 '청춘마루'를 운영하며 청년창작자를 위한 쉐어 공간 운영, 동네 잡지 발간, 지역소통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동시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으로 매달 마지막 수요일 저녁 용왕산에서 '모기동 별헤는 밤' 및 인문학 강좌를 운영하며 동네 주민들과 수시로 만나며 접점을 강화했다.

2) 양천구에서의 문화예술 활동

<모기동 공동체> 사람들은 2018년부터 양천구를 대표해서 서울문화재단의 'N개

16) '교육의 학교'는 '플러스마이너스1도씨'와 '모기동마을학교 사회적협동조합'이 협력으로 운영한 마을 교사 양성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양성된 마을 교사들은 이듬해 '손바닥 라디오(2017~2018)' 등 다양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했다. <모기동 공동체> 사람들은 사업을 단순히 1회성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네트워크와 협력하고 양성된 사람이 동네의 인적자산으로 남을 수 있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한다.

의 서울'[17] 사업을 추진한다. <모기동 공동체>는 '플러스마이너스1도씨'를 주축으로 양천구 예술가들을 상시적으로 만나고 교류했으며 양천구의 문화예술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느슨한 네트워크, 양천'이라는 공론장도 운영했다. <모기동 공동체>는 민간이지만 '예술×동네 컬렉티브' 공모사업도 추진하였으며 120개의 양천구 문화예술자원의 정보가 담긴 지도도 제작했다.



[그림 13] 양천문화예술지도

모기동 사람들은 2018년 'N개의 서울' 사업의 일환으로 양천구의 다양한 문화예술 주체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축제도 기획했다. '양천문화예술축제 용왕산 별헤는 밤'이라는 이름의 이 축제는 전형적인 마을축제 형식보다는 문화예술에 초점을 맞춘 축제로 기획됐다. 모기동의 정체성에 맞게 양천구 예술가 21개 팀의 부스를 모기장을 펼쳐서 만들었으며 인디밴드 공연, 양동중학교와 영일고등학교에서 온 오케스트라 공연, 버스킹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위주가 되어 운영되었다.

17) 'N개의 서울'은 서울의 25개의 자치구가 각각의 지역문화를 만드는 다양한 시도를 펼칠 수 있도록 서울문화재단이 지원하는 지역문화 진흥사업이다. 지역 내 문화자원을 찾고 연결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을 새롭게 읽어내고, 지역의 이슈를 개방적 공론장에서 함께 논의하며, 지역 내 다양한 주체와 협력의 경험으로 공동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서울문화재단, 2020).

[그림 14] '2018 용왕산 별헤는밤' 포스터 및 사진

<모기동 공동체>는 2019년 'N개의 서울'의 운영방식에 변화를 꾀한다. 2018년에 양천구로 영역을 확대하고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에 집중했다면 2019년에는 일상과 좀 더 결합되고 네트워크가 자생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식을 택한다. 축제의 경우, 동네 한 곳에 모여서 하루 만에 진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양천구 팝업 축제 Life Gardening Week'라는 이름으로 양천구 전역 20개의 크고 작은 공간에서 일주일간 진행됐다. 또한 양천구의 다양한 문화 네트워크를 지속하고 확장하기 위해 5명의 공동운영단을 공개 모집해 함께 운영했다. 사업의 권한을 나누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됐으며, 공방 아트마켓 '느긋한 시장'과 북마켓 'Book farm 책팜' 등은 공동운영단 운영이 종료된 이후에도 자생적으로 남아 자역활동을 이어간다.

제 3 장 〈모기동 문화예술공동체〉와 여성 주체

본 장에서는 <모기동 공동체>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 재구성한다. 이 장은 심층면접으로 수집된 자료의 분석에 기대고 있으며, 2장에서 소개된 활동이 참여자 개개인에게 어떤 의미였고 어떤 식으로 이해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모기동 공동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문화예술 활동은 이들에게 어떤 것이며 어떠한 관계를 맺으면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성장시키는가를 이들의 목소리로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제 1 절 '동네 사람'과 예술

1. '오롯한 나'로 있을 수 있는 곳

<모기동 공동체> 사람들의 참여 동기를 살펴보면 '동네 사람'으로서 '오롯한 나'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수렴된다. 개인적인 배경은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카페 '숙영원'이 있는 공간에 살고 있었고 자신의 삶의 일부로써 문화예술에 다양한 방식으로 접점을 갖고 있었다. <모기동 공동체>는 이들에게 '오롯한 나'로 있을 수 있는 공간이며 가족적 의무나 성역할을 통해 규정되지 않는 개인으로서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곳이었다.

1) '동네 사람' 되기

<모기동 공동체>의 출발에는 두 명의 여성 문화기획자가 있다. 은지는 대학에서 시각 예술을 전공하고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합류해서 4년간 활동을 했고 연희 역시 대학 졸업 후 공공미술 영역에서 경력을 이어가던 사람이었다. 이 두 사람은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고 같은 시기에 공공미술의 한계를 느

끼게 된다.

>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공미술팀에 합류해서 활동을 했죠. 문화예술로 지역과 일상을 새롭게 하고 싶어서. 이때 연희도 만났고요. 프로젝트 사업을 따라서 1년마다 보따리장수처럼 여기저기 지역을 돌았죠. 지역 리서치도 하고 기획도 하고 주민들도 만났어요. 소통도 하고 설득도 했지만 가끔은 트러블이 생기기도 했어요. 처음 의도와 달리 지역 주민이 원하는 대로 아예 컨셉이 바뀌기도 하고. 나의 지역이 아니니까 때로는 이방인 같은 마음도 들었죠. 나의 동네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지)

>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하면서 지역 주민들을 인터뷰하고 감정이입하고 시간도 많이 쓰면서 의미있게 활동해왔는데 사업이 끝나면 떠나야 하고 프로젝트 하면서 치고 빠지는 것들이 반복되니 나와 프로젝트가 단절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순간 괴리가 생기고 지치더라고요. 정작 내 삶 터와 일상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일상이 안 남고 친구도 안 남고. (연희)

은지는 1년짜리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하며 지역을 이동하는 것을 “보따리장수”라고 표현했다. 본인의 지역이 아닌 곳에서 “이방인”으로 주민과 소통하고 사업을 기획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며 “나의 동네”에서 활동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다. 연희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그 지역은 변했지만 오히려 본인의 삶과 일상에 변화가 없는 것에 괴리를 느꼈다고 말한다.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지역성과 일상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1년 단위로 다른 지역을 이동하며 공공미술을 수행한 두 문화기획자는 이들의 삶과 일이 일치되지 않는 것에 한계를 느낀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이들이 선택한 것은 ‘동네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

> 내 지역, 내 일상에 대한 고민을 안고 살고 싶어서 동네로 들어왔어요. 삶과 일과 놀이가 일치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내 삶 자체에 대한 고민과 프로젝트가 연결되어 내가 되는 활동을 하고 싶었어요. 숨 쉬듯 일하는 터를 만나면서 나오는 상상이 일

로, 작업으로 뿜어져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동네에 들어왔어요. (연희)

자연스럽게 살고 싶었던 거 같아요. 프로젝트나 일이 먼저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친해진 사람들하고 밥 먹다 재미있는 작업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걸로 전시도 하고, 거리 프로젝트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이어가고 확장하고 싶었던 거 같아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또 다른 지역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이 되어 이야기 나누다가 만들어지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그만두고 동네에 거점을 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지)

이들은 프로젝트를 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동네에 뿌리를 내리고 살면서 동네 사람으로서는 “삶과 일과 놀이가 일치”될 것이 가능할까라는 꿈을 갖게 된 것이다. 이들은 먼저 ‘동네 사람’이 되고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맺은 관계를 기반으로 활동이 이어지기를 바랐다. 일이나 프로젝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내 삶 자체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출발하여 “내가 되는 활동”을 하고 싶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어느 동네의 사람이 될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지역과 닿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성미산 마을도 가보고 은평도 가보고 문래동도 가봤는데 거긴 이미 예술가들이 많이 이주한 곳이었어요. 우연히 이 동네를 알게 되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이 동네가 매력적으로 느껴졌죠. 카페를 연다고 하니 부동산에서 처음에는 대로변에 월세 비싸고 권리금도 있는 곳을 소개해주셨어요. 하지만 너무 대로 쪽으로 나오면 우리가 상상하던 그림이 펼쳐지지 않을 것 같아서 더 작은 동네로 알아봐달라고 부탁했죠. 그래서 빌라와 작은 가게 들도 많고 낮에도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담벼락도 높지 않은 목2동에 카페를 열게 되었죠. (연희)

공공미술에 지쳤지만 먹고 사는 것은 해결해야 하기에 카페를 생각했죠. 풍요롭진 않아도 경제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되어야 지원사업이나 프로젝트에 억지로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을 거 같았어요. 음식을 잘하는 것은 아니니 음식점까지 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편하게 사람들이 들르고 문화적 향기를 느낄 수 있으면 머무

> 를 수도 있는 곳이 카페가 아닐까 해서 술도 팔고 차도 팔고 간단한 음식도 파는 카페를 생각했던 거죠. (은지)

이들은 삶과 일이 연결되는 활동을 원했지만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먼저였고 생계유지를 통해 공공미술 프로젝트와 같이 특정한 가치나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목표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기를 바랐다. 그래서 이들은 역설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동네”를 찾아 들어갔다. 그런 곳에서 자연스럽게 자기 삶을 이어가면서 동네 사람들과 관계를 맺다 보면 이들의 꿈을 실현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그렇게 해서 연 것이 카페 ‘숙영원’이다. 이들은 카페를 열고 1년 정도는 카페 영업에 집중했다.

> 여기에서 바로 뭔가를 시작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냥 동네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내 일상을 찾고 싶어 들어왔으니까요. (중략) 카페에 12시간씩 메여 있는 것은 때때로 너무 답답했고 기획자를 하던 저희에게 생활 리듬이 좀 안 맞기도 했지만, 동네에 들어와 공공미술처럼 급하게 억지로 뭔가를 꾸며내는 작업을 하는 게 싫어서 정말 1년간은 아무것도 안했어요. (은지)

매일 같은 시간에 카페를 열고는 공간을 지키고 커피, 음식을 만드는 서비스 노동은 문화기획자인 이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일이었지만 카페 운영은 억지로 공모사업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생계와 관련된 일이었다. 또한 은지가 “급하게 억지로 뭔가를 꾸며내는 작업이 싫어서”라고 표현한 것처럼 이들은 기존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관료적, 형식적, 목적지향적 방식을 거부했다. 나와 내 삶의 고민으로부터 출발한 진정성 있는 활동과 ‘동네 사람’으로 관계맺음을 통해 자연스럽게 일이 연결되는 방식을 지향했다.

2) ‘쿵짝이 맞는 사람’과 관계망의 확장

<모기동 공동체> 활동의 시작점은 이 카페 주인들이 ‘쿵짝이 맞는 사람’들을 만난 데서이다. 연희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쿵짝이 맞는 사람’이란 주영과 공방 사람

들로, 카페 '숙영원'이 개업되기 전부터 목2동 지역에서 '나무도예방'[18]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작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 동네에 들어와 1년 정도 카페를 운영하면서 사람들도 알게 되고 장사도 어느 정도는 됐던 거 같아요. 하지만 계속 답답함은 커져 갔고 여기 사람들과 문화예술 프로그램 같은 걸 하고 싶다는 생각이 불끈불끈 들었었죠. 어느 날 카페에 공방 사람들이 왔는데 차 마시고 수다 떨다가 속마음이 나온 거 같아요. "너무 심심해요. 정말 뭐라도 해야 할 거 같아요" 라고 하소연 비슷한 말을 했는데 정말 곧바로 공방 사람들이 "같이 해보자"라는 답을 줬죠. 쿵짝이 맞는 사람을 만난 기분, 뭔가 답답한 게 해소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죠. 그렇게 축제가 시작됐어요. (연희)

연희는 카페를 운영하며 동네 사람이 되었지만 삶과 일이 일치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하지 못해 답답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수다를 떨다 나온 연희의 제안에 주영과 공방 사람들이 화답을 하게 되고 은지와 연희, 주영, 공방 사람들이 의기투합하면서 '모기동 마을축제'는 시작된다.

'모기동 마을축제'에 처음부터 함께한 주영은 2005년부터 이 동네에서 활동하고 있던 도예작가로 도자기를 전공하고 결혼 후 육아에 전념하다 아이의 학교 가까운 목2동에 '나무도예방'을 연다.

> 아이가 양화초등학교를 다녔고 학교 근처에 작업실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2005년에 목2동에 공방을 열었죠. 도예를 전공했는데 결혼하고는 활동을 쭉 못하고 애가 좀 크면 다시 시작하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공방 임대료 때문에 양화초등학교 아이들하고 부모 대상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 호응이 좋아 일이 많아졌어요. (중략) 수강생으로 시작한 엄마 7~8명 하고 특히 친해졌죠. 육아 문제로 경력단절을 겪은 엄마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같은 또래의 애들을 키우면서 비슷한 고민거리를 갖고 비슷한 시기를 보내고 있어서 그런지 공감대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같이 놀러도 많이 다녔어요. 친해지다 보니 아이들도 수업 끝나면 공방으로 찾아오

18) '나무도예방'은 '숙영원' 건너편에 있는 도자기(도예) 공방으로, 공방의 명칭이 '나무'임을 밝힌다.

고. 도자기만 함께 했던 게 아니고 아이도 같이 키우면서 더 친해졌던 거 같아요. 나중에는 그냥 서로를 공방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끼리 공방에서 작은 바자회도 하고요. (주영)

주영은 경력단절을 겪었지만 자기 일로써 도예공방을 시작했고 여기에 유사한 경험을 가진 엄마들이 모여들면서 이른바 '공방 사람들'이라고 하는 공통성을 가진 소규모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상황이었다.

'숙영원' 친구들이 문화기획 일을 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같이 뭔가를 해보자고 하는데 재미있을 것 같았어요. 일을 위해서 모이면 힘든데 우린 동네에 같이 있다 보니 친해져서 같이 하는 게 어려울 거 같지 않았고. 마침 저희도 매년 공방 사람들끼리만 작게 바자회를 했었는데 같이 해보면 좋을 거 같았어요. (주영)

주영은 "일을 위해서 모이면 힘든데"라고 말하며 이들 사이에는 관계가 먼저 있었음을 강조한다. 여기서 주영이 말하는 "일을 위해서 모이면 힘든데"는 은지와 연희가 문제의식을 느꼈던 공공미술에서의 외부적 목적과 같은 맥락이다. 이 여성들은 자기 삶을 도외시하고 외부에서 주어진 목표를 빨리 달성하기 위해 매진하는 남성적 문화와는 맞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들 스스로는 우리가 여자라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비슷한 여성으로서의 공통성을 갖고 있었다.

'쿵짝이 맞는 사람'들은 여성으로서의 공통성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에 대한 지향과 이 속에서 자기 자신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라는 점에서도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다.

저희는 전문적으로 기획 일을 하지 않았지만 문화예술에 대해 관심과 이해도가 있어서 '숙영원' 친구들과 금세 소통이 잘됐어요. '숙영원' 친구들이 축제 방향이랑 전체 기획을 잡았고 저희는 동네 네트워크가 있어서 어떤 사람이 축제에 참여하면 좋을지 참여 프로그램은 어떤 걸 할지 아이디어를 냈어요. 또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세부 프로그램도 짜고. '숙영원' 친구들이 뭔가 하고 싶어도 일을 꾸릴 사람이 없으

면 힘들잖아요. 저희는 이미 모임이 만들어져 있었고 현장에서 엮어낼 사람들이 있었죠. 이렇게 각자 잘하는 일도 하고 또 같이 아이디어도 모으니까 시너지가 났던 거 같아요. 일을 한다는 느낌보다는 재미있는 놀이를 하는 느낌으로 마을축제를 준비했어요. (중략) 같이 축제를 준비하면서 역시나 했던 게 있었어요. 저 친구들이 일을 잘하네. 진지하면서 또 재미있게 하네. 그러면서도 무례하거나 억지스럽지 않고. 더 믿음이 가고 같이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주영)

동네 사람이라는 접점과 문화예술이라는 공동의 관심사와 이해도는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원활한 소통을 이끌어 냈다. 문화예술 기획이 직업인 두 기획자는 직업이자 본인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전체 기획을 주로 했고 2005년부터 공방을 하며 동네 사람들을 만나왔던 주영과 공방 사람들은 이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사람들을 엮어내는 역할을 주로 했다. 주영은 “하고 싶어도 일을 꾸릴 사람이 없으면 힘들잖아요”라고 하며 동네 활동에서 사람과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특히 문화기획자들이 “진지하면서 재미있고”, “무례하거나 억지스럽지 않은” 방식으로 축제를 준비하는 것을 보며 이들 사이에 더욱 신뢰가 쌓인다. 주영은 이런 관계성을 바탕으로 이들이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을 ‘놀이’라고 표현하며 어려운 일이 아니라 재미있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렇게 준비한 축제는 2011년 ‘모기동 궁여지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됐다. 이 공동체의 애칭인 ‘모기동’이라는 말은 사실 이 축제에서 비롯됐다. 아트마켓, 벼룩시장, 주민참여 벽화, 먹거리 장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고 250여 명이 넘는 마을 사람들이 축제를 관람했다. 축제는 동네 사람이 한 자리에 모이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카페 ‘숙영원’을 중심으로 더 많은 네트워크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 마을축제를 기점을 <모기동 공동체>에 합류한 경희의 경우, 목2동에서 ‘지역아동센터 나무와 숲’을 운영하는 시설장이었다.

지역아동센터는 2007년에 아이들의 교육환경에 대한 중요성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센터 시작할 때 다양한 지역 주민, 교회 등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죠. 사실 구의원도 지역에 활동하는 사람이라 알음알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중략) 지역아동센터는 정책과 밀접해서 구와도 연결되었고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니 몇 년 지나

자 학교와도 연결이 되었죠. 양화초등학교하고도 연결되어 간담회도 하고 영일 고등학교에서는 지역봉사단을 동아리 만들어서 자원봉사도 오고. (경희)

경희는 전직 구의원 출신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었고 이 지역 내에 굉장히 다양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었다. 2011년 '모기동 궁여지책'은 <모기동 공동체>의 첫 번째 성과이기도 하지만 <모기동 공동체>가 몇몇 개인의 네트워크를 넘어서서 지역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가 되었다.

동네에 카페가 생겨 가끔 들르고 눈여겨봤었는데 어느날 '나무도예방' 사람들이랑 축제를 시작했더라고요. 첫해 축제에는 놀러 가서 구경했는데 프로그램도 재미있고 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기존에 우리는 지역 아이들 돌보기에도 바빴는데 고맙기도 하고 그렇게 '숙영원' 사람들하고 좀 더 잘 알게 됐죠. 더 자주 카페도 가게 되고 친해지고 수다 떨다가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도 함께하고. 그러다 보니 아예 두 번째 축제부터는 같이 하게 됐어요. 기획에도 참여하고 큐트걸즈라고 지역아동센터 아이들도 거기서 공연하고. 몇 년째 축제를 같이 하다 보니까 한 팀 같은 느낌도 점차 생겼던 거 같아요. (경희)

축제를 하고 나니 많은 관계들이 생겼어요. '이 친구들이 그냥 카페만 하는 게 아니구나. 문화예술을 기획하는 친구구나'라는 인식이 생긴 거 된 것 같았어요. 그냥 놀러 오는 사람도 많아지고. 목2동에 있는 마리아의 딸 수녀회에서 수녀님이 오셨는데 이야기하다가 같이 청소년 공간을 꾸며보자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신이 나서 함께 하겠다고 했죠. 수녀님이 나서시니까 잘 몰랐던 지역 사람들까지도 많이 연결됐죠. (중략) 목2동 아이들 대상으로 몇 년째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경희 선생님하고도 알게 되어서 같이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축제도 같이 하게 되고 나중에는 마을 교육에 관심있는 사람들까지 합류해 '모기동마을학교 사회적협동조합'까지 같이 만들게 됐죠. 그땐 진짜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이거 해보고 싶다"고 하면 주영 선생님이 도와주고 경희 선생님도 도와주고. 동네 사람들을 통해 뭐든 해결되는 느낌이 들었죠. 한때 골목 주차장 자리에 아이들을 위한 작은 다락방을 만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민원이 들어왔는데 동네 어르신을 통해 해결되기도 하고. 뭔가 안전한 관계망이 생긴 거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은지)

은지가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축제 이후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이들을 찾아왔다. 경희는 축제를 계기로 카페도 자주 가고 친해지게 되어 지역 아동 대상 프로그램도 함께 만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수녀님도 축제에 참관했다가 이후 <모기동 공동체>로 이어지는 인연이 되는데 경희를 비롯하여 강력한 인적 네트워크와 영향력을 지닌 수녀님이 활동을 같이하게 되면서 문화기획자들의 활동 범위와 네트워크는 비약적으로 확장된다.

3) 문화예술을 좋아하는 나

마을축제 '모기동 궁여지책'을 중심으로 비약적으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공동체를 찾아오게 된다. <모기동 공동체>는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문화예술을 좋아한다는 것이다.

> 원래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아서 출판사에서 근무할 때도 그림책 기획 업무를 주로 했어요. 그림책이라는 게 일반 책과 달리 디자인이나 일러스트, 시각 작업이 중요하거든요. 이 분야에서 전문성도 인정받고 일도 많아졌는데 결혼하고 애 키우면서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래도 일하고 싶어서 중간중간에 프리랜서로 일하긴 했었는데 쉽지 않았어요. (중략) 작은 애가 모기동 마을축제에서 힙합동아리 공연한다고 해서 와서 보고 모기동 활동들을 알게 됐는데 카페 테라스에서 공연도 하고 아트마켓이랑 전시도 있고. 집이랑 이렇게 가까운 데서 다들 즐겁게 활동하는 것을 보고 저도 그림책 기획 포기 못하고 있었는데 내 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지금은 〈모기동 공동체〉에서 '꼬리달린 책방'도 운영하며 너무나 만족하며 활동을 하고 있어요. (현정)

현정은 육아라는 가족의 의무로 일을 그만두는 좌절을 겪지만 문화예술과 일에 대한 열망을 버리지 않은 사람이다. 그녀의 "이제 내 활동을 하고 싶다"는 말은 육아를 하며 가정에 충실했지만 그것은 '내 활동'이 아니라는 의미로 가정에 충실하는 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은 자신의 주체적 활동에 대한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모기동 공동체>를 통해 그녀는 “포기” 못했던 그림책 기획 등 문화예술 활동을 하며 자아실현을 하고 있으며 스스로 만족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 예술을 평생 업으로 하고 싶고 예술로 사람을 만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다가 〈모기동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게 됐어요. 마을 교사가 되어 동네 아이들과 예술 놀이를 하며 행복한 추억도 만들고, 축제 땐 동화책 공연을 하는 마을 배우가 되기도 하고. 제 꿈에 한 발짝 다가간 느낌이랄까. 축제가 끝나고 수업이 끝나도 아이들이랑 동네에서 반갑게 인사해서 너무 좋아요. 예술이 좋아 여기 함께 했는데 좋은 공동체를 만나니 즐거운 일이 계속 생겨요. 친구도 만나고 가족도 만나는 느낌이랄까요. (효진)

> 대학에서 플루트를 전공하고 졸업하고는 레슨 과외를 했어요. 클래식 악기를 배우는 것이 많이 보편화되었지만 음악에 대한 재미보다는 입시 위주로 가르치고 있는 게 답답해서 그만두게 됐어요. 동네를 지나가다 예술교육을 진행할 교사를 양성한다는 현수막을 보게 되었고 저의 답답함이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어요. 예술을 좋아하지만 틀에 박힌 교육은 싫었는데 스스로 동네에 맞게 예술교육을 기획하고 만들 수 있어서 좋았어요. 동네 사람 대상으로 ‘손바닥 라디오’라고 예술교육 프로그램도 직접 운영했는데 참여자들이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서로 공감하고 하는 것을 보고 새로운 가능성 같은 것을 느꼈어요. 그러다 은지, 연희 선생님이 제안하셔서 ‘플러스마이너스1도씨’에 합류하게 되었죠. (나영)

효진과 나영은 문화예술 전공자다. “예술로 사람을 만나고” “평생 업으로 삼고 싶어하는” 효진은 <모기동 공동체>에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며 예술가로서 그녀의 꿈에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특히 <모기동 공동체> 활동을 통해 동네 사람들과 새롭게 관계맺음을 하고 소속감을 느끼며 스스로를 “마을 배우”, “마을 교사”라고 호명하고 정체화하고 있었다. 나영은 플루트를 전공하고 과외수업도 했지만 예술의 즐거움보다는 입시위주의 틀에 박힌 수업을 진행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낀다. 그녀는 엘리트 예술교육의 현실에 한계를 느끼고 그만두지만 예술을 자기표현과 주체성의 발현으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모기동 공동체>를 만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한다. 이들은 문화예술을 하겠다는 목표는 있었지만 명확하게 따를 수

있는 커리어 모델이나 방법을 알지 못해 방황하거나 좋아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을 함으로써 문화예술을 포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모기동 공동체>이라는 지향점이 같은 공동체를 만나게 됨으로써 문화예술을 업으로 삼게 되고 자아실현의 돌파구를 찾는다.

위 세 사람의 공통점은 좋아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하며 자기 자신을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인데 이는 유일한 남성 연구 참여자였던 성환도 마찬가지다.

> 저는 옆 동네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자전거 타고 이 동네 지나가다가 우연히 마을축제를 하는 걸 보게 되었어요. 축제도 재미있고 카페 '숙영원'에 들어와 보니 책도 많고 내 취향에 딱 맞아서 동네에서 살아도 되겠다 했어요. 2016년에 집이 팔려서 동네 알아보다가 '숙영원' 근처 건물 지하실을 보고 근사해서 바로 정했어요. 어렸을 때 미술에 재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부모님이 허락을 안 해 주셨거든요. 퇴직하고 어릴 때 꿈을 이루고 싶다는 생각, 나무 작업을 배우고 나무 작업장을 가지고 싶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공간이 딱이라고 생각했어요. (중략) 동네에 와서는 자연스럽게 '협동조합 카페마을'의 조합원도 되었고 마을학교에서 목공수업도 했죠. 축제 때 필요한 것도 만들고 하는데 의뢰받은 건 잘 안 해요. 그런 건 노동이죠. 내가 디자인하고 아이디어 내서 작업하는 걸 좋아해요. (성환)

성환의 경우, 일 때문에 찾지 못했던 나 자신을 찾기 위해 은퇴 이후 <모기동 공동체>를 찾아왔다. 성환이 문화예술과 분리된 것은 여성과는 다른 이유이지만 여전히 젠더화된 이유이다. 남성의 성역할로 주어져 있던 생계부양자로서의 직업과 그에 대한 외부적 기대 때문에 그는 꿈을 미뤘고 은퇴 이후 문화예술 활동을 하며 자기 자신을 찾는다. 목공 작업은 그에게 이루고 싶은 꿈이었고 한편으로는 자아실현의 과정이다. 그는 의뢰받은 것을 그냥 만드는 것은 "노동"이라 칭하며 "디자인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만드는 "작업"을 좋아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스스로 창조하는 목공 "작업"을 통해 자기 주체성을 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정, 나영, 효진, 성환은 모두 문화예술을 좋아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열망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로 이들에게 문화예술 활동은 자기의 주체성을 회복하는 것이자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활동이었다. 모두 여성들은 아니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가족의 의무나 부모의 반대, 목표의 좌절로 자신의 꿈을 버려야 했던 사람들이고 이들은 일부 젠더화된 형태로 좌절되어있었던 자아실현의 욕구를 문화예술 활동에서 찾고자 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에게 <모기동 공동체>는 자아 추구의 돌파구이자 오롯이 나를 찾을 수 있는 곳이었다.

2. 여성의 자아 추구

<모기동 공동체> 사람들에게 모기동 활동은 '오롯한 나' 그리고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기회로 해석된다. 모기동 사람들은 제각기 다른 삶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서 비슷하게 자아추구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타난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 사람들의 자아추구는 여성들이 현대인으로서 진정한 자아를 추구하지만 근대적인 성별분업 안에서 허용되지 않고 좌절되는 딜레마와 연결된다. 공동체 사람들에게서 독특한 방식으로 자아추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러한 점에 이들의 이야기는 프리단(Friedan, 2018)이 주장했던 여성의 자아찾기와 연결된다.

1) 누구 엄마가 아닌 '나'로 살기

명숙은 오롯한 내가 되고 싶어 동네에서 활동을 시작한다. 그녀는 오랫동안 육아에 갇혀서 도자기 작업이라는 개인의 욕망이 좌절되었다가 문화예술공동체 참여를 통해 다시 자기 활동을 시작한다. 결혼과 출산, 육아로 인해 노동시작에서 멀어지고 본인의 꿈과 커리어가 단절되었지만 동네에서 문화예술공동체를 만나면서 가족에 파묻히지 않은 개인의 주체적 활동을 한다.

> 도자기 전공에 대학원 졸업하고 활동하고 강사도 하고 있었는데 늦게 결혼해서 낳은 아이가 굉장히 아프고 해서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아무 것도 못하고 애한테 매달려 있어야 했고 애가 중학교 가고는 내 활동을 좀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너무 막막했어요. 그래서 그냥 웅

> 크려 있었죠. 일을 구하기도 어려워서 다른 친구 공방 좀 도와주고. 20년을 가족 안에서 누구 엄마로 살다가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는데 <모기동 공동체>를 만나게 되고 제 활동을 조금씩 해나가고 있어요. 20년간 참고 기다려왔던 꿈이 실현되는 느낌이죠. 20년간 개인으로 못살고 누구 엄마로만 살다가 이제 도자기도 하고 모기동 활동도 하면서 오롯한 나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내가 되는 작업, 내가 되는 활동을 통해 내 삶의 주체가 되고 내 활동의 주체가 되고. 이 모든 게 다 내 주체성이에요. 그래서 더 소중한 거고요. (명숙)

명숙은 "20년간을 가족 안에서 누구 엄마로" 살아오며 개인으로서의 삶을 누리지 못했다. 가족 안에서 삶에 대해 "아무 것도 못하고 애한테 매달려 있어야 했다"고 이야기하며 타인을 위한 삶을 사는 동안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어려웠다고 말한다. 또한 명숙은 다시 일을 다시 시작하는 방법도 몰랐으며 노동시장의 참여에도 제약을 받았다. 명숙은 프리단(2018)이 말한 '이름붙일 수 없는 문제'[19]를 정확히 보여주는 예이다. 명숙은 학력이 높았고 가족 생활이 너무 폭력적이거나 싫은 것은 아니지만 자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고 아이 문제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도 없었다. 그녀는 가족 밖에서 자아를 찾기 위해 동네를 찾아왔고 <모기동 공동체>를 만나 내 자신의 삶의 맥락을 버리지 않고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0년간 "웅크려" 있었지만 "내가 되는 활동"을 통해 스스로 "삶의 주체"임을 확신하고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아실현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나영은 목2동 토박이로 <모기동 공동체>의 마을 교사 양성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손바닥 라디오' 프로그램도 기획하다가 뜻이 맞아 2017년 '플러스마이너스1도씨'에 기획자로 합류한다. 2019년 출산과 동시에 1년간 육아로 한동안 활동을 하지 못하다가 2020년에 복귀했다.

---

19) 프리단(2018)은 1950년대 냉전기 미국 중산층 가정주부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이유을 알 수 없는 공허함과 무력함에 주목하고 이를 '이름붙일 수 없는 문제'라고 명명했다. 프리단은 가족 안에서 자기를 지우지 말고 가족 밖의 일자리나 문화예술, 공동체 활동을 통해 자아정체성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작년에 육아 때문에 활동을 쉬었는데 엄마로만 살며 아기하고 똑같이 자고 일어나고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모기동 사람들이 활동하는 사진 같은 거 보면 부럽고 나만 동네에서 빠지는 거 같아서 섭섭하고. 엄마로 살며 일을 놓는 거 같아 속상했어요. 지금 활동에 복귀해서 사람들이랑 마을예술 프로그램을 같이 고민하는게 너무 좋아요. (중략) 저는 엄마이지만 또 일하고 있는 나영이죠. 엄마로 사는 것도 의미있고 가치있는 일이지만, 저에겐 일하는 시간이 하루 중 누구 엄마가 아닌 나로 살게 해주는 절실하고 소중한 시간이에요. (나영)

나영에게 육아휴직 경험은 “아기하고 똑같이 자고 일어나고 하는” 고립된 경험이다. 공동체나 다른 사회적인 관계가 단절되고 기존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 온전히 아이와의 관계 속에 몰입할 것을 요구받았던 것이다. 나영은 육아기간 중 다른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았을 때 동네에서 뒤처지고 고립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지금 일로 복귀한 것에 기뻐하며 동시에 자신을 “엄마이자 일하는 나영”으로 정체화하고 “누구 엄마가 아닌 나로 살” 수 있는 시간이어서 소중하다고 강조한다. 본인을 스스로 “엄마이자 일하는 나영”으로 부르는 것은 여성시민의 정체성을 노동자 또는 엄마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울스턴크래프트의 딜레마(Pateman, 2001)[20]’에서 벗어나 엄마이자 노동자이며 다양할 수 있는 정체성을 스스로 갖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예술공동체 활동은 한동안 육아로 인해 자기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지 못한 여성들에게 “절실하고 소중한” 기회이며 나의 삶을 버리지 않으며 오롯한 개인이 되는 활동이다.

2) 〈모기동 문화예술공동체〉 활동을 ‘일’로 이해하기

은지는 “삶과 일과 놀이가 일치”되었으면 좋겠다고 희망하며 목2동에 들어왔다. 은지와 연희에게 카페운영은 생계수단으로서 일이었고 그 이외에 모든 공동체 활동들도 원래 문화기획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과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

20) 페이트만(Pateman, 2001)은 여성이 남성중심적 기존 시민권 개념을 추구할지, 아니면 남성중심의 보편적 시민권을 거부하고 여성의 경험과 가치를 존중하는 시민권 개념을 추구할 것인가를 놓고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을 ‘울스턴크래프트의 딜레마’라고 설명하였다.

의 활동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참여자들의 경우에는 이것을 통념적으로 일이라고 단언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들의 활동을 취미나 여가활동, 동네에서 하는 자원봉사라고 생각될 수 있으나 <모기동 공동체> 사람들은 수입여부 관계없이 명확하게 '일'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 애들이 가끔 "엄마 무슨 일 해?"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럼 "나 모기동에서 일 해"라고 대답해주죠. 이게 제 일이고 활동이고 삶이니까요. 제가 여기서 일하는 것을 한마디로 설명할 순 없지만 "나는 협동조합에서 그림책 기획해. 사람들하고 같이 일해"라고 쉽게 설명하죠. 그럼 애들이 그래요 "엄마 요즘 돈 안 벌잖아. 그럼 일 안 하는 거네?"라고 해서 "아니 이건 일이야"라고 말해줬죠. 사람들이 일을 한다면 경제적인 것으로 연결시키잖아요. 일을 하면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여기서 하는 것은 내가 좋아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여기서 1원의 돈도 안 받더라도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건 일'이라고. 애들한테 명확하게 말해요. "엄마 돈을 안 벌지만 이건 엄마 일이야"라고. (현정)

현정은 돈을 버는 일만 일이라고 보는 시선을 거부하며 모기동 활동이 "일이자 활동이자 삶"이라고 말한다. 현정이 모기동 활동을 '일'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것이 쉽게 내가 좋아서 하는 취미나 여가처럼 여겨지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하기 때문이다. 모기동 사람들은 이들의 활동을 나의 자아를 투영하고 나의 사회적 존재를 증명하는 일로 봄으로써 돈을 버는 것만 일로 보는 것에 저항한다.

> 이 활동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제 일이자 내가 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없는 일이에요. 이 활동을 못하고 작업실도 못 열었다면 내가 얼마나 무의미하게 살고 있었을까요? 이 일이 '저'이고 '제 삶'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제 2의 삶이 시작됐죠. 저 개인으로서는 결혼과 아이 때문에 멈춰졌던 삶이 다시 굴러가게 된 거예요. 제 삶의 주체가 제가 된 거예요. (명숙)

명숙도 모기동 활동을 '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본인의 정체성이 가족이 아니라 오롯이 일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명숙은 가족 안에서 주체성을

찾지 못했으며 자신의 삶이 “결혼과 아이 때문에 멈춰있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모기동에서의 일이 아니고서는 “무의미하게” 살고 있을 것이라 말하며 본인의 일을 통해 주체성을 찾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동네 사람으로서 일이고 활동이고 삶인 이 모기동 활동은 가족 구성원으로부터도 쉽게 인정받지 못한다.

> 동네에서 일하는 것은 혜택이죠. 동네에서 일하니까 집에서는 엄마이지만 집 밖만 나가면 일터이고 여기가 삶의 터전이자 동시에 일의 터전이기도 한 거죠. 하지만 남편과 저 둘 다 일하다 퇴근을 하는 게 기정 사실인데, 엄마는 남편한테는 퇴근하면 쉬라고 하고 저한테는 애를 보라고 하세요. 둘 다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거잖아요. 일하다 갑자기 야근할 일이 생기면 모기동 사람들이 대신 아이를 봐주고 배려해주기도 하지만 너무 미안하거든요. 엄마, 남편한테 이야기하면 저한테 “동네잖아”라고 하는데 너무 속상해요. “친한 사람들이랑 일하니까 괜찮아. 그래봤자 동네잖아”라는 뉘앙스가 짜증나요. (나영)

나영은 자신이 동네에서 일하는 것과 남편이 직장을 다니는 것이 다르게 평가받는 것에 불만을 표했다. 남편이 하는 일은 일다운 일이며 본인의 일은 “동네 친한 사람들이랑” 하는 “자원봉사나 소일거리”로 보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나영은 “그래봤자 동네잖아”라는 말에 저항한다. 그녀는 근대 공/사 이분법적 사고에 의해 여성들이 동네에서 하는 일을 사적이거나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동네 사람들의 배려와 돌봄을 당연한 것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반대한다.

> 내가 모기동에서 일하는 것도 자원봉사가 아니라 제 일인 거예요. 내 자아를 실현하는 일이죠. 돈으로 모든 노동의 가치가 다 매겨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밖에 나가서 하는 일만 일이라고 보는 건 남성중심적 사고죠. 남자가 하는 일만 일이라고 보는 것도 그렇고. 여성들의 가사노동이나 엄마의 노동력도 마찬가지 같아요. 시간당 돈으로 환산해주지 않지만 가치 있는 일인데 돈으로 환산되지 않아 일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일이라는 개념 자체를 잘못 생각하기 때문인 거 같아요. 난 여기서 내 일을 하는 거예요. 돈으로 환산될 수 없는 다른 가치의 일을 하는 거죠. (현정)

현정에게 모기동에서의 일은 “자원봉사”가 아니라 “자아를 실현하는 일”이다. 현정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다른 가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강조한다. “밖에서” “남자가” 하는 것만을 일로 보는 남성중심의 이분법적 사고를 비판하며 육아나 돌봄, 가사노동을 돈으로 환산되지 않지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모기동 공동체> 사람들은 문화예술 활동을 일로 이해하고 있으며 남성적인 잣대에 의해 돈을 버는 일만이 일로 평가되는 것을 거부한다. 이들에게 있어서 일이라고 하는 언어의 사용은 공동체 활동을 사소하게 부차적인 취미 활동으로 여기게 하지 않은 전략이기도 하거니와 한 인간이 자기의 정체성을 다 바쳐서 치열하게 하는 과업으로서의 일인 것이다. 동시에 집안에서의 돌봄 노동이나 집 밖에서의 돌봄 노동, 일상을 꾸리는 노동이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남성 중심적인 시각에 저항한다.

제 2 절 ‘우리’가 만들어지는 과정

1. 동네에서 문화예술 하기

1절에서는 모기동 사람들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개개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문화예술 활동이자 일을 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절에서는 <모기동 공동체> 사람들이 ‘우리’라고 하는 공동의 감각을 만들어가게 되는 과정을 이들의 목소리로 재구성한다.

1) 축제, 우리가 만들어진 공동의 경험

연구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계기는 2011년 마을축제 ‘모기동 궁여지책’이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것은 최초의 공동의 활동일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축제에서는 벼룩시장, 테라스 공연, 주민참여 벽화, 먹거리 장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원래 계획은 작은 마을축제였지만 250명 이상의 동네 사람들이 참여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끌었다.

> 재미있자고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줬어요. 벼룩시장 참여자 접수를 받았는데 30팀 넘게 신청하고.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시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당일 날 인형극을 섭외해주신 분도 있고. 그냥 구경 나오신 분들도 많았고. 250명 정도 오신 거 같았어요. 처음 준비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좋아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다들 너무 즐거워하는 모습에 뿌듯하고 고맙기도 했어요. 축제를 하면서 알게 되거나 더 친해지게 된 많은 분들 때문에 힘이 났어요. (연희)

연희는 축제를 준비하며 “동네 사람들이 좋아할지 몰라 고민이 많았다”고 말했다. 처음 시작한 축제였지만 벼룩시장 참여자 모집에는 30팀이 넘게 사전 신청을 했고 축제 당일에도 250여 명의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로 호응이 높았다. 축제는 조용한 동네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축제를 하면서 알게 되거나 더 친해지게” 되는 새로운 관계망이 형성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도적으로 ‘우리’를 만들겠다거나 네트워크를 확장하겠다는 목적의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즐겁기 위해서 축제를 했다는 것이다.

> 12월인가 공방, 벼룩시장에 셀러로 참여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뒷풀이를 했어요. 다들 “즐거운 경험이었다”라고 말하며 뿌듯해했었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내년에도 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내년에 길을 막고 해야겠어요”, “내년엔 참여 프로그램을 많이 해요”, “미리부터 준비해요” 등 다양한 의견도 제시되었죠. 사람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음에’를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은지)

축제는 동네 사람들에게 “즐거운 경험”이 됐다. 개인의 행복감이 향후 활동을 이어가는 계기가 되었고 외부에서 오는 목표나 주어진 틀거리 안에서가 아니라 개개인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 모든 활동이 이어지는 출발점이 된다. 이때의 즐거움과 자유롭고 비위계적이고 비형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의사결정하는 방

식은 향후 <모기동 공동체> 활동의 원칙이나 방향성의 좌표가 된다.

> 축제를 하면 할수록 점점 사람들이 늘어나고 한두 달 전에 준비해서 하던 축제가 나중에는 6개월 전부터 준비하는 축제가 되었죠. 처음에 둘이 하던 게 넷이 되고 여덟이 되고. 나중에는 40~50명 정도가 참여해서 축제를 준비했어요. 또 맨날 카페에 모여서 수다 떨면서 일상적으로 축제 회의를 하고. 작은 아이디어들이 축제의 프로그램이 되었죠. (은지)

> 동네 사람들에서 축제를 함께 하는 사람들로 관계가 바뀌었달까요? 처음에는 그냥 참여자였는데 스스로 만들어가는 축제가 되고 또 따로 참여하다가 유대감 같은 게 생기고 한 팀이라는 느낌을 점차 갖게 된 거 같아요. 다 같이 축제를 어떤 컨셉으로 할지 고민하고 그러다 축제 기획단이 꾸려지기도 하고. (경희)

모기동 축제가 정례화되며 축제를 만들어가는 사람도 늘어났다. “40~50명 정도”가 함께 축제를 기획했으며 평소에 축제가 사람들의 대화거리가 될 정도로 모기동에서 축제 준비는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 경희는 축제가 지속되면서 사람들이 “그냥 참여자가 아닌 스스로 만들어 가는” 축제의 주체가 되었다고 말한다. 작은 아이디어도 축제 프로그램이 되었고 축제의 컨셉부터 함께 기획하고 고민하며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이들 사이에 “한 팀”이라는 소속감이 형성되었다. 유대감과 소속감을 바탕으로 축제를 공동으로 만드는 과정을 지속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서로를 “동네 사람”에서 “축제를 함께 하는 사람들”로 의미화했다. 작은 개인들의 인적 네트워크에서 활동의 내용을 갖추고 연대감과 정체성을 공유하는 공동체로 성장하게 된다.

이 공동체는 계속적으로 지역의 사람들을 끌어들이면서 참여의 폭을 넓혀갔다. 이런 방향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2013년에 개최된 축제 포스터 공모전이다.

[그림 15] 3회 모기동 마을축제 포스터 공모 배너
출처: '플러스마이너스1도씨' 네이버 블로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판이 아닌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지금 여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합니다"라는 공모전 소개글은 누구나 참여가능하고 모두가 함께 만드는 축제의 지향점을 잘 보여준다. 다양한 참여작 중 9살 지역 아이가 출품한 작품이 선정되어 축제 포스터로 활용되었다. 모기동 축제는 어른, 아이 상관없이 지역 주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인 방식으로 운영됐다.

> 축제 벼룩시장엔 주민들이 많이 참여했죠. 특히 아이들이 꽤 많이 참여했어요. 축제에 지역아동센터도 연결되어 있었으니까. 아이들 코너를 따로 만들어줬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이들이 지우개, 연필, 카드 등 별의별 거 다 가져왔어요. 사람들에게 팔려고 손팻말까지 만들어오고. '모기동에서만 볼 수 있는 지우개', '안사고는 못 배길 연필' 등 창의적인 홍보문구까지 넣었더라고요. 그러고는 애들끼리 앉아서 협상을 시작하는 거예요. "지우개를 줄 테니 넌 카드를 줘" 이렇게 물물 교환도 하고. 지나가는 동네 분들에게 호객행위도 하고 어른들이 재밌으니까 사주기도 하고. 아이들이 비시즌에 축제 언제 하는지 물어보고 축제 참여했던 경험을 지인과 주변에 자랑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축제에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을 얼마나 즐겁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정은)

축제 벼룩시장은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정은은 벼룩시장에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하여 동네 아이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말하며 축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동네 아이들에게 즐거운 경험이 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이들은 스스로 벼룩시장에 참가할 품목을 정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홍보문구와 팻말까지 준비했으며 축제 현장에서도 지역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했는데 이는 관람객이나 단순한 참여자를 넘어 생산자로서 축제를 만들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축제는 '목2동'이 '모기동'이 되는 공동체의 출발점이다. 개인적 네트워크에서 시작해 "축제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공동체성을 갖추게 되었으며 축제를 주체적으로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양한 참여방식을 통해 참여자들까지 생산자가 되도록 만드는 방식이라는 차원에서 문화민주주의의 사례가 될 수 있다.

2) 일상이 된 문화예술

축제는 <모기동 공동체>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지만 1년에 한 번 하는 축제만으로 공동체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모기동 공동체>는 일상을 공유하면서 동시에 일상 속에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합시키는 방식으로 활동한다. 이들은 일상을 함께 하고 일상 속에 서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이들이 문화예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일상과 관계가 문화예술과 분리되지 않은 방식으로 직조된다.

> 축제를 같이하고 나니 친근함, 끈끈함이 같은 게 생겼어요. 사람들이 카페로 많이 찾아오셨고. 같이 수다를 떨다 보니 서로의 일상도 알게 되고 고민도 알게 되고. 뭔가 같이할 일이 계속 생겼죠. (연희)

> 카페 자주 오는 친구가 뜨개질을 잘하니 같이 해보자 했던 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누가 "나 이거 잘해. 같이 해보자"라고 하면 그냥 프로그램이 되었던 거 같아요.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작업이고 과정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면 다 가능했던 거 같아요. 그런 면에서 뜨개질도 예술이고, 도예, 밥상, 동네의 모든 것이 모두 예술이 될 수 있죠. 문화사대주의적 시각에서 꼭 고급예술만이 예술이 아니라. 우리가 지향하는 예술은 일상과 생활을 기반으로 하는 예술이에요. (연희)

연희는 축제를 통해 "친밀함"과 "끈끈함"이 생겼고 특별한 일이 없이도 수다도 떨고 일상을 공유하는 관계가 되었다고 말한다. <모기동 공동체>는 일상이 공유되고 문화예술에 대한 공동의 관심이 연결되면서 새롭고 창발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어낸다. 이들에겐 일상에서 접하는 친밀한 소재와 삶의 단면들이 다 문화예술의 콘텐츠가 되었다. “뜨개질도 예술이고 도예, 밥상, 동네의 모든 것이 예술”이라고 말하는 연희는 고급예술만을 예술로 보는 “문화사대주의적 시각”을 거부하며 일상과 접지된 생활 속 예술을 강조한다.

> 손을 쓰는 작업을 많이 했어요. 바느질이든 도예든 목공이든 요리든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손으로 만들었죠. 하지만 그냥 반복이나 실력향상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게 했어요. 수작업은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잖아요. 흙이나 천 같은 재료들을 만지고 자기 시간을 가지고 무엇을 표현할지 고민하고 만들고. 참여자분들은 힐링도 되고 작업을 끝내고 뿌듯해 하시기도 했어요. 작업이 끝나고는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죠. 밥상 만들기 수업을 했을 때 각자 밥상에 얽힌 기억을 나눴거든요. 한 분이 “부모님이 차려주신 밥상의 추억을 떠올리며 작업했다”고 하자 다른 분들도 밥상에 얽힌 본인의 이야기를 하시며 공감하고 더 친밀해지셨어요. 처음엔 자기 작업을 위해 참여하셨던 분들도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니 다른 사람의 작업과 서로에 대해 관심도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이 다 끝나고는 다 같이 카페에서 전시했죠. (연희)

> 그냥 기물을 만드는 건 문화센터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저희는 기물을 만드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작업을 통해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관계를 만드는 작업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5차시 프로그램에 책 스터디나 인문학 강의, 공유의 과정, 공동 전시 등을 꼭 넣어요. 생각하고 고민하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작업의 주체가 되고 공감이 형성되기도 했죠. 공유는 동네 안에서 이웃을 발견하고 관계를 만드는 과정의 일환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수강생 중 한 명은 이사오기도 했어요. (은지)

연희는 <모기동 공동체>의 문화예술 활동을 ‘작업’이라고 표현한다. 그녀는 참여자들이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고 손을 통해 주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즐거움과 뿌듯함을 느꼈다고 말하는데 이들에게 문화예술 활동은 향유나 관람이 목적이 아닌 창작활동이며 단순 “반복”이나 “실력향상”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만들어나가는 ‘작업’으로 이해된다. <모기동 공동체>의 문화예술 활동은 “문화센터”

와 달리 소통과 공유의 과정 또한 중요한 부분이다. 연희는 참여자들이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며 “공감하고 더 친밀해지셨다”고 말하며 공유를 통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은지 또한 공유를 “동네 안에서 이웃을 발견하고 관계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말하는데 연희와 은지의 말 속에서 <모기동 공동체>의 문화예술 활동은 일상 속에서 개인의 삶에 집중하고 타인과 소통하고 관계를 만드는 ‘생활문화’[21]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을 알 수 있다.

> ‘내 손 사용법’이란 책을 같이 읽고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스스로 손을 써서 만든다는 것과 ‘손의 의미’에 대해 함께 고찰했죠. 평소에 크게 생각하지 못했었지만 자본주의에 의해 시간을 박탈당하고 상품광고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철저히 소비자로 길들여지는 상황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서로 공유하기도 했어요. 내가 실제로 사용할 것을 내가 원하는 만큼 시간을 들여 내 손으로 만드는 과정을 통해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로서 나의 주체성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은지)

수작업의 의미를 함께 고찰하며 이들은 “생산자로서의 나의 주체성”을 마주한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손의 의미’를 찾아가며 평소 의식하지 못했었던 자본주의적 대량 생산과 속도에 대해 비판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 수동적인 소비자가 되어온 것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스스로 시간을 투자해 자신이 사용할 것을 자기 손으로 만들어가는 주도적인 과정을 통해 ‘생산자’이자 ‘주체’가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오장미경(2002)은 공적 정치에서 배제되거나 간과되었던 사적이거

21) 지역문화진흥법(2014) 제 2조에서 ‘생활문화’는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으로 정의된다. 서울시는 2016년 문화시민도시 종합계획인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과 2017년 ‘서울시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를 통해 일상 속 시민 활동의 지원을 정책화하였다. 서울문화재단에서는 ‘생활문화정책 2.0’을 통해 서울시민을 서울의 ‘생활문화’를 만들어가는 주체로 인식하고 일상 속 예술이나 그동안 호명되지 않았던 활동을 확대하는 것을 방향성으로 설정하였다. 생활문화는 장르적 예술을 넘어서는 광의의 개념으로 ‘다양한 사회문화 환경 속에서 주체가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타인과 소통하여 만든 일상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규정된다. 일상 속 문화예술을 통해 소통하고 문화시민 주체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서울문화재단, 2019).

나 개인적 주체들과 전통적인 공/사 이분법하에 무시되었던 주제를 의제화함으로써 공/사의 경계를 재구성하는 것이 생활정치의 페미니즘적 가능성이라고 강조한다. <모기동 공동체> 사람들이 손작업을 통해 사적인 것으로 치부되어온 일상을 재해석하고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자신들의 위치와 정체성을 자각하는 활동은 전형적으로 근대적인 공/사 이분법을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이들이 일상활동으로써 손작업을 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은 오장미경이 지적한 생활정치의 페미니즘적 가능성을 잘 보여준다.

> 동네에 들어와서 공공미술 방식의 거창한 예술을 할 생각은 없었어요. 쇼를 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그냥 숨 쉬듯 자연스러운 예술, 일상을 담을 예술, 일상 속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예술을 하고 싶었어요. 증명하거나 설득하기 위한 예술이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자기 안에 있던 것을 꺼내고 생각해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힘이 되는 예술이요. 기량이 향상되거나 작품을 감상하는 것을 알려주기 보다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생각, 자기 언어, 자기 해석을 토대로 표현하고 행위할 수 있기를 바랐어요. (은지)

생활정치의 가능성은 은지가 처음부터 생각했던 비엘리트주의적인 예술관과 연결된다. 은지는 “공공예술 방식의 거창한 예술”이나 “쇼”가 아닌 “숨쉬 듯 자연스러운” 예술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데 그녀에게 예술은 “증명하거나 설득”하기 위함이 아니라 “일상 속 나를 발견”하고 “자기 안의 것을 꺼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 이들은 일상 속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문화예술로 생산해 내며 스스로 자기 삶의 주체가 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문화예술의 일상성을 강조하는 <모기동 공동체>는 교육이라는 형식이나 틀보다는 개인의 경험과 감수성의 발현을 우선시한다. 이것은 소현이 운영한 ‘세상 단 하나만의 노래 만들기’ 프로그램에도 나타난다.

> 저는 음악을 구조적으로 보지 않고 감수성으로 만들어요. 전공자도 아니고 전문지

식이 없어서 처음엔 망설였지만 내가 노래를 만들었던 경험에서 성취감, 존재감을 느꼈던 것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죠. 수업은 틀에 박힌 방식이 아니었어요. 참여자 각자가 자기 경험과 고민을 글을 써오기도 했고 함께 실로폰만 들고 산책을 나가서 노래 부르기도 하고요. 1, 2절 구성을 꼭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완성된 형태가 정해진 건 아니니까 그냥 스스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고 했죠. 내가 만든 나만의 노래이니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도 없고 우리는 평가받는 작업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각자가 자기 이야기를 써왔고 그게 가사가 되었죠. 어떤 참가자는 노래에 자신이 없어 웅크린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가사로 쓰기도 했죠. 안될 거 같았는데 그간 친해지고 신뢰감이 생겨 함께 음을 부르고 기타와 문방구 악기들로 연주하니 곡이 완성되었어요. 수업이라기보다는 노래를 만드는 공동의 경험을 함께 한 거죠.(소현)

소현은 전공자는 아니지만 노래를 스스로 만드는 경험과 성취감을 나누고 싶어 수업을 시작했다고 말한다. 그녀는 작곡의 방법이나 음악적 지식을 가르쳐주는 “틀에 박힌 수업”을 하고 싶지 않았다고 강조하는데 참여자가 스스로 자기 이야기를 가사로 써보는 방식, 함께 문방구 악기를 연주하며 멜로디를 만들어가는 협업의 방식으로 “나만의” “단 하나만의 노래”를 만들었다. 우리의 활동이 “평가받는 작업”이 아니라고 말하는 소현은 이렇게 만든 결과물이 고정된 완성의 형태나 우열이 없음을 강조한다. 이들의 활동은 음악적 구조를 가르치거나 선생님이 학생을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전형적인 틀에서 벗어나 협력적이고 민주적이며 신뢰에 기초한 학습 공동체 형태로 보여진다.

3) 스스로 기획하는 문화예술

모기동 사람들은 축제와 문화예술 활동을 함께 하는 동시에 각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갖고 자기 일상을 표출하는 주체로서 개인이다. 따라서 <모기동 공동체>의 문화예술 활동은 예술을 잘 감상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 집중해 스스로 ‘자기 기획’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2017~2018년에 진행된 ‘손바닥 라디오’가 있는데 참여자가 DJ가 되어 자기 이야기로 대본도 쓰고

라디오 방송으로 만들어 팟캐스트에 공유하는 마을미디어 프로그램이다.

> [손바닥 라디오]는 모집부터 인기가 많아서 신청이 금방 마감되었죠. 올해도 작년처럼 누구나 신청 가능하답니다. '나만의 팟빵을 만들고 싶은 사람, 나의+우리의 이야기를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은 사람, 라디오를 좋아했던 사람, 일상의 소소한 것들을 관찰하고 쓰고 말하고 싶은 사람, 성우가 꿈이었던 꼴성대 당신, 마을라디오+방송을 꿈꾸는 사람'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
> 서툴더라도 글쓰기부터, 녹음하기, 나의 목소리 들어보기, 녹음한 것을 핸드폰+컴퓨터로 편집하고 방송을 올리는 과정까지를 보낼 예정인데요. 사실, 기술보다는 우리 안에 숨어있던 창작자를 만나는 과정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핸드폰이라는 일상의 도구로 내 손안의 방송국을 만들어 소소히 목소리를 띄우며 이웃과 관계를 쌓아가는 탄탄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은 분들을 기다립니다.

[그림 16] '손바닥 라디오' 참여자 모집 안내
출처: '플러스마이너스1도씨' 네이버 블로그

'손바닥 라디오' 참여자로 '성우가 꿈이었던' 사람, '일상의 소소한 것들을 관찰하고 쓰고 싶은 사람', '나의+우리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은 사람'을 모집했는데 15명 정원이 금방 마감될 정도로 모기동 사람들에게 관심이 높았다. 참여자들은 다양한 연령대의 주부들이었고 서툴지만 '글쓰기부터 녹음하기', '나의 목소리 들어보기', '편집하고 방송을 올리기'의 15차시 과정을 통해 자기 방송의 DJ가 되었다. 나영과 효진은 마을 교사로서 '손바닥 라디오' 프로그램을 2년간 운영하였다.

> 라디오 방송을 위한 기술적인 것 빼고는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없었어요. 어떤 분은 감명받았던 책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만드셨어요. 주부로만 계셨는데 아이들 등원하면 그 시간에 책을 다시 읽고 틈틈이 자기 생각을 글로 정리하셨어요. 직접 시를 쓰신 분도 있고 '내가 만난 사람들'이란 주제로 프로그램을 만드시기도 하고. 자기 경험을 말할 수 있는 창구가 있다는 것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나영)

> 10분짜리 자기 원고를 쓰는 건 힘든 거죠. 그동안 안 하던 일상의 리듬을 깨는 활동이잖아요. 주부의 일상은 아침밥 차리고 남편, 애들 가고 나면 청소하고 빨래하고 애 하교하면 밥 먹이고 학원 보내고 남편 오면 또 밥 주고. 하루의 사이클이 나

를 위한 사이클도 나를 위한 시간도 아니잖아요. 가끔 엄마들 모임 나가도 “어느 학원 좋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24시간 중에 내 시간은 1시간도 갖기 힘들죠. 하지만 참여자들은 대본을 쓰는 시간이 하루 중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이고 “애들 재워놓고 뭐를 쓸지 어떤 노래를 틀지, 어떤 경험과 이야기로 사람들과 소통할지, 내 육아나 고민을 나눠도 될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고 하셨어요. “내 이름 걸고 하는 방송이니까 뿌듯하고 밤새고 글을 써도 즐겁다”고 하시고. 이 프로그램으로 참여자분들의 삶이 아주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이걸 계기로 내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효진)

‘손바닥 라디오’의 참여자들은 자신의 고민과 이야기로 방송을 기획했다. 참여자들의 원고는 각각의 자기 경험에 기반하기 때문에 나영은 마을 교사지만 “특별히 가르칠 것이 없었다”고 말한다. 참여자 모두 주부로 가족들을 위해 하루종일 가사노동 하는 가운데 자기 시간을 갖기 어려웠지만 효진은 참여자들에게 대본을 쓰는 시간만큼은 “하루 중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이 되었고 자기 경험을 떠올리고 자기감정을 마주하며 자신의 고민을 언어화하는 것에 즐거워했다고 이해하고 있었다. 이들의 이야기 속에 참여자들은 무엇보다 “내 이름을 걸고” 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으며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의미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참여자들은 대부분 40~50대 여성분들이셨는데 대부분 아이가 있었어요. 처음 자기소개를 할 때 어떤 참가자가 10년 만에 자기 이름을 말한다며 울었어요. 원래 꿈이 성우였던 분이었는데 “누구 엄마가 아니라 자기를 소개하는 건 오랜만이다”라고 말하면서요. 그러자 다른 참여자들도 “나도 이름 말하는 건 오랜만이다”, “이름을 잊고 살았다”라고 말하며 같이 우시는 분도 계셨어요. (나영)

어떤 참여자가 육아하면서 힘들었던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아이한테 윽박지르기도 하고 또 후회하고. 육아를 주제로 방송을 만들고 주변에서 사연을 받기도 했어요. 내용을 듣고 애 키워본 선생님들이 다 울컥하셨어요. 이미 겪으신 분들이 다독여 주시기도 하고. (중략) 각자가 처해진 상황에 대해 사실 잘 모르죠. 하지만 참여자들이 대본을 써와서 읽고 다 같이 듣고 하거든요. 거기서 오는 게 있어요. 감동적인

것, 공감되는 것, 끈끈해지는 것. (효진)

참여자들은 대부분 아이가 있는 40~50대 주부로 이들은 육아와 경력단절이라는 공동의 경험과 고민을 나누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나영은 참여자들이 “누구 엄마가 아닌” 자기의 이름을 말한 지 오래되었다고 말하며 서로 공감하고 울기도 했다고 전하는데 가족 내 타인을 위한 삶을 살고있는 여성들에게 ‘이름’은 회복하고 싶은 개인의 주체성과 연결된 것으로 이해된다.

방송을 녹음하고 미디어에 공유하는 것이 마지막 과정이었는데 참가자들은 연말 송년회 겸 공개방송도 하자고 제안하셨어요. 동네에도 알리고 지인도 초대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과정 처음에는 쭈뼛쭈뼛하시고 걱정하시던 분들이 마지막 공개 방송할 때는 너무 다 자신있게 하셨어요. 서로 응원하기도 하고요 초대 손님까지 모셔서 진행하신 분들도 있고 가족들도 많이 보러 오셨어요. 자기 이름을 걸고 원고를 쓰고 내 목소리로 방송하는 것을 너무 뿌듯하게 생각하셨어요. 공개방송에 동네 사람들도 많이 오셨고 육아나 내가 좋아하는 책, 내가 만난 사람들 등 다양한 경험이 오가는 방송을 들으며 공감하고 그랬죠. 이렇게 즐거워하는 분들을 보면서 자기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자신을 표현하고 말할 창구들이 앞으로도 더 있었으면 했죠. 이런 분들의 목소리가 더 담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나영)

전 과정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스스로 제안해 공개방송을 진행했다. 처음에는 쭈뼛쭈뼛하고 자기 대본을 쓸 수 있을지 걱정하던 참가자들은 서로 응원하는 가운데 가족과 동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있게” 나눴다. 나영은 참가자들이 “자기 이름 걸고 원고 쓰고 내 목소리로 방송하는 것을 뿌듯해 하셨다”고 말하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 주체성을 찾고 성취감을 느끼며 서로 공감하게 되었다고 강조한다. 또한 주부인 참여자들의 경험과 목소리가 더 담길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팟캐스트라는 개방된 공간 위에 여성의 일상과 경험을 자기 언어와 목소리로 전달하며 소통하고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주체적 활동이자 실천으로 이해된다. 참여자들은 문화민주주의 관점에서 문화예술의 객체나 향유자가 아니라 자기 기획을 통해 문화예술을 능동적으로 창조해 나가는 생산자로서의 모습을 보

인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스스로 기획하는 문화생산자라는 개념은 고독한 예술가의 주관으로부터 분비되어 나오는 예술성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들은 이미 함께 하는 공동체 의식, 즉 '우리'라는 감각을 가지고 있었고 일상을 공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우리'를 구성하는 각 개개인들은 스스로 기획할 수 있는 예술의 주체라는 것을 상호인정하고 있었다. '손바닥 라디오'가 자기 기획이라는 지점에서 스스로의 이름을 찾으며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 중에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현대사회의 정당한 인정이 한 개인으로서 여성들에게 얼마나 박탈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이들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일상으로부터 본인의 문화예술성을 끌어올렸으며 그것을 자기 이름으로 말하고 서로 인정하는 경험을 '손바닥 라디오'와 <모기동 공동체> 안에서 하고 있었다. 기존의 근대적 젠더 관계가 여성으로부터 박탈한 개인성과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 제공됐음을 보여준다.

한편 일반적으로 공동체는 가치의 공유가 강조되고 그 안에서 개인성의 강조나 차이의 인정은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개인성을 인정하고 각각의 창의성과 서로 다른 생각과 경험, 즉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공동체로 함께 하는 것은 <모기동 공동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지점이다. 이들은 개인성이나 차이가 억압된 상태로 현대사회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을 통한 공동체적 활동이 대안적 방식으로 이들에게 자아도 제공하고 공동체적 경험도 제공하면서 동시에 차이의 인정까지 가능한 모델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의의가 있다.

2. 〈모기동 문화예술공동체〉의 관계 맺기

<모기동 공동체> 사람들은 축제와 일상 속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개인의 주체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동네 사람들과 관계맺음을 통해 공동체를 형성한다. 이들은 동네 안에서 하나의 원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관계망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개인인 '나'에서 '우리'로의 감각을 키워나가며 공동체가 되어간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는 개인을 인정한다.

1) ‘일 보다 관계 먼저’

<모기동 공동체> 사람들은 동네와 일상을 공유하며 동네 사람으로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함께 활동을 하거나 축제를 만들고 일을 같이 하지만 ‘일’이 우선시 되는 관계는 아니라고 말한다.

> 예전에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일을 같이 합시다” 이렇게 제안했던 거 같아요. 의도를 가지고 일로 접근하니 관계는 안 남고 일도 무거워지고 그랬던 거 같아요. 모기동에서는 일보다 관계가 먼저죠. 기획이 아닌 자연스럽게 관계에 의해 일이 생성되는 거 같아요.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친해지고 그러다 일이 되는 거예요. □□미디어 센터에 근무하던 정은이랑 친해져서 밥 먹고 차 마시고 놀다가 “카페에서 함께 영화보면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갑작스럽게 마을극장을 추진하게 되었어요. 영화 상영도 하고 정은이 잘 알고 계신 감독님도 초청해서 ‘감독과의 대화’도 하고. 일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수다를 떨고 좋아하는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 그냥 그게 일이 됐어요. (은지)

은지는 과거에 일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 “관계도 안남고 일도 무거워졌다”고 말하며 동네에서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관계 맺기가 더 중요함을 강조한다. 마을극장의 사례는 ‘일보다 관계가 먼저’인 모기동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은지는 마을미디어 관련 일을 하는 정은과 “놀다가” “카페에서 함께 영화를 보면 재미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재미로 시작된 이 아이디어는 정은이 잘 아는 감독까지 초청하여 마을극장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들은 의도적인 기획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관심과 친밀함 속에 재미있는 시도들을 자꾸 하게 되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일로 만들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 일을 위해서 사람이 모이면 일이 끝나고 땡이죠. 일로 접근하면 결과를 따지게 되고 눈앞의 성과만을 위해서 달리게 되니까. 하지만 저희는 일로 만난 사이가 아니죠. 저희는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인간적으로 친해지니까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재미가 중요한데 서로 좋아하고 그런 관계 위에서 재미있게 일이 되는 거죠. 신뢰

가 있으니 문제가 생겨도 대화로 해결되고. (주영)

주영은 “일을 위해서 사람이 모이면 일이 끝나고 땡”이라고 말하며 ‘일’에 앞서 관계성을 강조한다. 그녀는 우리를 “일로 만난 사이”가 아니라고 규정하며 “눈앞의 성과”나 “결과”만을 위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주영은 “재미있게 일”이 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것은 “인간적으로” 친밀한 관계성과 신뢰가 전제되어야 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보여지는 ‘일보다 관계 먼저’에서의 ‘일’은 외부에서 주어진 목표와 성과를 의미한다. 같은 ‘일’이지만 현정이 말하는 “이건 일이야”(P. 55)에서의 ‘일’은 나의 자아가 활약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하고 가치있는 과업으로 이해된다. 똑같이 ‘일’로 표현되지만 실제 맥락은 다르다.

2) 배려와 세심하게 들여다보기

<모기동 공동체>는 동네 사람이라는 관계에서 출발하는데 이들은 서로 배려하고 세심하게 서로를 들여다보며 ‘나’에서 ‘우리’가 되는 감각을 경험한다.

> 우리에게는 항상 배려와 보살핌이 있는 거 같아요.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서로 보살피는 게 여성들이 잘하는 일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행사할 때 나 뭐 프로그램 할 때도 쓱 와서 들여다보고 이것저것 필요한 것 없냐고 물어보고. 이제는 제 몸까지도 챙겨줘요. 작년 말에 아기 보다가 갑자기 허리가 확 나가서 꼼짝달싹 못 한 적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는 와주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걸 알고는 카페 문 닫고 저랑 제 아기까지 안고 정형외과에 같이 가주셨어요. 가족보다 더 가족 같아요. 더 많이 받아서 고맙고 미안하고. 저도 평소에 다른 사람들을 챙기게 돼요. 들여다보고. (나영)

나영은 동네에서 “배려와 보살핌”을 항상 느끼고 있었다. 일을 할 때도 섬세하게 알아서 들여다 봐주고 몸이 아플 때 자기 일을 뒷전으로 하고 자기 일처럼 챙겨주는 것을 경험하며 동네 사람들에게서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배려와 보살

핌”을 느낀다고 표현한다. 그녀는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서” 그리고 “서로 보살피는 게 여성들이 잘하는 일이어서” 보살핌이 동네의 문화가 된 것 같다고 말하는데 일상을 나누는 이웃으로의 관계성 위에 배려와 보살핌의 가치가 더해져 <모기동 공동체>의 관계가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저희가 일이 좀 많아지고 아침에 카페를 못 열게 되는 날이 많아졌어요. 오후 3~4시에나 문을 여는 날이 많아지고. 주영 선생님이 “얘네들 이러다가 힘들어서 지칠 거 같다”고 하시면서 “카페 운영하는데 오전 시간에 계속 문을 닫아 놓으면 동네 안에서 인식이 안좋아질 수 있으니 비어 있는 시간에 공방 선생님들이랑 운영해볼게” 라고 하셨어요. 요청도 안 한 일인데 너무 고맙고 따뜻했죠. “너네 일인데 어쩔 수 없지”라고 할 수 있지만 지쳐서 그만두지 않게 덜 무거워 질 수 있게 세심하게 들여다 봐주고 무게를 나눠줬죠. 그 배려 덕분에 그만두지 않을 수 있었고 신뢰할 수 있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된 거 같아요. (은지)

은지는 지치지 않게 주변에서 알아서 배려해주는 것에 따뜻함과 고마움을 느꼈다고 말한다. 은지는 일이 많아져 카페 운영에 소홀해졌지만 도움을 요청하기도 전에 알아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동네 사람들의 관심과 배려를 통해 힘을 얻고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다. 그녀는 일상을 함께하면서 자연스럽게 생성된 친밀한 관계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체 활동을 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었다. 여성의 도덕성 발달은 연구한 길리건(Gilligan, 1997)은 남성중심의 도덕적 가치체계에 의해 여성의 관계성, 배려, 보살핌이 가치절하 되었다고 비판하며 전통적으로 여성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돌봄, 책임감, 친밀함 등을 인간의 중요한 가치로 재평가할 것을 주장했다.[22] 모기동 사람들은 일이나 성과가 아닌 섬세함과 배려, 관계지향성을 기초로 신뢰와 상호연대감을 키워가며 공동체의 감각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

22) 일부 여성학자들은 길리건(1997)의 주장 또한 남녀의 이분법적 해석이라고 비판하며 돌봄을 여성의 본질로 상정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하지만 허라금(2009)은 돌봄과 보살핌을 개인 또는 가족의 문제로 전가시키거나 사적 영역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가치를 인정하고 재가치화하여 돌봄을 새롭게 복원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3) 응원과 지지

<모기동 공동체>는 서로에 대한 친밀한 관계와 섬세한 배려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함께 하고 있다. 모기동 사람들은 잘하고 못하고를 '증명'하거나 '재단'하기보다는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하며 활동을 이어나간다.

> 새로운 것을 할 때 서로 응원하고 지지가 되어주기에 겁나지 않아요.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나이도 상관없고. 경력도 상관없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진정성만 있으면 서로 통하는 거 같아요. (명숙)

명숙은 동네 사람들의 응원과 지지 통해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것이 "겁나지 않"다고 말한다. 그녀는 모기동 활동에 나이나 경력에 따른 제약이 없음을 언급하며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한다. 그녀가 자신있게 활동할 수 있는 이유는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진정성"과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응원과 지지를 보내는 모기동 사람들과의 관계성 때문으로 이해된다.

> 쭈뼛쭈뼛하게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할 수 있어"라고 팍 밀어주는 사람, 자극되는 사람, 지지해주고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용기를 얻죠. 만약 회사였다면 잘할 수 있는지 증명해야 하고 실패하면 다시 잘하기도 힘들고 기회도 없을 텐데. 여기 사람들은 나를 어떤 걸로 재단하지 않잖아요. 쭈뼛거리는 거를 지켜봐주고 할 수 있게 옆에서 지지해주는 힘이 있기에 할 수 있어요. (현정)

> 동네 사람들이 매번 힘들어할 때마다 "잘했어.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또 이야기해봐" 이렇게 말해요. 태어나서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없고. 어디에서도 이런 응원받아 본 적 없고 이렇게 든든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기동 활동을 계속하게 되나 봐요. (연희)

현정은 "쭈뼛쭈뼛"하며 자신 없을 때 "팍 밀어주고" "지지해주고" "믿어주는"

사람들을 통해 용기를 얻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모기동 활동을 '회사'와 비교하는데, '회사'는 스스로를 증명해야 하고 실패할 경우 기회를 얻기 힘든 경쟁의 공간으로 모기동은 "지켜봐 주고" 옆에서 응원해주는 지지세력이 있는 곳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연희 역시 힘들 때마다 동네 사람들에게 "잘했다"는 "지지"와 "응원"을 받으며 다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말한다. 모기동 사람들은 경쟁적인 현대사회에서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응원과 지지를 상호 주고받으며 모기동 활동을 계속해 나간다.

> 이 사람들은 "부족해도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이죠. 보통 일할 때 "너는 이게 부족하잖아"라고 평가를 하는데 모기동에서는 부족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일에 대한 무게감, 부담감이 들지 않게 해줬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같이 했고 우리가 같이 부족한 거고 우리가 같이 책임질 거니 괜찮다"고 말했죠. 무한지지를 받는 것에 너무 고마웠고 외롭지 않게 활동할 수 있는 힘이 됐어요. 이제 이 일은 '내' 아닌 '우리' 일이 된 거죠. (은지)

은지와 연희는 모기동 활동의 구심점이 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활동을 잘하고 싶은 마음에 부담감을 느끼지만 모기동 사람들로부터 "부족해도 괜찮다"는 무한지지를 받으면서 일에 대한 무게감과 부담감을 내려놓았다. 특히 은지는 "우리가 같이 책임진다"는 말을 들으며 모기동 활동을 "내가 아닌 우리"의 '일'로 해석하는데 <모기동 공동체>에 깔린 '우리'라는 감각은 서로 외롭지 않게 함께 활동할 수 있는 힘이 된다.

4) 포용과 안전한 관계망

모기동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모기동의 "포용적인 문화"를 중요한 가치로 이해하고 있었다. 연희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오면 텃세 때문에 힘든데" 모기동에서는 환대와 배려, 따뜻함을 경험했다고 말한다. 연희는 이런 모기동의 "포용적인 문화"가 일을 할 때도 적용되며 의견 "차이"가 "차별"이나 "배제"가 되지 않도록 이해하고 수용한다고 말하는데 이때 '포용'의 개념은 단순한 수용이 아니라 개

인성의 존중과 그로 인한 차이와 다름의 인정으로 해석된다.

> 모기동은 포용적인 문화가 있어요. 새로운 사람이 오면 텃세 때문에 항상 힘든데 이 동네는 안 그래요. 배척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환대하고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 주고 도움이 되려 하죠. 저희도 이사 첫날 건물주 할머니가 가족, 동네 사람들 다 인사시켜 주시고 해서 동네가 참 따뜻하다는 생각을 했죠. (중략) 일을 할 때도 포용적인 마음이 있죠. 서로 다른 생각이 있거나 의견 차이를 보여도 차별하지 않고 최대한 이해하고 수용하려 하죠. 오히려 배제를 경계해요. 그러다 보니 서로 신뢰하게 되고. (연희)

> 여기가 좋아서 이사 왔죠. 〈모기동 공동체〉 활동을 같이 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어요. 다들 친절하고. 특별히 남자라고 다른 것도 없었고 남자 역할, 여자 역할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들과 관계가 생기고 친해지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마을학교나 카페 조합원으로도 동등하게 참여하고 동화됐죠. (성환)

유일한 남성 연구 참여자인 성환 또한 <모기동 공동체> 활동을 시작할 때 “어려움이 없었다”고 한다. <모기동 공동체> 사람들은 대부분 여성이지만 남성에 대한 배제나 경계 없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었고 “동화”되었다고 말했다. <모기동 공동체>에는 일상과 돌봄과 배려가 근본적으로 깔려있었고 개인 주체의 열망으로 출발해 처음부터 남성적, 여성적 역할이라는 성역할이나 성차별이 없었다. 남성이 공동체에 들어올지라도 공동체의 문화와 조직원리에 동화되면 차별될 이유가 없었다.

<모기동 공동체>는 단순히 포용의 문화나 여성적 가치를 넘어서서 실패에 대한 관용, 신자유주의적 경쟁 아래 누구나 느끼는 추락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주는 곳이다. 연희의 이야기를 통해 실패라는 경험이 <모기동 공동체>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 저희도 실패가 있었어요. ‘○○씨의 밥상’을 할 때 선생님들을 다 힘들게 하고 돈도 못 벌고 잘되지도 않았고. 하지만 그렇게 민폐를 끼치는 와중에도 원망보다는 위로

> 와 응원을 받았어요. 동네에서는 실패가 아니라 다음 단계를 연결하는 기회라고요. “우리의 실패가 경험으로 쌓일 거야”라는 말을 들으며 “이 동네는 안전하다 무엇을 해도 괜찮다”는 안전망을 경험했죠. (중략) 호혜의 대물림 이게 이 동네의 힘 같아요. 여기 동네를 지켰던 분들이 긍정과 신뢰를 주며 실패의 두려움 안에서 돌봄 안전망을 제공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도 다른 사람들에게 지지대가 되고 싶었고요. 서로에게 비빌 언덕이 되는 것이 우리 문화죠. (연희)

연희는 ‘○○씨의 밥상’ 프로젝트가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고 돈도 못 벌게 되자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쳤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기동 사람들의 응원과 지지를 통해 실패를 “다음 단계를 연결하는 기회”로 이해하게 되며 “무엇을 해도 괜찮다”는 신뢰와 안전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연희는 서로 돌보고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것을 모기동 근저에 깔려있는 문화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스스로 “호혜의 되물림”을 실천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모기동 공동체>의 사례는 현대 신자유주의 사회의 추락에 대한 불안을 포용적인 공동체가 어떻게 회수해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모기동 공동체>는 실패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개개인을 보호하고 안전과 편안함을 제공하는 공동체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우리’가 만들어지는 이 곳

‘우리’라는 감각이 만들어지는 데에는 네트워킹과 활동뿐만 아니라 카페 ‘숙영원’을 중심으로 한 모기동의 공간성이 크게 작동했다. 이 절에서는 <모기동 공동체>의 공간성이 어떻게 발전되고 이 공간성에 대한 구성원의 감각은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1) 마주침의 공간

카페 ‘숙영원’(現 ‘협동조합 카페마을’)은 <모기동 공동체>에 중요한 거점 공간이다. 2010년 두 명의 기획자가 문을 열고 1년이 넘게 동네 사람들에게 식음료를

팔았던 평범한 카페였던 '숙영원'은 2011년 축제를 기점으로 단순 카페를 넘어 축제의 공간이자 동네 사람들이 모여 수다를 떠는 '옛날 방앗간'이 되었다.

> 이 공간은 단순한 카페는 아니죠. 옛날 방앗간 같은 곳이에요. 수시로 마주치는 곳이죠. 퇴근할 때 이유 없이 들러도 반겨주는 사람이 있는 곳이죠. 밥을 먹고 수다를 떨거나 하는 곳이자 동네에서 이런 저런 일을 같이 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죠. 뭔가 한 번 같이 하면 계속 거미줄처럼 연결되고 그 연장선으로 뭐든 할 수 있게 하는 곳이죠. 일상처럼 축제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정은)

정은에게 '숙영원'은 "단순한 카페"를 넘어 동네 사람들과 마주치는 공간이다. 아무 이유 없이 편하게 들를 수 있고 들르면 "반겨주는 사람"이 있는 일상적 공간이자 관계성의 장소이다. 또한 수다를 떨다가 일이 되고 일이 "거미줄처럼 연결"될 수 있는 것처럼 생산성과 확장의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다. 이런 공간성을 지닌 카페 '숙영원'은 공동체의 거점이자 축제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들이 시작되는 곳이다.

2) 공간을 공유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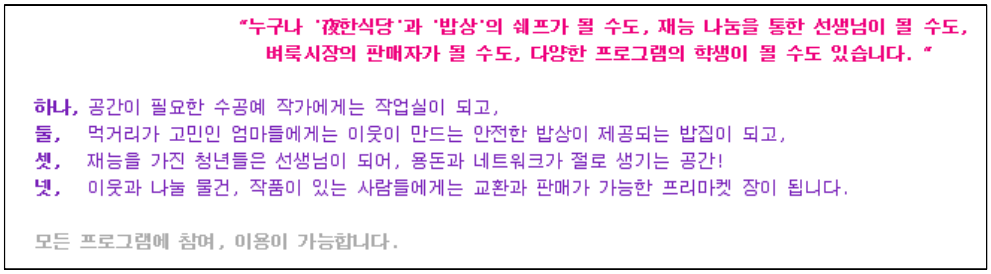
예술교육 프로그램, 인문학 강의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숙영원'은 동네 사람들에게 더욱 친숙한 공간이 된다. '플러스마이너스1도씨'의 두 기획자는 다른 일이 많아져 오전에 카페를 열지 못하는 일이 잦아졌는데 그때마다 동네 사람들이 공간을 대신 열어주기도 하고 또 자기 방식대로 다양하게 운영하기도 했다.

> 처음엔 다른 사람이 카페를 여는 게 무서웠어요. 서류나 컴퓨터도 있고 해서. 처음 건너 편 주영 선생님이 맡아서 음식도 팔고 알아서 운영하는 걸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괜찮구나' 싶었어요. '우리가 다 쓸 필요가 없구나. 쓰임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같이 쓰면 더 좋구나'라고 사고 전환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 키를 복사해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1, 2개로 시작해서 7개까지 늘어났던 거 같아요. 카페가 비었을 때 각자 알아서 필요할 때 쓰셨죠. 바느질 수업도 하고 건축 수업도 열고 프로그램

도 돌리고. (연희)

연희는 처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카페를 맡기는 것을 걱정했지만 건너편 ‘나무도예방’의 주영이 카페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지켜보며 카페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연희는 “쓰임이 필요한 사람”과 “같이 쓰면 더 좋”다는 생각의 전환을 하게 되고 1명에서 시작해 7명까지 공간을 함께 쓰기 위해 키를 나누게 된다. 이는 단순히 7명의 동네 사람들과 공간을 공유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7명 각자 자율적인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서 카페 ‘숙영원’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채워졌고 더 많고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오는 커뮤니티 공간이 되었던 것이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카페 ‘숙영원’은 2013년 ‘나무도예방’과 함께 ‘모기동 문화발전소’라는 이름으로 서울시 ‘마을예술창작소’ 지원을 받으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공간을 공유한다.



[그림 17] ‘모기동 문화발전소’ 소개
출처: ‘플러스마이너스1도씨’ 네이버 블로그

처음에는 바닐라 라떼가 맛있는 곳이었죠. 그러다 가끔 노트북 놓고 일하는 공간이었고. 그러다 좋아하는 문화예술에 참여하는 공간이 되었죠. 아는 사람이 생기면서 수다 떨다가 일도 만들어지는 곳이자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곳이기도 하고요. 수업도 하고 공개 방송도 하면서 나중에는 저한테 공연장이 되었고 방송국이 되었고요. 아이들과 만나는 교실이 되었어요. 동네 사람 모두에게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이 될 수 있는 그런 다채로운 공간이요. (효진)

> ‘마을예술창작소’로 운영하며 임차비 50%를 지원받게 되면서 ‘지원사업을 받으니까 우리만 쓰면 안되겠구나. 사람들이랑 더 같이 써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공공의 세금이니까 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연희)

카페 ‘숙영원’은 ‘모기동 문화발전소’라는 이름으로 “작가 작업실도 되고” “밥집이 되고” “프리마켓의 장”도 될 수 있는 공유공간이 되었다. 모든 사람에게 열린 공간이자 필요한 사람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가능한 공간으로 마을의 공유자산이 되어 갔다. 연희는 공공의 세금으로 지원받으면서 사람들과 이 공간을 “더 같이 써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과 공간을 공유하고 동네를 위해 더 활용함으로써 스스로 “공적”일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었다. 이것은 카페 ‘숙영원’이 적극적인 공유화(commoning)의 실천을 통해 공공재(commons)가 되어 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데 ‘개방성’과 ‘공동의 이익’이라는 차원에서 공공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함께 운영하는 우리의 공간

‘모기동 문화발전소’의 역할을 하던 카페 ‘숙영원’은 2016년 ‘협동조합 카페마을’로 전환된다. 2명의 문화기획자들이 운영하던 카페에서 10명의 조합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동조합이 된 것이다. 기존에서 <모기동 공동체> 활동하던 사람들에 더해 축제와 마을학교를 통해 새롭게 공동체에 유입된 사람들이 조합원이 되었다.

> 다양한 활동이 많아지면서 카페 ‘숙영원’을 매일 고정적으로 운영하기 힘들어졌죠. 몇 년간 카페를 접으려고 했었는데 주변에서 아쉬워하셨어요. 그래서 운영은 했는데 문을 못여는 날도 생겼죠. 진짜 카페를 그만둬야겠다 싶었는데 사람들이 같이 공동으로 운영해보자고 제안해주셨죠. 없어지면 안 된다고. 2016년부터 협동조합으로 운영했는데 저희가 협동조합에 대해서 자세히는 몰랐던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 고정비도 많이 들고 일하는 것도 품이 많이 들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왔어요. 적자와 운영방식의 문제로 2018년 이사장이 공간을 없애자고 했어요. (연희)

> 사실 이때의 일은 다시 꺼내고 싶지 않을 만큼 힘든 경험이었어요. 우리 활동의 근간이었던 '카페마을'이 없어지는 건 우리 공동체의 존폐와도 연결된 일이잖아요. 여러 차례 숙의와 논의를 통해 '카페마을'을 지키기로 결정하고 이사장이 떠난 뒤 남은 사람끼리 다시 방향성을 설계했어요. 수익을 덜 가져가더라도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 지지하고 꼭 함께 운영하자고. 이 공간이 더 밀접해진 것 이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조합원으로서 1/n의 역할만 해도 되는 다 같이 사용하는 공간이었다면 이젠 지키고 싶은 우리의 공간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애정을 더 가지게 되고 주체적, 주도적으로 일하게 되고. 그리고 같은 방향을 보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을 확인하니까 이 공간이 더 소중해지는 것 같아요. (명숙)

카페 '숙영원'의 기획자들이 카페를 접게 되는 것을 우려해 협동조합이라는 틀거리를 만들어 공동으로 운영해온 모기동 사람들은 2018년 재정적 문제와 운영방식 등의 이유로 또다시 공간 폐지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4절에서 후술하겠지만 여러 차례 숙의의 과정을 통해 '협동조합 카페마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고 남은 사람들끼리 수익보다는 "서로 지지하고 함께 운영하자"는 새로운 방향성을 다시 설정하게 된다. 명숙은 이런 존폐의 갈등을 겪고 난 후 이 공간이 자신과 더 "밀접"해졌다고 말한다. 그동안 '카페마을'이 1/n로만 일해도 되는 조합원 모두의 공용공간이었다면 공간을 지키기 위해 직접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주체적인 책임감을 갖게 된 공동의 자산으로 '카페마을'을 이해하게 된 것이다. 특히 수익이라는 일반적이고 외부적인 목적이 아니라 "서로 지지하고 함께 운영하자"는 공동의 규칙을 자율적으로 만들고 함께 운영하게 되면서 이 공간은 '우리'의 '소중'한 공간으로 의미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 3 절 지역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상생의 조직

<모기동 공동체>는 삶과 일상을 공유하며 각 개인의 자아를 인정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관계맺음을 하는 곳이다. 공동체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관심과 관계맺음을 통해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이들이 함께 살고 있는 동네의 여러 가지 문제로

도 그 관심이 확장된다.

1. 동네 문제에 대한 공동의 관심

2016년 <모기동 공동체>의 활동을 뒷받침할 틀거리로 '협동조합 카페마을', '모기동마을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 함께사는집뜨락'이라는 3개의 협동조합[23]이 만들어진다. <모기동 공동체>의 관심이 문화예술을 넘어서서 공동체 자체가 자리하고 있는 동네의 다양한 문제들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2011년 12월 협동조합 기본법이 통과되고 국가와 지자체에서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 되는 흐름 속에 <모기동 공동체> 사람들은 나와 내 주변,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한 공동의 관심으로 협동조합을 결성했다.

> 꼭 같이 뭔가를 한다거나 협동조합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동네에서 같이 문화예술 활동을 하면서 공동의 경험이 축적되고 신뢰와 공감도 쌓이고 그러다 보니 서로 챙기게 되고. 그게 또 시간이 누적되니 시야가 넓어지고. 그러다 보니 지역의 문제에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주거 문제나 교육환경 개선 등 꼭 내 개인적인 일은 아니어도 우리의 일, 동네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 협력해야 할 일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주거, 교육 관련 협동조합도 설립하게 됐고. 엄청난 조직은 아니지만 같은 곳을 함께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든든하고. (연희)

> 공동의 문제에 안테나가 닿았죠. 서로 돌보고 일상을 챙기다 보니 마을에서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그것은 점차 마을 학교의 필요에 대한 생각으로 모아졌어요. 다행히도 그동안 축제 등으로 협력 관계에 있었던 마을 근처에 위치한 초, 중, 고등학교들도 같은 뜻으로 함께하게 되었고요. 20여 명의 마을주민, 교사,

23)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1995년 ICA 100주년 총회에서 협동조합 정체성에 대한 선언'(Statement on the Co-operative Identity)을 통해 '협동조합 7대 원칙'을 발표했다. ①자발적이고 개방적인 가입, ②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 ③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④자율과 독립, ⑤교육, 훈련 및 홍보, ⑥협동조합 간의 협력, ⑦지역사회 기여가 그것이다(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2020).

활동가들도 함께해 '모기동마을학교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됐어요. (은지)

<모기동 공동체>는 처음부터 협동조합이라는 거창한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다. 연희는 공동의 경험을 통해 "신뢰와 공감"을 형성한 모기동 사람들이 "서로 챙기"는 가운데 지역 문제에 대한 공동의 관심이 생겼고 '우리'와 동네와 지역에서의 상생을 위해 협력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은지는 일상과 주변을 돌보는 가운데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공동의 의제를 발굴했고 그동안 함께 협력해왔던 지역의 네트워크와 함께 자연스럽게 '모기동마을학교 사회적협동조합'을 결성했다고 말했다. 모기동 사람들에게 협동조합은 "엄청난 조직"은 아니지만 "같은 방향"을 지향하는 사람들과의 "공동의 문제에 대해 안테나"를 세우고 함께 활동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모기동마을학교 사회적협동조합'은 대안적 마을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주거불안정에 대해 고민을 하던 동네 사람들은 공동주택에 대한 스터디도 함께 진행하며 준비를 하다가 1년 후 '주택협동조합 함께사는집 뜨락'을 결성하게 된다.

카페에서 수다를 떨다가 □□ 선생님이 전셋집을 알아봐야 한다고 고민을 털어놓으셨죠. 이야기해보니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던 문제였죠. 매년 또는 2년마다 이사해야 하는데 전셋값은 1년에 몇 천만 원씩 뛰고. 집에 대한 문제, 정주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2010년부터 함께 해온 게 어느 순간 다 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었어요. 다들 너무 중요한 문제였죠. 그래서 2015년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스터디를 하였고 함께 공부하던 분들과 공동주택을 마련하게 되었어요. 모기동을 떠나지 않아도 되고 삶의 공간에서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죠. 공동의 고민을 가졌던 사람들과 한 집에 사는 가족이 됐죠. 2주에 한 번씩은 공유공간에서 회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있어요. (은지)

카페 운영은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주변에서 없어지면 안된다고 너무나 많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다 2015년에 더는 힘들어져서 동네 사람들한테 이야기했더니 협동조합으로 다 같이 운영하자고 이야기가 나왔죠. 저희도 아예 빠지지

는 않고 조합원이 되고. (연희)

주거불안정에 대한 문제는 모기동 사람들에게 공동의 이슈였다. 은지는 모기동을 거점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공동체를 꾸려가는 사람으로 정주는 그녀의 활동을 지속하게 해주는 중요한 과제였다. 그녀는 공동의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공동주택을 마련함으로써 주거불안정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모기동에 들어올 때 꿈꿨던 일과 삶이 일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이들은 같은 집에서 일상을 공유하며 "가족" 같은 관계성을 유지했다. 한편 <모기동 공동체> 사람들은 카페 '숙영원'이 "없어지면 안된다"는 문제의식을 함께 공유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카페 '숙영원'의 지속화라는 공동의 목적으로 협력을 통해 공동운영 체계인 협동조합으로 전환한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의미있는 활동을 하고 있지만 항상 지원금이나 예산 문제를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인데 함께 살아남아야 한다, 동네가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해졌죠. 함께 활동하기 위해 주변이 살아남아야 하고 그러려면 좀 더 안정적인 구조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협동조합 하면서 일거리도 생기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긴 호흡으로 함께 살아야 하는 구조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 또 다른 꿈도 함께 꿀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은지)

은지는 모기동 사람들이 "안정적인 구조" 속에 "함께 활동하기 위해" 협동조합의 틀을 타게 됐다고 말한다. <모기동 공동체>는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고 공동의 의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동시에 나와 주변이 안정되게 일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을 만들었던 것이다. "사람이 힘"이라고 말하는 은지는 협동조합 활동을 통해 "일거리" 창출에 대해서도 기대한다. 협동조합이라는 구조를 통해 사람들은 '긴 호흡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고 안정성을 기반으로 다음 단계를 고민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었다.

<모기동 공동체>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효율이나 틀에 대해 배제하는 성격을 지

녔으나 효율성과 안정적 운영, 법률적 문제 해결 등에 대한 필요성이 오히려 내부적으로부터 제기되어 스스로 협동조합이라는 조직적 틀거리를 갖췄다는 지점은 주목할 만하다.

2. ‘목2동’과 ‘모기동’: 행정 구역이 아닌 ‘동네’

‘목2동’이 ‘모기동’이 된 것은 속한 사람들이 이 동네를 특별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공동의 즐거운 경험과 ‘우리’의 감각으로 형성된 이들의 공동체성은 ‘목2동’이라는 행정용어가 아닌 애칭으로써 ‘모기동’으로 재현된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 스스로는 ‘모기동’ 또는 ‘모기동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고 ‘모기동 공동체’나 ‘모기동 문화예술공동체’라는 이름을 사실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기동’은 공동체가 위치한 공간성의 애칭일 뿐 아니라 이 공동체를 대표하는 거의 유일한 대외적 명칭이다. 이들은 공동체 혹은 문화예술공동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 조차 공동체 활동이 틀 안에 갇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런 생각에서 수년간 지속된 공동체지만 공식적인 명칭을 지정하지 않았고 또 그렇게 해야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 우리가 공식적인 이름이 없는 거처럼 우리는 선언하지 않아요. 거창하게 내세우는 것은 우리랑 맞지 않고. 문화예술을 좋아하고 재미있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과 관계를 귀하게 생각하고 일상을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어떤’ 공동체라고 규정짓지 않아요. (은지)

공식적인 이름을 짓지 않는 것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선언하지 않겠다는 결심의 표현이다. “선언하지 않”는다는 말은 스스로를 규정하거나 단정짓지 않는다는 말인 동시에 “거창하게 내세우”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문화예술과 재미, 사람과 관계성, 일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거창하게” 스스로를 명명하거나 형식적인 틀에 가두는 것은 ‘우리’와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런 생각은 마을공동체 사업의 틀에서 자신들의 활동이 파악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은지의 다음 언급과

연결된다.

>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불리고 싶지 않아요. 대부분 사업화되고 정책화되는 순간 형식화, 관성화돼요.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사람의 관계를 만들라, 수평적 관계를 만들라"고 하죠. 말 자체는 긍정적이고 아름답지만 실제 진행되는 행태는 위계질서에 의해 관료화된 방식으로 흘러가요. 빨리 성과를 내야하기 때문에 조직화 되고 운영위원회에 리더가 생기곤 하죠. 주민들도 야생성을 잃어버리고 동원되고 말지만 우리는 야생성을 읽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낭만주의라고 해도 할 수 없지만 거대 권력을 안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작게 또 미미하게 하죠. (은지)

이들은 '마을공동체 사업'의 "형식화"를 비판하며 그 틀에 갇히는 것을 거부했다. 은지는 마을공동체 사업이 정책화되면서 "사람의 관계를 만들라, 수평적 관계를 만들라"를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마을이 조직화되고 리더 중심으로 관료화됐다고 문제제기한다. 그녀는 주민들이 수단화되는 것을 우려하며 스스로는 일상생활과 현장에서 "야생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한다. 자신들의 활동을 "일상 속에서 작게 또 미미하게"라고 표현하는 것에서 '일상'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권력화를 거부하는 모기동의 지향점을 확인할 수 있다.

> 의도적으로 공동체를 만든 건 아니었어요. 일상을 함께 만들어가며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 하지만 각자의 차이는 존중하고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것, 서로 돌보고 배려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의 감각이자 정체성인 거 같아요. 이 지향점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놓인 곳이 공동체이고 마을이고 동네고 (중략) 갑자기 뚝딱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공동의 즐거운 경험과 갈등을 함께 겪고 이겨내며 만들어진 거죠. (은지)

> 일상에서 만나고 매일 봐야 가까워지는 거죠. 오래된 공간과 속도 느린 이웃이 일상적으로 마주치고 친구가 되고 동료가 되고. 그런 일상들이 쌓이고 유지되고 기억이 교차 되면서 우리들의 집 같은 공동체 개념이 생긴 거 같아요. (연희)

연구 참여자들은 일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의도적으로” 공동체를 만들려고 시도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은지에게 <모기동 공동체>는 같은 지향점을 가진 개인을 존중하고 “서로 돌보고 배려하는” 관계지향적인 정체성을 지닌 곳으로 이해된다. 서로를 “이웃”이자 “친구”, “동료”로 생각하는 연희는 속도가 느린 마을 위에 매일 보는 사람들과의 오래된 관계를 통해 “우리들의 집 같은 공동체 개념”이 생겼다고 말한다. 여기서 “우리들의 집”은 일상을 함께하는 오래되고 편안하고 익숙한 관계망으로 해석된다. 은지와 연희에게 공동체는 목적지향적으로 “갑자기 뚝딱”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들은 ‘일상’을 기반으로 오랜 시간 생활과 활동을 함께 해오며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공동체를 지속하고 숙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

> 개인에 대한 존중, 선택에 대한 존중을 지향해요. 서로 재미있고 예의있게 함께 하는 거지 무례하거나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일이라면 싫어도 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 활동은 내가 마음이 동해서 하는 거예요. 지극히 자발적으로 자기 생각에 의해서 하는 거죠. 저희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좋아하고 아끼고 있지만 오래 갈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활동이기 때문이죠. 공동체라고 무리하게 해야되는 것은 없어요. (주영)

> 〈모기동 공동체〉는 분명 전통적인 마을공동체는 아닌 거 같아요. 과거 공동체성을 강조해서 개인이 희생당하거나 독박 돌봄을 강요받는 그런 공동체는 아니죠. 우리는 스스로 서로 돌보고 있지만. 또 그렇다고 개인의 이익과 목적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공동체는 개인과 개인의 연결되면서 하나의 망을 갖추는 관계이자 네트워크로 봐야 할 거 같아요. (정은)

일반적으로 과도한 공동체성은 개인의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는데 <모기동 공동체>는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영은 “내가 마음이 동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활동이라고 말한다. “무리하거나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녀는 <모기동 공동체>가 오래 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서로 좋아하고 아끼고 있지만” 결국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정은 또한 <모기동 공동체>는 “과거 공동체성을 강조해서 개인의 희생”을 강요당하는 공동체와는 다르다고 말한다. 특히 성역할이나 불평등한 젠더 질서에 의해 여성이 “독박 돌봄”을 강요받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체성을 가지고 “서로 돌보고 있”다고 강조한다. 모기동은 개인성을 버리거나 또는 공동체의 공동의 가치를 버리는 약자택일의 방식을 취하지 않는다. 개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공동체의 상생의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공동체[24]의 모습을 보인다.

> 사람사람이 다 남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을학교 교사를 양성할 때 수업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양성된 마을 교사가 다음 해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동네에 남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었죠. 마을 교사 양성 과정 속에서 만났던 사람의 전체 1/4 정도가 남았던 거 같아요. 3년 동안 15명이 모기동에 남아 활동을 이어가고 있죠. 지속적으로 상생하기 위해 협동조합도 만들었고요. (연희)

연희는 “사람사람이 다 남을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싶다고 말한다. 실제로 그녀는 마을 교사를 양성한 후 이어서 마을 교사로 활동할 기회를 제공하는데 동네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1회성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활동으로 연결되어 자생적으로 남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협동조합 또한 사람을 남기고 다음을 기약하며 “상생하기 위”한 안정된 구조로 이해하고 있었다.

공동체 활동을 통해 동네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도 달라진다. 그동안 들여다볼 필요가 없었거나 중요하지 않았던 동네가 함께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맺음으로 새롭게 의미화된다.

---

24) 그동안 공동체의 지향점에 대해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가 첨예하게 논쟁하고 있었다. 자유주의는 공동체적 전통과 틀에 의해 개인의 자유가 억압된다는 차원에서 공동체주의를 비판하였으며 공동체주의는 개인의 자아가 특정 공동체의 역사나 전통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형성되지 않는다며 자유주의를 비판했다. 최근 두 사상을 모두 인정하며 대안적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가 등장하였고 개인과 공동체가 상생관계에 있음을 주장한다(손철성, 2007; 김진형 2019). 김진형(2019)는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공동체의 이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대안적 공동체를 ‘진보된 공동체’로 규정한다.

> 태어날 때부터 목2동에서 태어나 한 번도 밖으로 나간 적이 없어서 징글징글하기도 한 동네이지만 공동체 활동을 하니까 동네에 대한 생각과 기억이 새롭게 읽히고 해석되는 거 같아요. 동네 밖을 나가고 싶었는데 이제는 우리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어요. 동네에 대한 애정은 사람들로부터겠죠. 사람들이 없으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중략) 공동체의 기준이 뭘까요. 같은 기억 때문인지 고민을 할 때 같은 위치에서 같이 하니까 굉장히 편한 느낌이 있어요. 공동의 감수성이 생겼다고 할까요. 느슨하지만 마주치다가, 같이 밥먹다가 느끼는 '방향성'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아닐까요. (나영)

나영은 목 2동에서 나고 자랐지만 "공동체 활동"을 통해 동네를 다시 인식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동네 사람들과 함께 만드는 다양한 경험과 관계성을 통해 동네의 의미를 새롭게 받아들였다. "동네에 대한 애정은 사람으로부터"라고 말하는 나영은 느슨하지만 "같은 위치에서"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과 "공동의 감수성"을 가지고 있기에 공동체 안에서 편안함과 소속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기동 공동체>는 형식적이지 않고 개인성을 존중하는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외부의 부정적 환경에 대해 연대, 결속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모기동 골목에서 시작한 작은 축제가 목2동을 대표하는 마을축제로 정례화되면서 마을공동체 우수사례나 신문기사 등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여기저기서 동네투어 프로그램을 요청하는 등 모기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모기동을 대상으로 한 양천구의 '걷고 싶은 거리 조성 계획'은 <모기동 공동체> 사람들의 공통된 고민거리다.

> 동네가 알려지니까 뭔가 하려는 분들이 계세요. 상권이 커지길 꿈꾸는 사람들도 있고. 걱정이 되죠. 상업지역이 되어버리면 마을 사람들도 난리 나고 공방 사람들도 쫓겨나갈 수 있고. 너무 알려져서 그럴까봐 불안해요. (중략) 여기를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려는 조짐이 있어요. 행정하는 분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움직이고 있고 거의 추진될 거 같은 분위기에요. 거리 조성하고 간판 정리 사업하고 상권 활성화 하려하고. 동네가 들썩들썩하죠. 마을이 구와 협의체에 의해 빠르게 성과주의식으로 갈 경우 여기 아름다운 관계들이 다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너무 걱정이에요. (명숙)

명숙은 모기동 사람들의 일상이자 활동의 터전인 모기동이 상권화되면 그동안 유지해왔던 “아름다운 관계”들이 사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다. 구에서는 주민 반발에 대한 대안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려 하지만 “성과주의식”으로 빠르게 추진될 경우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활동하던 기존 사람들이 쫓겨나갈 수 있는 상황에 대해 그녀는 문제의식을 느낀다. 모기동이 알려지게 되자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고 상권을 활성화하는 것은 젠트리피케이션의 전형적인 단계이다. 관광지나 상권으로 무리하게 조성되어 활성화될 경우 유동인구도 많아지고 임대료 등의 문제가 생기며 기존 사람들이 쫓겨나가는 상황이 발생한다.

> 이번에 구청에서 모기동에 ‘걷고 싶은 거리’를 지정하고 간판 사업한다고 그러는데 몇 억씩 들여서 단 시간에 한다는 사업들이 뻔하거든요. 차라리 우리들이 동네에서 자생적으로 하는 게 나은데. 보통 관에서 통일성이랍시고 일괄적으로 만들어주잖아요. 간판 정리가 아니라 가게 히스토리를 넣을 수 있게 만들고 가급적 직접 주인이 참여해서 만들도록 제안했어요. (중략) 공동대응도 준비 중이지만 근데 그런 흐름을 막을 수 없어요. 여기 뭐가 조금만 괜찮다 싶으면 사람들은 가차 없이 소비하려 하고 다 장사꾼이 되고. 그 뒷감당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들지 모르고. 또 그게 지나가도 피로감이 상당한 거 같아요. 유행이 훑고 몇 년 지나가면 나중에 이 동네 사람들이 고스란히 그 힘듦을 짊어져야 하는 거죠. 걷고 싶은 거리 같은 거 만들면 사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이에요. 여기가 관광지도 아닌데(...) 솔직히 여기는 우리 동네 사람들이 먹고 살던 곳이니까 앞으로도 동네 사람들끼리 조용히 먹고 살았으면 좋겠죠. (중략) 우리 동네 사람들만 ‘걷고 싶은 거리’로 하고 싶은 마음도 있죠. 아무도 못 오게 가 아니고 다들 각자 자기 주변을 돌아보는데 매진하셨으면 좋겠어요. (성환)

모기동 사람들에게 역사적, 사회문화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삶의 공간이 관광지가 되어 소비의 공간이 되는 것을 수용하기란 쉽지 않다. 모기동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효율성을 강조하는 환경개선 사업에 저항하며 주체적인 목소리를 낸다. 성환은 획일적인 간판 사업을 비판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직접 참여하여 이들

의 이야기와 마을의 역사, 일상을 담을 수 있는 방식을 제안한다. 도시 정비 및 환경개선이라는 국가적, 형식적 공공성의 이름으로 현장의 생동함과 실제 삶의 모습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음에 대해 이들의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고 끊임없이 모기동의 일상을 살리려 하는 것은 시민의 주체적 활동이자 형식적 공공성과 공공기관의 성과주의에 대응하는 시민적 공공성으로 해석된다.

이들은 처음부터 어떤 공동체를 만들지 이념적으로 정해놓고 공동체를 만든 것이 아니다. 10여 년의 경험을 함께하며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 그리고 가치의 공유가 일어난 상태다. 이 시점에서 연구자가 물었을 때 이들 제각각은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공동체를 정의하는데 이들에게서 많은 부분이 공유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이 말하는 공동체의 정의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스스로 발전시켜온 가치이자 함께 공유해온 가치라는 차원에서 이들 공동체의 정의 자체가 커먼즈(commons)로 이해된다.

제 4 장 〈모기동 문화예술공동체〉의 운영원리와 새로운 공공성의 가능성

제 1 절 〈모기동 문화예술공동체〉의 운영원리

본 절에서는 모기동에서 운영원리를 살펴보도록 한다. 앞서 3장 3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들은 공동체의 명칭조차 만들지 않는데 외부에서 부과되는 틀이나 목적하에 자기들의 정체성을 가두는 것에 거부하는 모습을 보인다. 모기동 사람들은 '우리'가 일하는 방식, '우리'가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과 '우리'가 공유하는 운영원리에 대한 암묵적 합의와 공유가 담겨있다.

1. 대화의 방식과 우리들의 규칙 만들기

1) 수다와 일의 시작

마을에서의 수다는 단순한 시간때우기로 보기 힘들다. <모기동 공동체> 참여자들은 일상적인 수다로 서로에 대한 관심과 친밀도를 높이며 관계를 형성한다. 친밀하고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다양한 정보들을 얻고 서로에 대한 이해도를 넓혀가는 동시에 이 과정을 통해 관심의 접합점이 모여 일이 형성되기도 한다.

> 처음에 카페 '숙영원'을 열고 주민들하고 친해지게 된 건 수다 때문이었어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을 공유하는 것부터가 동네 주민이 되는 과정이었으니까요. 누구네는 어떻고 밥숟가락이 몇 개고. 이렇게 소소한 것들이 쌓여가며 서로에 대한 호기심이랑 대화거리가 생기고 관계가 생기고. '카페마을'에서 자주 일상적 수다를 떠는 것이 일의 시작이자 해결의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축제도 수다를 떨다가 같이 해보자고 나온 거고. 어떤 선생님이 뜨개질에 손재주가 있다고 하면 그게 문

> 화예술 프로그램으로 되기도 하고요. 주거불안정 때문에 고민하는 분 이야기 듣다가 공감이 되어서 결국 공동주택도 만들었어요. 그 많은 수다들이 쌓여서 우리가 함께 할 일이 생겼어요. (연희)

연희는 '수다'를 통해 동네 사람들을 알게 되고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고 말한다. 동네 사람들은 수다를 통해 개인적이고 소소한 것부터 시작해 정보를 얻고 서로를 알아가게 되며 개인이 갖고 있던 작은 아이디어나 고민을 나누다 "같이 해보자"는 생각을 갖게 된다. 모기동 사람들에게 일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수다'를 통해 자연스럽게 시작되는 것이다. 축제에 대한 열망이나 뜨개질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 주거불안정에 대한 고민으로 출발한 공동주택도 일상을 공유하는 동네 사람들의 수다를 통해 "우리가 함께 할 일"이 되었다. 모기동에서 '수다'로 표현되는 대화방식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솔직하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대화를 뜻하는데 이는 우드(Wood, 2006)[25]가 말하는 여성들의 말 공동체(speech community)와 여성적 커뮤니케이션의 특징과 비슷하다. 중요한 것은 우드(2006)가 지적한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의 젠더화가 실제하는 개인들의 성별과 일대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모기동 사람들이 드러내는 '우리'의 소통방식은 이들의 생물학적 성별이 여성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이 성과중심적 기업문화와는 다른 마을 활동, 동네에서의 관계 형성에 집중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 동네에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서로에게 시간을 낼 수 있는 것이 중요하죠. 남녀로 따지긴 그렇지만 남자들은 지역활동을 하는 것이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느리고 딱딱 결론만 내는 방식이 아닌 부분에서 이질감을 느끼는 거 같아요. 회의를 하자고 해서 모였는데 회의에 직접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직장 내

25) 우드(2006)는『젠더에 갖힌 삶』에서 대부분의 여성과 남성이 별개의 말 공동체(speech community)로 사회화되고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사회, 문화적으로 젠더화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 결과 여성적 스타일은 관계 중심적, 과정지향적이며 평등한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며 다른 사람을 포용하며 관계의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 남성적 스타일은 직접적, 자기주도적이며 자기 생각, 정체성을 주장하고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거나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보았다.

에서는 시간 낭비라고 볼 테니까. 그런데 마을 활동은 다르잖아요. 수다 떠는 시간을 통해 친해지고 또 다양한 정보를 얻으면서 서로 이해도가 높아지고 함께하는 거 같아요. (성환)

유일한 남성 연구 참여자인 성환은 “남녀로 따지긴 그렇지만 남자들은 지역활동을 하는 것이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라고 말한다. 그 근거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투여하는 시간과 노력은 일반적인 직장에서라면 시간낭비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대개의 남성들은 성과와 효율성이 우선인 기업문화에 익숙해 있으므로 <모기동 공동체>의 소통방식에는 적응하기 힘들 수 있다는 것이 성환의 생각이다. 또한 성환은 “동네에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기존의 남성중심적 기업문화에서는 폄하되었던 수다가 서로가 친해지고 정보도 얻는 유용한 소통방식이 된다고 지적했다. <모기동 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소통에서 수다가 갖는 중요성에 대한 성환의 언급은 윤보라(2011)의 제안을 떠올리게 한다. 윤보라(2011)는 2008년 촛불집회에서 존재감을 드러낸 ‘삼국카페’의 소통을 분석하면서 인터넷에서 수다가 나중에 정치적 국면에서의 연대로 이어지는 여성들간의 관계 형성에 중요함을 밝혔다. 즉 남성중심적 시선에서 평가절하되어 왔지만 여성들의 생활세계에서는 늘 많은 비중을 차지해온 수다를 시간낭비가 아닌 시간을 들여 관계를 형성하는 유의미한 소통방식으로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2) 수평적인 관계와 소통

관계를 형성하는 수다가 모든 일의 시작점에 존재하는 <모기동 공동체>의 특징은 공동체와 마을의 일이 비위계적이고 관계적인 방식의 소통을 통해 진행되는 것과 연결된다. 경희의 언급은 수평적이고 비위계적인 사고와 대화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내가 혼자 대화를 주도하거나 잘하겠다는 목적만 앞세워서는 내 주장만 펼 때 오히

> 려 공동체 내에서 일이 안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초기에 내가 관철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 주도적으로 말하고 주장이 세진 적이 있었어요. 제 기준에서 일이 잘 안된다고 달그락거리고 속앓이를 했었죠. 생각해보니 회사 다닐 때처럼 목표를 설정하고 달려나가려고 했던 거 같아요. 나중에 몇 번 시행착오를 겪다보니 '이 방식은 아니구나. 시간과 배려, 듣는 귀가 필요구나'라고 절실하게 느꼈죠. 그 이후부터는 모두가 같은 위치에서 수평적으로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경희)

<모기동 공동체>는 어떠한 사안을 결정할 때에도 한 명이 일방적으로 주도하고 관철해 나가기 보다는 수평적인 관계와 소통의 방식을 택한다. 경희는 처음에 스스로 일의 기준의 세우고 목적지향적으로 "내 주장만" 펼쳐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말하며 "동등한 위치에서" "시간"을 들이고 "배려"하고 "듣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은지는 이런 수평적인 관계맺음이라는 것이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활동에 내재해 있는 자아의 존중과 연결된다고 보았다.

> 일상생활 속 문화예술은 삶을 기반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문화예술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 대화를 나누면서 스스로가 자기 방식들을 터득해 나가는 것이죠. 이런 문화예술을 주제로 놓고 우리가 만나니까 내가 뭐 했고 어떤 경력이 있고 표창을 받고 말고가 중요치 않죠. 프로그램 진행할 때 어떤 한 분이 자기 소개하시면서 무슨 상을 받고, 엄청난 경력을 이야기하셨는데 사람들이 반응도 없고 분위기도 별로였어요. 본인이 생각한 분위기가 아니었는지 그 분은 다음에 안오셨어요. 내가 누구고 내 고민은 뭐고 어떤 작업을 하고 싶은지 내면의 것을 나누고 하는 데서 개인의 직책이나 사회적 위치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상상하고 기획하고자 하는 예술과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이야기하니까 수평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 같아요. (은지)

삶을 기반으로 하는 <모기동 공동체>의 예술은 "내가 누구고 내 고민은 뭐고 어떤 작업"을 할지 오롯한 나의 내면에서 출발하므로 겉으로 보이는 직책이나 사회

적 위치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아를 설명할 수도 없다. 모든 자아들은 위계적으로 배열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평등하고 비위계적이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와 소통 또한 수평적이다.

정은의 경우 앞서 성환처럼 <모기동 공동체>에서의 '일'과 '회사'의 '일'을 대비하면서 공동체의 관계맺음의 특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 동네에선 다른 방식으로 일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 같아요. 회사에서는 일을 할 때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논리 구조를 만들고 설득의 언어가 필요하고 개인에게 권한이 주어지는 만큼 책임을 져야 하는 곳이잖아요. 동네에서는 "하고 싶으면 해"라는 지지 속에서 실패를 할지언정 그것마저도 하나의 경험치로 인정해줬죠. 이게 여성이 많은 조직체계라서 그렇다고 단정하기 힘들지만 적어도 마을이라는 공간에서 통용되는 일의 체계, 일의 구조는 위계적이거나 성과주의적이지 않은 성격을 띠는 거죠. 여성들의 언어나 스타일이 그래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 마을에서 주로 다루는지 의제가 우리 삶과 연결된 것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일상과 연결된 것이기에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긴 호흡으로 과정을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 여성들이 잘하는 것과 맞닿아있다고 생각해요. (정은)

<모기동 공동체>는 개인의 자율성을 인정해주고 또 다른 한편 일상과 연결되어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과정을 중시하고 있다. 정은도 성환처럼 남성 여성과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여성이 좀 더 유리하다고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인데 이것은 <모기동 공동체>의 소통과 일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남성들이 익숙한 문화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회사나 일로 모인 것처럼 위계적인 방식이 아니라 개인성을 존중하고 수평적인 부분들이 <모기동 공동체>의 특성으로 지적되기 때문이다. 그와 더불어 모기동 사람들은 이게 여성이기 때문이라기보다도 일상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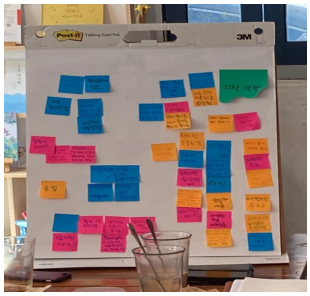
3) 우리들이 스스로 만든 규칙

정은은 '성과지향적'인 것과 '과정지향적'인 것을 대립시켜 설명했다. 하지만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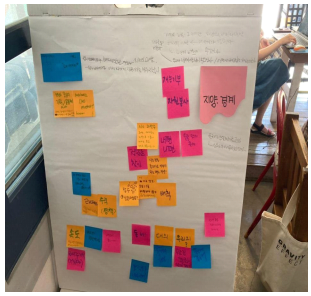
제 모기동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과가 없어도 과정만 좋으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진 목표와 기준으로 성과를 측정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이들은 항상 사안마다 본인들이 정한 목표와 방향성, 일을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서 일을 해나가려고 하는데 바로 그런 자기들의 의사소통 방식을 '과정지향적'이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이들은 자율적인 운영방식이 잘 드러난 것이 'N개의 서울' 사업이다.

<모기동 공동체>는 2018년부터 서울문화재단에서 지원받아 'N개의 서울'을 진행했지만 매년 사업을 진행할 때마다 사업의 방향성을 함께 정하는 것을 선행하였다. 관행적으로 기존 방식을 답습하거나 기존 참여자가 중심이 되어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같이 고민하며 '지향할 것'과 '지양할 것'을 정했다. 외부에서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모기동 사람들의 활동을 잘 담아내고 참여자들 모두에게 이 활동을 의미가 있도록 '우리들의 규칙'을 새로 정한 것이다.[26]

회의 사진



지향점



지양점

[그림 18] 'N개의 서울' 회의(2020.6.9.) 사진

26) 우드(Wood, 2006)는 남성들의 말 공동체와 여성들의 말 공동체가 어떻게 다른지를 소년들과 소녀들의 놀이에서 읽어낸다. 소년들의 놀이는 주어진 규칙에 따라서 경쟁해서 누가 승리하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소녀들의 놀이는 처음부터 관계와 규칙을 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언급했다.

지향	지양
참여와 소통	정답을 찾기
비빌 언덕	과반수와 대의
나, 너, 우리의 즐거움	내편 니편
작지만 소중한 것	다른 생각/그룹 배척
다양성과 차이 인정	초심 상실
실험정신 엉뚱한 상상	보여주기식 기획
속도 천천히	비교와 무한경쟁
시시껄렁한 수다	수직적/빠른 속도
과정중심적 사고	성과중심

[표 5] 'N개의 서울' 회의 내용 정리

참여자들은 먼저 'N개의 서울' 사업의 자체의 방향성과 목표를 도출하기 위해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따라갈 지부터 결정했다. 참여자들이 도출한 '지향'과 '지양'을 보면 이들의 특징을 알 수 있다. 지향을 보면 '비빌 언덕', '나, 너, 우리의 즐거움', '다양성과 차이의 인정', '속도 천천히', '시시껄렁한 수다', '과정중심' 등이 있는데 '비빌 언덕'은 지지적인 관계를 의미하며 '나, 너, 우리의 즐거움'은 개인성의 존중을 기반으로 활동의 목표는 즐겁고 행복한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다양성과 차이의 인정', '속도 천천히', '시시껄렁한 수다', '과정중심'은 위계적이고 효율성을 중시하는 이른바 이들의 언어에서 나오는 '회사'적이거나 '일'적인 것의 반대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지양은 '과반수와 대의', '보여주기식의 기획', '정답을 찾는 것', '성과중심' 등이다. 특히 눈에 띠는 것은 '과반수와 대의'인데 개인성의 존중과 소외되는 개인이 없게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들은 '보여주기식의 기획', '정답을 찾는 것', '성과중심' 등 형식적이거나 외부에서 주어진 목표를 쫓는 것을 버리고자 하였다.

'우리의 규칙'의 핵심을 이르는 가치는 '우리'는 '우리'가 만든 규칙에 따른다는 거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규칙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들의 규칙을 만들어가고 또 우리가 만든 규칙에 스스로 따른다는 자율성의 원리가 작동된다.

> ‘N개의 서울’은 서울문화재단에서 지원받은 사업이지만 공공기관의 언어와 방식을 그대로 쓰지 않았어요. 2018년에 시작한 사업이지만 그때의 방식을 매해 그대로 따라가지도 않았고. 올해 사업 방향에 대해서는 올해 함께할 우리들이 같이 모여서 지향점, 지양점을 정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의 규칙을 우리가 만드는 거죠. 형식이 없을 수는 없지만 굳어진 형식을 흔드는 것을 계속 시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같이 만들어갈 거예요. (나영)

<모기동 공동체>는 의도해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니고 사업의 목표나 공동체의 가치가 설정되기 전에 먼저 관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공식적인 규칙이나 정형화된 언어가 처음부터 주어지지 않았다. 또한 공동체로 출발한 지 10년 가까이 되었지만 초기에 갖고 있었던 개방성과 ‘우리’의 규칙을 스스로 만드는 자율성은 버리지 않았다. 나영은 “우리의 규칙은 우리가 만”들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같이 만들어갈 거”라고 말하는데 이는 내부적으로 개인성과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기준을 거부하고 자율적으로 민주적으로 소통하고 숙의해서 규칙부터 처음부터 만들어나가는 공동체임을 보여준다.

또한 지원사업을 운영함에도 ‘모기동’만의 원칙과 방식을 만들어나갔다. 일반적으로 지원사업의 형식은 정형화되어 있는데 모기동 사람들이 설계한 ‘예술×동네 컬렉티브’ 공모사업은 공공기관의 일방적인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규칙들이 담긴 지원사업으로 기획되었다.

> 제안서의 형식을 네 차례에 걸쳐 바꾸고 또 바꾸던 중 쉽게 쓸 수 있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편안하게 담을 수 있는 방식의 작은 책으로 구성하면 어떨까 생각을 정리했어요.
>
> 출처: ‘플러스마이너스1도씨’(2018).『지역이 예술이다-space에서 place로』.

> 형식에 갇히기보다는 현장의 이야기를 편하게 담을 수 있게 여러 번 논의 끝에 양식도 바꿨고 방향을 잡거나 제안서 작성이 어려운 사람들 대상으로 ‘퇴근길 상담소’라는 컨설팅도 자리도 마련해서 편하게 소통할 수 있게 했어요. (은지)

지원서 양식을 간소화하는 동시에 지원자들의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씨의 기획노트'로 변경했으며 '퇴근길 상담소'라는 컨설팅 과정과 '서로 면담'이라는 피드백 과정을 운영하여 사업으로 설계해 상호 소통하였다. 이들이 만든 모기동만의 지원 방식과 원칙은 정형화된 지원사업에 유연성과 자율성을 불어넣었다. <모기동 공동체>는 'N개의 서울'을 포함하여 다수의 공공지원을 받으며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주어진 규칙과 공공의 언어에 매몰되는 대신 스스로의 방향성을 다잡고 규칙을 새로 만들었다. 보통 공공기관에서 지원금을 받으면 공공의 체계와 언어에 포섭되어 정형화되고 현장과 유리되며 생활세계가 잠식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모기동 공동체>는 '우리들의 규칙'과 언어를 새로 만들면서 스스로의 일상과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모기동 공동체>는 사안을 시작할 때 숙의를 통해서 먼저 규칙부터 만들고 그리고 그 규칙이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개인들로 구성된 이 공동체의 자율성에 도출된 규칙이라는 점에서 자칫 외삽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공공미술 정책에 오히려 현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들은 사업의 지향이나 그것을 규정하는 언어나 실제로 사용되는 서식 등을 자율적으로 토의해서 스스로 만드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외삽적인 형식으로부터 현장성이 사라지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

2. 일상과 돌봄

<모기동 공동체>가 개인성을 존중함과 동시에 수평적 관계맺음과 자율성을 지향하는 소통방식을 가진 이유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상을 공유하고 서로의 일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지해주는 공동체라고 하는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N개의 서울' 사업에 지향해야 할 점 중 하나로 부각 되었던 '비빌 언덕'과 같은 키워드가 이런 부분을 잘 보여주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주는 사람들이 되고자 하는 것이 이 공동체의 지향하는 바다. 이들은 개인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춘 완결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들은 서로가 서로의 동네 사람으로서 소소하게 일상을 공유하고 있었고 일상의 공

유는 단순한 관심이나 수다의 내용이 아니라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서로의 삶의 필요를 메꿔주는 돌봄의 행위로 연결된다.

모기동 사람들은 일상을 꾸리는 것이 돌봄의 행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 나의 일상을 돌보든 나의 가족을 돌보든 돌봄의 영역과 닿아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잠시 일을 그만둘 때 되게 놀랐던 것 중 하나가 제가 바쁘게 지낸다는 이유로 사용한 컵 하나도 싱크대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딘 사람이고 주변에 관심이 없었는데 일을 그만두고 집에 자주 있게 되면서 안보이는 것이 보이게 되고 자연스럽게 가사노동에 관심이 생기고. 그러면서 일을 한다는 것에 일상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내팽개쳐져 있는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일상이라는 것, 나를 돌보고 일상을 돌보고 일상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 저 사람이 어떤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주는 거나 도움을 받는 것, 우리 마을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려 노력하는 것, 이 모든 게 아주 포괄적인 돌봄의 영역이죠. (정은)

정은에게 가사노동이나 일상을 유지한다는 것은 돌봄의 문제로 인식되며 일상의 돌봄은 개인을 넘어서 주변 사람들, 그리고 마을의 문제로 연결된다는 시각을 보여준다. 이런 정은의 이야기는 보살핌이라는 것을 자녀 양육이나 노인 돌봄에 국한하지 않고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활동으로 확장한 피셔와 트론토(Fisher & Tronto, 1990)의 이론과 궤를 같이 한다. 피셔와 트론토(1990)는 돌봄을 '우리가 가능한 잘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세계를 유지하고 지속하고 고쳐가기 위해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일종의 활동'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며 이런 돌봄의 이해가 돌봄의 가치를 주변화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런 통찰은 <모기동 공동체> 본연의 문화예술 활동과도 이어지는데 이것은 정은이 만든 빨래 중심의 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 최근에 갑자기 빨래에 꽂혀서 새로운 취미생활이 됐죠. 빨래의 역사, 옷감, 세제 성분, 세탁 방법 이런 거에 관심이 생겨서 혼자 분석했어요. 그러다 '카페마을'에서 동네 사람들에게 신나서 설명했던 거 같아요. 사람들이 흥미 있게 들어주기도 하고

관심도 보여서 빨래를 중심으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항상 보송보송한 상태에서 옷을 입고, 다 입고는 벗어놓고 가지 그 안에 숨겨진 노동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잖아요. 누가 빨고 개고 했는지 고민하지 않고. 그게 예술교육과도 맥락이 닿아있어서 '교육 인 세탁소'라는 이름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정은)

정은은 빨래로 표현되는 가사노동이나 일상의 돌봄이 쉽게 잊혀지고 무시되는 현실에 주목한다. 그녀는 '교육 인 세탁소'라는 이름으로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일상의 돌봄이 남성중심적인 사상 체계 속에서 비가시적이고 비생산적인 활동으로 여겨졌지만 일상을 유지하고 삶을 이어가게 해주는 중요한 활동으로 인식하고 일상의 문화예술과 연결하며 의미를 찾는다. 이런 일상에 대한 관심과 돌봄은 일상을 공유하는 사람들에게로 연결된다.

2년간 아팠을 때 아예 밖에 못 나가고 집에만 있었어요. 살도 엄청 많이 빠지고 그랬는데 너무도 당연하게 동네 사람들이 들여다 봐주고 수발도 들어주고 음식도 조달해주고. 진짜 아팠을 때 현정 선생님이 출동해 병원에도 데려갔어요. (중략) △△랑 □□이 아플 때도 현정 선생님이 미역국도 잔뜩 끓여서 나눠주고. 저도 사람들이 힘들 때 챙기고 들여다보게 되고. (은지)

나영에게는 모기동 일이 숨을 쉴 수 있는 활동이에요. 제가 엄마도 아빠도 아니지만 주변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가능한 일이고. 나영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이를 한 번 더 봐주면 되는 거죠. 같이 사는 동네인데 어렵지 않은 일이잖아요. 동네에서 돌봄의 환경을 제공하는 거, 그래서 돌봄을 받는 사람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일하면서 가지는 보살핌, 배려랄까요? 이게 또 우리 공동체를 유지시키고. (현정)

모기동 사람들은 몸이 아플 때 챙겨주는 것, 병원에 데려가 주고 미역국을 끓여주는 것, 아이를 대신 봐주는 것 등 일상을 함께하는 사람에게 보살핌을 제공하고 있었다. 모기동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주고 있으며 이 돌봄

의 연쇄는 공동체를 좀 더 탄탄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모기동 사람들은 <모기동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돌봄의 문화에 대해 본인의 감사함을 지속적으로 표현한다.

> 돌봄 문화라는 것을 많이 느껴요. 동네의 기본적인 성향이 서로를 돌보고 힘들 때 챙겨주러 오고 하는 거 같아요. 이쯤 되면 힘들겠지, 이런 게 필요하겠지 그때그때 파악해주고. 그런 보살핌과 배려를 많이 받았어요. 예정일보다 먼저 갑작스럽게 출산하러 가는데 동네 사람들 7명이 그걸 보고 다 같이 가주셨어요. 알아서 챙기고. 간호사 선생님이 "친척이 이렇게 많냐?"고 이야기를 하실 정도였죠. (중략) 작년에 육아휴직하고 올해 출근했어요. 시댁이나 어른들의 눈치가 보이지만 저만 뒤처지는 거 같아서 답답했었거든요. 요즘 아기 어린이집 출퇴근에 맞춰 제 업무 시간을 짜고 일이 조금 늦게 끝나면 제가 아이를 안고 하거나 '카페마을'에서 다른 선생님들이 아이를 봐주면서 일을 하게 되어요. 완전히 공동육아인 셈이죠. 감사하고 배려받는 느낌이죠. 덕분에 저도 일을 할 수 있고. 다른 선생님들도 집에서는 자기 애들 보느라 바쁠 텐데 나와서도 나를 돌봐주고, 아이도 돌봐주고. 인간은 돌봐줘야 살 수 있다는 것을 동네에 있으면 계속 확인하게 되는 거 같아요. (나영)

나영은 현재 육아휴직을 마치고 '플러스마이너스1도씨'에서 일을 하고 있다. 나영 개인에게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앞서 현정이 "돌봄을 받는 사람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들의 돌봄은 인간과 개인성에 대한 존중이 깔려있음을 알 수 있다. 나영은 갑작스러운 출산에도, 지금 일을 할 때도 동네 사람들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돌봄과 배려를 받았다고 여러 번 강조해서 말하는데 "인간은 돌봐줘야 살수 있다는 것"을 동네는 확인시켜 준다.

모기동이 가지고 있는 돌봄의 문화는 인간은 돌봄을 받고 주어야 살 수 있는 발본적인 돌봄의 관점을 보여준다. 정은은 지금까지 돌봄이라는 것이 한국사회에서 상당히 폄하되어온 것에 대해 문제제기한다.

> 돌봄을 여성들이 하는 일이라는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기존 사적 영역의 일로 여겨졌던 거 같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주로 담당해 왔던 돌봄의 영역의 일이 터부시되고 무시되어왔고 늘 우선순위에서 밀려왔다고 봐요. 돌봄은 애들 돌보는 것과 노인

> 을 돌보는 것만이 돌봄이 아닌데 일상을 돌보는 것, 서로를 배려하는 것,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도 돌봄인데 가장 사적인 것으로 꼬리표가 달리는 것 같아요. 다만 꼬리표에 동의하지 않고 그걸 다른 언어로 표현해보거나 다른 차원으로 해석해 내는 일을 부단히 하는 것. 문제의식을 현장의 언어로 제기하고 공론화하는 것들이 많아지면 논의의 흐름을 바꾸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정은)

정은은 "일상을 돌보는 것,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도 돌보는 것인데 여성을 일로 한정 지어 가장 사적인 것으로 꼬리표가 달린다고 지적한다. 정은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것은 돌봄이 사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녀는 여성의 일과 사적인 것을 동일시하는 근대 이분법적 시각을 비판하며 돌봄을 품앗이나 사적 원조로 보기보다는 동네 사람으로서 함께 살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교환되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돌봄이 사적 교환이 아니라는 것은 다음 나영의 말에서 드러난다.

> 처음에는 갚으려고. 했는데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니 갚을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내가 육아에 치여 갚을 방법이 도저히 없고 나중에 다른 사람이 힘들 때 챙겨줘야지. 뭔가 다른 선생님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내가 제일 먼저 달려가야지. 내가 받은 돌봄을 꼭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중략) 나라는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가를 확인하게 돼요. 저는 동네에서 안전하게 보살핌을 받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지만 이 마을이 아니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독박 육아에 일에. (나영)

마을에서의 돌봄은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일회적이거나 증발해버리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안에 남아있다. 나영은 본인이 받았던 배려와 "돌봄을 돌려" 주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고 싶다는 의지를 밝힌다. 나영의 언어는 정은이 돌봄은 사적인 것이 아니고 현장의 언어로 보게 되면 돌봄이 다른 방식으로 보인다고 이야기한 것과 연결된다. 돌봄은 타인에게서 받지만 돌봄을 준 사람에게 꼭 되돌려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스스로 돌봄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돌봄을 받고 있는지 잘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앞으로도 돌봄을 제공하겠다는 미래의 돌봄 제공이

라는 차원에서 돌봄은 사적 교환이 아닌 공동체의 문화로 남는 것이다. 나영은 돌봄의 연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신에게 안전망이라고 이해하는데 이것이 바로 앞에서 언급되었던 '비빌 언덕'이다. 돌봄이 개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마을이라는 공동체의 문화고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도 돌봄에 참여하겠다고 생각하는 지점은 돌봄을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이자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는 키테이(Kittay, 2016)[27]의 생각과 유사하다.

'비빌 언덕'을 구성하는 과정으로서의 돌봄이라는 철학을 보여주고 있는 <모기동 공동체>는 자녀 돌봄의 품앗이를 넘어 지역사회의 청소년과 어린이를 돌보는 것까지 연결된다. 이것은 2016년 결성된 '모기동마을학교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에서 잘 드러난다.

> 아이들이 집에 가기 싫으니까 골목 주차 공간 사이에서 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학교 수업도 빼먹기 일쑤라고 하니 이게 "내 문제 아니야"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마을과 긴밀해지니 목2동의 교육환경과 아이들의 성장 환경에 대해 고민을 하게 돼요. 원래 저희 문화예술교육도 어른, 아이 누구에게나 삶 속 문화환경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었거든요. 교육환경 개선은 마을 공통의 문제고 그러다보니 마을학교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지역 아이들을 돌보고 보살피는 것도 우리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인데 우리가 함께 하면 뭔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은지)

> 지역에 대한 관심, 아이들에 대한 관심도 돌봄이죠. 아이들은 동네 구성원이지만 현재 사회적 약자니까요. 사실 보호자가 영향을 제일 많이 주지만 우리도 아이들을 꾸준히 만나면서 조금의 영향력이라도 미치니까 '우리는 간접 보호자다'라고 생각을 했죠. 마을에 10년 가까이 있어도 아는 사람만 알고 했는데 축제도 하고 '아델의 청소년 문화공간 청청청'하고 연계하면서 다 같이 더 넓게 아이들 교육환경을 고민하게 된 거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모기동마을학교'를 하게 되고. 아이들이

27) 키테이(2016)는 돌봄을 여성적 특성으로 간주하거나 여성주의 윤리로 보는 관점과 달리 돌봄이 가지는 공적 가치와 인간의 존재가 근본적으로 의존적이라는 존재철학에 바탕을 두고 있다. 돌봄 관계란 그 자체로 사회에 기여하고 있으며 '둘리아 원칙(doulia)'을 통해 사회가 돌봄을 지지하고 보호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 믿을만한 곳이 생기는 거, 든든한 곳이 많아지는 거.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많은 사람들이 보살필수록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나는 거잖아요. 이게, 돌봄이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을 전체가 큰 학교가 되어 아이들을 보살피고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경희)

모기동 사람들은 지역 아이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은지는 지역 아이들이 가출도 하고 결석도 하는 상황에 그냥 "내 문제가 아니야"라고 치부할 수 없었다고 말하며 지역 아이를 돌보는 것은 그 지역 사람들 모두의 역할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다. 경희도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돌볼수록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다고 말하며 마을 전체가 돌봄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생각하는 돌봄은 젠더화 되지 않고 가족의 책임으로 전제되어 있지 않다. 다른 세대에게 당연히 주어져야 할 권리로써 지역사회 안에서 좀 더 잘 제공할 수 있기 위해 공동체에서 함께 고민한다. <모기동 공동체>의 돌봄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지역의 아이들에게 마을 전체가 '비빌 언덕'이 되어줄 수 있는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이해된다.

> 공공기관이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활동은 공공성을 띠는 거 같아요. 내 아이만 잘 키우겠다는 생각도 아니고 이걸 통해 특정 누군가만 엄청난 개인적 부와 명예를 쌓는 것이 아니니까요. 함께하는 이 활동을 통해 우리 지역사회를, 우리 동네 아이들을 돌보고 더 건강하게 키우는 데 기여하는 일이니까 만족감을 느끼고 계속하고 싶은 거예요. (경희)

앞서 정은은 돌봄을 사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경희는 돌봄에 공공성의 언어를 사용한다. 여기서 공공성은 개인적이지 않은 것, 공동의 것, 공동을 위한 것이라는 커먼즈(commons)의 개념으로 이해된다. <모기동 공동체>는 돌봄을 공유하고 함께 돌봄을 실천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것은 보살핌을 공적 가치로 보고 돌봄의 사회적 책임의 원리를 강조하는 키테이(2016)[28]의 주장과 연결된다. 이런 시각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일이거나 여성의 가치로 여겨졌

던 돌봄에 대한 기존 틀을 깰 수 있다. 돌봄이 마을의 권리이자 의무로 연결되면서 사회적 돌봄과 안전의 문제가 동네 사람 모두의 책임이 되는 가운데 돌봄을 여성에게만 한정시키는 불평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오롯한 개인과 문화예술에 대한 열망으로 출발한 모기동 사람들은 서로를 돌보고 일상을 보살피는 실천을 하고 있다. 돌봄과 보살핌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공동체의 가치로 자리잡았고 공동체뿐만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로도 확장되었다. 돌봄을 지역사회의 책임이자 세대 간의 갈등을 해결할 사회적 가치로 인식하고 있다는 지점에서 돌봄을 공적으로 해석하고 의미화하고 있었으며 이런 차원에서 돌봄은 <모기동 공동체>의 커먼즈(commons)가 되었다.

3. 숙의민주주의와 갈등을 넘어서는 공동체

<모기동 공동체>는 수평적이고 비위계적이고 과정중심적인 소통방식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개인을 존중하고 서로 돌보는 일상의 공동체라는 사실은 이들이 집단적 논의를 통해 의사결정하는 방식과도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모기동 공동체>의 일하는 방식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숙의(deliberation)의 중요성인데 이것은 이들이 'N개의 서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스스로 만든 '우리들의 규칙'에서 잘 드러난다. 모기동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참여와 소통', '과정 중심'을 지향하고 '과반수와 대의', '정답 찾기', '다른 생각 배척'을 지양하는데 이는 새로운 민주주의 방식인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29]방식과 연결된다.

---

28) 키테이(2016)는 롤스의 정의론의 한계를 지적한다. 롤스는 '정치적 자유를 분배하는 제 1 원칙'과 '경제적 부와 사회적 지위를 분배하는 제 2 원칙'만을 사회적 정의의 원리로 보았다. 키테이(2016)는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원리'를 제 3의 원칙으로 주장하며 돌봄이 사적영역의 친밀한 관계뿐만 아니라 공공정책과 같은 공적 영역에서도 적용되는 가치로 '돌봄의 공공윤리'를 강조하였다.

29)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는 대의민주주의의 엘리트주의와 대표성의 실패, 공공성의 위기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참여민주주의와 함께 등장했다. 숙의민주주의는 학자들에 따라 정의는 다르지만 구성원들이 토론과 토의를 통한 공론장을 전제로 토론과 토의의 과정을 겪으며 합의해 나가는 공적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중시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숙의민주주의는 참여 및 토론을 통해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공감하고 합의하는 것을 과정이며 개방적 숙의를 통해 합의된 판단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숙의의

<모기동 공동체>의 의사결정이 가지는 숙의민주주의적인 특징은 다음의 언급에서 잘 드러난다.

> 동네 안에서 다 가깝게 움직여서 그런지 결정은 자연스럽게 다 같이 해요. 작은 일은 카톡으로 정하기도 하고. 남들이 보면 시간 허비하는 것 같아 보이겠지만 저희는 결정할 때 다 같이 충분한 이야기를 통해서 해요. 꼭 당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수다들이 쌓인 상태에서 함께 결정하고 설득과 설득의 시간을 거쳐 만장일치로 결정해요. 다수결 아니고. (명숙)

> 마을에서는 숙의의 과정 없이는 안되는 거 같아요. 그냥 다수결 같이 빨리 결과만 얻으려 하면 실패하거나 외양만 채우게 되는 사례도 많은 거 같아요. 협동조합이라고 이사회 한 번으로 결정하면 안돼요. 한 번의 회의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일단 결론을 내지 않는 거예요. 한번 해. 안 돼. 그럼 또 해. 세 번하고 네 번하고 그래도 안돼. 나중에는 되는 거예요. 신기하게. 숙의의 과정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자기와 다른 점도 발견하고. 사람들의 판단이 다를 때, 이거 아니면 저거, 한사람이 맞거나 다른 사람이 맞거나 이렇잖아요. 그런데 여러 차례 숙의하다 보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게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경희)

연구 참여자들은 “다수결”로 결정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빨리 결과만 얻으려” 하는 것을 경계하는 태도를 보였다. 수다를 통해 획득된 이해와 배려의 감각으로 충분한 시간과 설득의 과정을 거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경희는 여러 번의 논의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스스로 타인과 다른 점을 확인하기도 하고 타인의 의견에 동의하거나 공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거 아니면 저거”, “한 사람이 맞거나 다른 사람이 맞거나”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논의 방식에서 숙의의 과정을 통해 맞춰나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의 결정 과정 속에 타인에 대한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깔려있었으며 이는 전

과정을 통해 소속감과 상호 신뢰감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강용진, 2008; 임성호, 2013; 김정인, 2018).

통적 공동체성의 폐해라고 볼 수 있는 동일성의 강요와 다르다고 이해된다.

> 마을에서 하는 일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혼자 해서도 안되는 일이에요. 마을에서는 다양한 세대가 함께 일을 하는 경우가 많지요. 저는 특히 그랬어요. 같이 일하는 동료와 20~30살까지 차이 나기도 했지요. 단지 나이 차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경험과 삶은 살아온 사람들이다 보니 비슷한 줄 알았는데, 일을 하다 보면 서로 너무 다른 성격과 일하는 방식, 성향 등등 다른 게 너무 많아 갈등이 생기기도 했어요. 물론 틀린 것은 아니지요. 그럴 때는 다 같이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이야기하고 숙의하곤 했어요. 어차피 함께 일을 해나간다는 원칙에는 동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하게 되더라고요. 숙의가 때론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충분히 논의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겪지 않으면 나중에 진행이 아예 안되는 경우를 허다하게 봤어요. 오히려 길게 보면 이 방식이 더 효율적이더라고요. (경희)

"마을에서 하는 일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혼자 해서도 안되는 일"이라고 말하는 경희의 언급은 마을 활동에서 마을 구성원인 개개인과 그 개개인의 협력의 중요성을 전제한다. 그런 이유로 다수결이나 투표를 통해 몇몇이 빠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충분하게 숙의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이 실패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더 빠른 길이란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다. 경희의 과거 경험은 대의정치가 가지는 한계를 잘 보여주는데 <모기동 공동체>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 토론하며 합의해 나가는 과정은 숙의민주주의 모델을 잘 제시하는 사례라 하겠다.

문제는 당면한 과제와 갈등이 있을 때 숙의의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는 거다. 예컨대 '협동조합 카페마을'은 수익구조와 운영방식 문제로 큰 갈등을 겪는다. 2016년 카페 '숙영원'에서 10명이 함께 운영하는 협동조합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기존 모기동에서 활동하던 사람뿐만 아니라 축제와 마을학교를 통해 새로운 유입된 사람들이 합류하게 되었고 2년 정도 운영을 했지만 경영 적자와 운영체계를 이유로 위원장이 카페 폐지를 주장한 것이다.

'숙영원'이 '협동조합 카페마을'로 전환되면서 갑자기 들어온 분들 중에 성향이 굉장히 목표지향적이라고 할까, 수평적 관계를 경험해보지 못한 분이 위원장이 되신 상태였는데, 그러다보니 어떻게 해결할지 의사결정하는 과정도 어려웠어요. 그분이 "수익이 안나니 '협동조합 카페마을'을 없애자"고 의견을 냈고 "이사장은 그런 권한이 있다"고 말하며 자기 의사결정에 따라줬으면 좋겠다고 했죠. 정말 수차례 회의를 하고 방향성 다시 잡으면서 고민했어요. 마지막 조합회의 날 나영이 '카페마을'이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을 홈페이지에 공유하고 사람들한테 의견 받았는데 2시간도 안되는 시간 안에 "공간을 지키자"는 의견을 50명 넘게 올려주고. 그래서 몇몇 조합원의 마음도 움직였던 거 같아요. 결국 이사장은 나갔지만요. 우리가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지속가능성을 위해 후원의 밤을 해보자는 의견도 나오고, 모르는 사람한테 팔고 싶지 않으니 수익이 나지 않아도 이 공간을 지키자고 남은 사람들이 계속 고민하고 마음 다잡고 했던 거 같아요. 성공과 실패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다시 설계하자고 하고. 여전히 갈등 요소가 많이 남아있지만 '협동조합 카페마을'을 지켜나가기로 했어요. (연희)

<모기동 공동체>의 중요 거점공간인 '협동조합 카페마을'을 둘러싼 이 갈등과 싸움은 <모기동 공동체>의 존폐와도 연결된 것이었다. 협동조합 이사장은 자기 자신의 권한을 강조하며 카페를 없애자는 주장을 했지만 사람들은 그 위계질서에 저항하며 숙의의 과정을 가졌다. 일부가 이사장의 의견에 동조하며 숙의의 과정은 난항을 겪었지만 여러 차례 논의를 거듭해 결국 위원장만 나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카페마을'을 함께 지켜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수익이라는 일반적으로 주어진 목표와 위계질서를 거부하며 자유로운 논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며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새로운 방향성을 함께 제시한다. 갈등과 의견충돌이 발생했지만 갈등을 통해 무력화되거나 경합하는 판 자체가 깨지지 않았다는 차원에서 이것은 '아고니즘의 정치'[30]와 연결된다(조주현, 2018). 특히 '카페마을' 조합회의 마지막

30) '아고니즘(agonism)의 정치'는 아렌트 등에서 시작하여 90년대 숙의민주주의 이론가들을 거쳐 본격적으로 제시된 사회적 실천이론이다. '아고니즘의 정치'는 정체성 정치를 비판하며 과정 자체를 민주정치의 핵심으로 보는 대안적 정치방식이다. 아고니즘은 상호 투쟁적이면서 동시에 상호 격려적인 관계로 조주현(2018)은 '아고니즘의 정치'를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서로 토론하고 설득하며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이라고 말한다. 특히 조주현은 구성원의 실천적 수행능력을 강조하는데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날 조합원들은 동네 사람들에게 의견을 받았다. 동네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카페마을'을 지켜달라고 의견을 냈고 조합원들은 동네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 공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조주현(2018)의 '아고니즘의 정치'뿐만 아니라 배은경(2016)이 주장한 '스타디움의 정치'[31] 또한 이 상황에 적용될 수 있다. 협동조합을 깰지 말지에 관한 논의를 둘러싸고 조합원들끼리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 카페마을'과 연결되는 동네 사람들 모두 이 의사결정 과정을 바라보고 있고 그것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과정들이 '카페마을' 폐지 국면에서 작동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카페마을' 운영에 대한 조합원들의 생각은 너무 다른데 골은 깊고. ('카페마을' 없애는 것에) 앞장서서 반대했어요. 해보고 싶은 것을 본격적으로 해보지 못했잖아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지금부터는 각자 하고 싶은 거 문 닫을 때까지 하고 싶은 거 하자. 우리 인건비 못 받아도 해보고 싶은 거 하자" 그랬'어요. 정말 여러 차례 회의에 회의를 거듭했어요. 수익구조를 쫓기보다는 하고 싶은 거 하고 공간도 공유하고. 지금은 훨씬 더 편한 마음으로 해요. 몸은 훨씬 더 힘들지만. 그전에는 주 1회 반나절만 나갔었는데 지금은 주 2회 나가고 격주 토요일에 그림책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중략) 협동조합 초기에 카페로써 수익을 내는 것에 집중할 때보다 지금이 재정적으로 더 힘들지만 서로의 생각을 정말 터놓고 커밍아웃한 사이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더 단단하고 서로 지지하고 있죠. 저도 지키자고 말한 게 있어서 더 책임감 있게 운영하고요. 여긴 공동책임이니까 카페 같이 안 보여도 계속하자 하고 있어요. 지금의 관계들이 훨씬 투명하고, 사람에 대한 강한 끈들이 생겨서 훨씬 더 마음 편하고 재미있어요. (현정)

'협동조합 카페마을' 사람들은 긴 고민과 숙고를 통해 스스로 새로운 운영방향

토론해가며 사회적 규범의 변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조주현, 2018).

31) '스타디움(stadium)'은 서양 고대의 무대 혹은 경기장인 '아레나(arena)'를 둘러싸고 있는 원형극장 구조를 뜻하는 말로 배은경은 다양한 이슈를 둘러싸고 쟁투를 벌이는 장(場)으로서의 정책 아레나뿐만 아니라 이것을 보고 목소리 냄으로써 정책 결정과 과정에 영향을 주는 시민들의 위치까지 포함시켰다. 스타디움에는 쟁투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것을 보고 있는 다수 사람들까지 포함되며 쟁투하는 사람들은 다수를 의식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유지하는 장을 의미한다(배은경, 2016).

을 정하게 된다. 수익을 추구하는 방식에서 공간을 공유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변경했으며 조합원들이 더 시간을 투자해서 함께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주어진 목표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닌 평등한 구성원들 간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새로운 규칙과 자율성을 확보해 나가는 실천을 하고 있다는 차원에서도 '아고니즘의 정치'와 연결된다.

<모기동 공동체>는 판을 뒤집기보다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면서 판을 새로이 만들어간다. 이들은 사업 별로 함께 참여할 사람들을 모으고 방향성을 함께 설계하는 열린 논의 구조를 만들지만 숙의와 아고니즘의 과정은 새로운 사람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모기동 공동체>의 특성상 언제나 그 원칙이 재확인되어야 하고 새롭게 갱신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은과 소현의 다음 이야기는 새로 들어온 구성원에 의해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공동체가 반응한 방식을 보여준다.

> 문화예술 교육으로 사업에 참여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 분이 갖고 있는 생각이 너무나도 전형적이고 형식적이었어요. 저희는 정형성을 깨는 작업을 하고 싶어 모인 사람들인데 말이죠. 그분께 기존에 틀을 깨보고 균열 내고 새로운 실험을 해보자고 하고 설명도 했지만, 그분 입장에서 잘 이해가 안되니 "나도 너희가 하는 거 하겠다는데 왜 나보고 다르다고 말하냐"고 하시고. 결국 간격이 좁혀지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조심스럽게 에둘러 이야기하고 모임을 끝냈는데 그분이 상처를 받은 거 같아 끝나고 몇 명이 남아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졌죠. (정은)

> 기존의 있던 사람들이 자기 활동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우리가 경험이 많지만 다 같이 모인다는 것은 평등한 것을 추구하는 건데, 강요 아닌 강요를 한 것 같아요. 새로 오신 분의 지향이 좀 다르긴 했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정해놓은 대의와 이상적인 테이블을 가지고 있었던 거 같아요. '우리는 좋은데 이분은 왜 이러지?'라고 생각하는 게 폭력인 거죠. 신경 쓰지 못했고, 알게 모르게 격차가 생겼고. 약간 공격하는 분위기에서 상처를 주고받은 것을 인지하고 정말 며칠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결국 그분에게도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 모두에게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 공론화 과정을 만들었어요. 조심스럽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인정하는 태도와 터놓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그분도 노력했고. 지금도 조심스럽게 또 아픈 사람을 그냥 두지 않는 방식으로, 갈등을 그냥 봉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

어요. (소현)

연구 참여자들의 언급은 이런 갈등이 왔을 때 <모기동 공동체>가 선택했던 대응의 양식을 보여준다.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거나 다수의 생각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고민하고 함께 논의하는 동시에 차이가 있는 사람이 충분히 기존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며 갈등을 그냥 봉합하지 않고 공론화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이들은 숙의와 설득, 공론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다른 목소리를 포용하고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참여한 개인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되돌아보고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갈등과 싸움을 겪은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 조금 더 성숙된 마음과 자세로 모기동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부단한 노력과 반성을 통해 마을에서의 활동이 기존의 틀과 다르게 작동하도록 새로운 과정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다. 차이를 인정하며 타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열린 구조하에 소통하며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려는 이들의 방식은 민주주의의 과정이며, 권력과 정형화된 것에 굴하지 않고 문제를 공론화하며 변화를 실천으로 이끄는 것은 페미니즘 가치와도 연결된다.

제 2 절 지역성에서 공공성으로

본 절에서는 먼저 <모기동 공동체>의 활동과 성과가 어떻게 마을의 자산이 되는지 공유화의 과정을 통해 살펴본다. 그 다음으로는 <모기동 공동체>의 관심이 양천구라는 지역으로 확장되며 양천구의 카운트파트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펼쳐가는데 이들의 활동 내용과 의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1. 동네에서 공동의 자산 만들기: 커먼즈로서의 〈모기동 문화예술공동체〉 활동

<모기동 공동체> 사람들은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과 사람들과의 관계맺음을 통

해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들이 만들어내고 공유하는 다양한 활동과 공동의 가치들이 마을과 지역에 공유되며 고스란히 축적된다. 두 명의 기획자가 심심해서 시작했던 마을축제 '모기동 궁여지책'은 마을의 대표축제가 되었다.

> 2011년에 모기동 작은 골목에서 시작했던 마을축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커져갔어요. 축제가 정례화 되면서 양화초, 양동중, 영일초까지 참여하게 되었고 5,000명이 모이는 큰 축제가 되니까 구랑 주민자치회에서 관심을 보이셨어요. 매년 축제를 함께 기획해왔고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했지만 어느 순간 조금 내려놓고 싶어졌어요. 마을축제는 지속적으로 가져야 할 콘텐츠지만 우리가 없으면 못하는 축제도 아니고 저희도 전형적인 마을축제의 포맷보다는 좀 더 재미있게 우리 방식으로 해보고 싶었고. 주민자치회에 축제를 넘기고 저희는 우리밖에 할 수 없는 축제를 기획했죠.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모기동 용왕산만이 가지고 있는 느낌과 감성을 전해줄 수 있는 새로운 예술축제를 기획했어요. (은지)

모기동 축제는 개인의 일회적 사건이나 좋은 추억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고 지속화되면서 마을에 축적된다. 특히 누구에게나 참여가 열려있고 스스로 축제의 주체가 되어 기획하고 함께 만들어나가는 공유화(commoning)의 실천을 통해 마을과 지역의 커먼즈(commons)가 되어갔다. 이들은 직접적으로 커먼즈라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들은 자발적으로 축제를 공유하고 있으며 마을 전체가 지속적으로 활용되어야 자산이라고 이해하는 점에서 커먼즈와 동일하다. 두 명의 기획자에서 출발한 골목의 작은 축제는 5,000여 명이 공유하는 거대한 무형의 자산이 되었고 "우리가 없으면 못하는 축제가 아닌" 마을과 지역의 공동의 자산으로 남게 되었다.

> 축제는 사람들이 화합하는 힘이 되었지만 축제가 커지고 관심 갖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 "축제를 넘기고 다시 옛날 모임처럼 우리끼리 재미나게 놀자"해서 핵심에서 빠지게 된 거죠. 우리는 공방 사람들끼리 모이고 조그만 아트마켓을 열고 아트마켓이 끝날 때쯤 조용하게 인디밴드 연주하고 이런 게 좋았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마음 편하게 놀고 하는 게 큰 마을축제보다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죠.

> 마을에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그냥 자꾸 ”이거는 아니다“라고 따지면서 싸우는 거보다 그 시기에 더 좋은 방식으로 찾아가는 게 더 좋다는 생각했죠. 그래서 더 작은 축제도 만들고요. (성환)

주민자치위원회와 축제협의체가 축제를 주도하게 되면서 축제는 공식적으로도 지역의 자산이 되었다. <모기동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사람도 사용하고 참여하며 모두가 주인이 될 수 있는 지역의 축제가 되었다. 특히 초기에 축제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주도권을 내려놓음에도 축제는 유지되었는데, 이들은 거대행사가 된 축제의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자신들의 크레딧을 요구하지 않았다. 성환은 “이거는 아니다”라고 싸우기보다는 우리끼리 마음 편히 재미있게 노는 것을 택했다고 말하는데 이들의 선택은 모기동의 성격을 반영한 새로운 문화예술축제를 별로도 만들어 나가는 것이었다. 모기동의 생생함을 창의적으로 살리고 또 “재미나게 놀” 수 있는 작은 축제를 만드는 것은 모기동에 살아 있는 또 다른 무형의 커먼즈를 만드는 행위로 해석된다.

<모기동 공동체>의 커먼즈의 형태는 무형의 자산만 있는 것은 아니다. ‘협동조합 카페마을’은 개인의 공간으로 시작해 몇몇의 독점 자산이 아닌 공동체가 공유하는 공간으로써 커먼즈가 된다. 2018년 ‘협동조합 카페마을’은 수익구조와 방향성에 대한 의견 차이로 존폐위기에 놓이는데 사람들이 이 곳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과정과 그 이후의 운영을 보면 이것이 어떻게 커먼즈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 나영이 SNS에 “ ‘카페마을’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문을 닫을 상황이다. ‘카페마을’을 닫았으면 좋겠는지, 아니라면 문을 닫지 않을 수 있게 힘을 보태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올렸어요. 메일도 돌리고. 2시간도 안되어서 50명이 넘는 사람이 구체적인 답변을 줬어요. 마을 사람들이 의견을 준 글들을 나영이 우리가 회의를 하기 전에 프린트로 뽑아 줬어요. “마을에서 중요한 공간이다”, “너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게 닫고 싶다고 닫을 공간이 아니다”, “이 공간 자체가 많은 사람들을 연결하고 이어갔으면 좋겠다”, “우리의 공공공간으로 남아줬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50장이 넘는 페이퍼로 받았어요. (현정)

운영상의 이유로 '카페마을'을 없어지자고 했을 때 이 공간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준 사람은 '협동조합 카페마을'의 구성원만은 아니었다. 나영은 동네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었고 50명 정도가 이 공간이 남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한 것이다. 동네 사람들은 '카페마을'을 마을에서 중요한 공간이자 '우리'의 공간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협동조합 카페마을'을 사적 카페나 수익성의 모델로 보기보다는 조합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넘어선 동네 사람들까지도 공공의 자산 즉 커먼즈로 이해까지 있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현정은 '협동조합 카페마을'이 갖는 공공성에 다시 생각하게 된다.

> 예전에 조합원들이 후원회를 만들어보자 했었을 때 우리 스스로가 "그냥 카페일 뿐인데, 사적인 카페일 뿐인데 무슨 공공성이 있어서 후원 회비를 받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처음부터 "여기가 마을공동체 공간이자 공공성을 가지고 있어요"라고 선언하고 활동했으면 사람들이 2시간 만에 이 공간의 소중함을 그렇게 써주지 않을 거 같아요. 그런 선언 없이 자기 활동을 했을 뿐이고. (중략) 이게 그렇게 될 때까지는 그 저변에 카페 '숙영원' 때부터의 활동이 켜켜이 쌓여 있었던 거예요. 수다를 함께 떨고 일이 벌어졌던 공간, 다양한 문화예술로 사람들과 관계맺음을 했던 공간, 축제도 하고 밥도 먹고 함께 영화도 봤던 우리의 아지트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이 존재하는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쌓아온 것들은 있는 이 공간을 공이라고 보는 거죠. (현정)

현정은 카페 '숙영원'에서 '카페마을'로 이어지는 공간성이 커먼즈로 해석되는 축제와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일구어온 출발점으로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고 이해한다. '카페마을'은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고 '선언'하지 않지만 카페 '숙영원' 때부터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이 축적된 공간이다. '카페마을'은 모기동 사람들의 활동의 근거지이자 일과 관계가 생산되는 공간으로 이해되는데 축제와 문화예술 활동이라는 커먼즈가 펼쳐지는 공간이자 공유공간 그 자체로 커먼즈이다. 이런 관점에서 '카페마을'은 누구에게나 '개방되고' 적극적으로 '공유되는' 공동체의 공공의 자산으로 공공성 개념을 확보하게 된다.

2016년 '협동조합 카페마을'을 비롯하여 3개의 협동조합이 출발할 때부터 공공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서로에 대한 관심과 돌봄, 지역 사회 문제 해결 등 공동의 목적을 위해 설립되었으나 일부 개인의 이익 대(對) 여럿의 이익이라고 단면적으로 생각해 온 부분도 존재한다. 그렇지만 여럿이 함께 협동조합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오면서 사익이나 개별화된 이익이 아니라 공공선이나 공익에 대한 기대는 여러 사람에게 공유되어 있었다.

> 마을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건 자신의 당장의 이익도 필요하지만 나와 주변이 함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해요.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공익이 망가지는 것 같거든요. 저에겐 '주택협동조합'이 이익으로 작용했죠. 안정성도 있고. 그러면서도 조합원들도 함께 이익이 되고. '모기동마을학교'도 마찬가지에요. 함께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주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논의하는 건데 이게 100% 남을 위한 것만은 아니거든요. 공공성이 나에게 불이익이 아니라 모두가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면 좋을 거 같아요.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요. (경희)

> 저희가 아직까지는 경제적 이익이 없어요. 돈을 더 많이 출자해야 하고 보증을 서야 하는 거. 어떻게 보면 미친 짓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는 일이에요. 협동조합의 7원칙 중 '지역사회에 기여'가 있죠. 우리는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는 사업체이면서도 결사체라고 볼 수 있어요. 협동조합을 하면서 함께 하는 사람들끼리 이런 공공의 목적을 계속 되새기고 열린 구조로 논의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우리가 공동의 목적을 향해 간다, 같은 방향을 보고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어요. 그럴 때면 내가 혼자가 아니고 외롭지 않고. 같은 방향을 보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은 외롭지 않은 거 같아요. (경희)

경희는 주택협동조합과 '모기동마을학교 사회적협동조합'을 공공성의 언어로 이야기한다. 주택협동조합은 조합원에게 이익이 되고 '모기동마을학교'는 비영리 사회적 협동조합[32]으로 운영되며 조합원에게 수익이 되지 않지만 공동체를 넘어 지역사회를 돌보는 실천으로써 마을학교 활동 자체가 공유재의 기능을 하는 것으

로 보여진다. 그러나 '협동조합 카페마을'에서 보듯이 협동조합이라는 틀거리 자체가 커먼즈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모기동 공동체>가 위치한 공간성과 인적네트워크, 이들의 운영원리에 따라서 운영해온 역사 속에서 이 협동조합 운영의 내용이 커먼즈로 성공할 수 있을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모기동 공동체> 활동이나 이들의 성과를 커먼즈로 운영하고자 하는 이들의 의지는 모기동 마을기금의 활용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모기동 사람들은 2012년부터 본인들의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도 꾸준하게 마을을 위해 기금을 모아왔는데 2020년 코로나 19라는 전세계적인 위기가 닥치게 되고 모기동 내 작은 공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자 처음으로 마을기금을 사용하게 된다.

> 마을 전체를 위한 마을 기금을 적립하고 있었어요. 2012년 축제부터 마을 기금을 모았던 것 같아요. 참여비, 셀러 판매 기금의 10%씩 모아서 마을 기금으로 적립하고 상생프로젝트나 디자인 비 같은 것도 적립하고. 때때로 협동조합 운영이 힘들 때도 있었지만 마을기금에 손대지 않았어요. 정말 힘들 때도 계속 적립했고요. 우리 배꼽을 채우려는 게 아니라 공통의 감각과 철학으로 지켜온 기금이니까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생겨서 기금 일부를 처음으로 쓰게 됐어요. 다 같이 논의하고 결정했죠. 사업도 축제도 어려운 이 시기에 '아델의 청소년 문화공간 청청청', '지역아동센터 나무와 숲', '협동조합 카페마을' 등 마을 공간에 50만 원씩 재난 기금으로 일부 지원했죠. 지금도 계속 적립하고 있어요. (은지)

모기동 사람들에게 마을기금은 개인이 아닌 공동체 전체를 위한 공공의 자산이다. 은지는 "우리 배꼽을 채우려는 게 아니라" "마을 전체를 위한"다고 말하는데 이들이 마을에서 더불어 살기를 얼마나 중요한 가치이자 철학으로 여기는지를 보여준다. 이들의 다양한 활동의 성과가 기금으로 축적되어 공동체에 속한 개인만의 이익이거나 공동체 자체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가 속한 마을 전체의 이익이 되는

32) 우리나라는 2012년 12월 1일부터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해졌다. 일반 협동조합은 영리를 목적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 주민들의 권익 및 복리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이타적 동기에 기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김영빈, 2015).

것 자체가 커먼즈를 보여주는 정확한 사례라 하겠다. 이들 스스로는 커먼즈라고 말하거나 정의 내리려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은 공공성의 개념을 다시 생각하는 것을 제안한다.

>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공공성을 폐쇄적으로 해석했던 거 같아요. 그동안 공공성의 대표는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이었잖아요. 그것들이 공공성의 전부였잖아요. 그동안의 공공성이 정부나 공공기관으로 해석되어 왔고 그래서 예전에 공공미술 할 때도 '공공'을 고민해왔던 거 같아요. '공공'을 정의하기가 어려웠어요. 뭔지 모르지만 그래야 하는 당위성 같은 게 있고. 한 명이라도 많이 수혜해야 공공적인 일을 한다고 착각하며 살았어요. 지금 일상으로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공공에서 하는 로컬 거버넌스라고 할 때 참여하는 100, 200명의 목소리가 다 담겼는가 하면 아니에요. 실제 거버넌스를 움직이고 중심을 가져갔던 사람은 굉장히 극소수죠. 극소수들이 싹 공공이라는 이름을 달고 이런 쇼를 벌이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이 전체 구성원의 목소리가 얼마만큼 반영되고 수렴되었는지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 수 없죠. 저희는 적게 10명이 모여도 10명의 목소리가 다 드러나죠. 그게 어떨 때는 차이로 인해서 다투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그 10명의 목소리가 다 드러나서 의견을 모아낸 건데 이런 게 더 공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을까요? 적어도 100명이 가짜로 앉아 있는 자리보다는. (연희)

> 민간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적인 일, 이건 공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돼요. '플러스마이너스1도씨'를 비롯하여 '카페마을' 등 모기동의 활동을 보면 민간에서 일을 하지만 공공기관이 할 수 없는 더 많은 문화예술 활동을,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하고 있어요. (현정)

연희와 현정의 이야기는 공과 사의 근대적 이분법에 매몰되어있는 공공성에 대한 사고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들은 국가나, 정부 차원이라는 형식에 집중해 내용적인 공공성을 간과하는 것과 공공기관과 민간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으로 무비판적으로 재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보았다. 실제로 최근들어 공/사 이분법에서 벗어난 공공성의 개념 재구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斎藤, 2009; 정성훈, 2013). 공과 사는 고정된 개념은 아니며. 과거에는 공공성을

국가적인 것(official)과 동일시해온 경향에서 공동의 이익(commons)과 개방성(open)으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 관이 주도하지 않아도 공공적일 수 있다는 시각이 나타난 것이다. 이들은 국가적 공공성이나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나 공공성의 내용에 주목하고 실제 사람들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공공성을 채우는 작업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여기 나타난 커먼즈의 개념과 공공성에 대한 새로운 사고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생각되어야 할 공공성의 함의를 제시한다. 모기동 사람들은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했고 '우리'들을 거창하게 '선언'하고 싶어하지 않고 공공선과 공공성에 대한 목표를 내세우지 않았지만 수년간의 활동을 통해 새로운 공공성의 개념을 공유하고 있고 기꺼이 자기들의 성과를 공유재로 만들고 함께 나누고자 한다. 이들의 이야기에서 관이라던가 여러 사람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것이거나 공공성의 영역에 오히려 방해되는 것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잦은데 그것은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새로운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시민들의 활동이나 일상에 뿌리박지 않고 정책 주체의 의도에 의해 작동된 것과 관련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모기동 공동체>에서 발현되는 공공성의 사례는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도시재생 등의 사업에서 시민과 일상을 중심의 공공성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2. 지역성에 대한 관심과 심화: 양천구와 골목

<모기동 공동체>는 함께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졌는데 그 관심은 모기동이라는 동네와 마을의 공간성을 넘어서 양천구로까지 확장된다.

> 모기동에서 활동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네트워크를 쌓아가다 보니 양천구 문화예술이 어떤지 궁금하더라고요. 문화자원은 얼마나 되고 사람들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그런데 양천구에서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예술가도 눈에 걸리지 않고 문화자원이나 사업도 딱히 없는 것 같고. 이런 아쉬움과 문제의식으로 2018년부터 'N개의 서울' 사업을 운영하게 됐어요. '섬처럼 존재하다 사라지지 말자'는

생각으로 양천구 단위의 문화예술의 판을 벌여보려 했던 것 같아요. (연희)

양천구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인프라의 문제와 이 문화정책의 빈약함,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는 분배되지 않는 문화행정 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것도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고 또 뭐가 더 필요하고 뭐가 더 문제인지를 이야기들을 자꾸자꾸 끄집어 내는 작업들을 하게 됐죠. (정은)

모기동 사람들은 양천구에서 운영되는 문화예술사업이나 정책, 지원, 인프라 등이 타지역에 비해 부족한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게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들의 선택은 양천구의 카운트파트[33]가 되어 2018년부터 서울문화재단의 'N개의 서울' 사업을 운영하게 된 것이었다. 이들은 "섬처럼 존재하다 사라지"기 보다는 "문화예술의 판"을 깔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며 양천구의 의제를 모으고자 했다.

이들은 '느슨한 네트워크 양천'이라는 이름으로 크고 작은 반상회와 모임을 만들어 다양한 예술가들이 만나 양천구의 의제를 발굴하고 공론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 참여한 예술가와 단체들은 여러 차례의 소통과 공론장에서 양천구 문화예술에 대해 스스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정보공유 및 판로개발을 위한 플랫폼 개발, 지역의 공공시설 개방 및 공유, 문화예술지원 예산 확보, 학교와 마을 연계, 일거리 창출 등이 제안되었다.[34]

양천구 사람들과 모기동 공방 사람들이 자주 만나고 모이면서 '느긋한 시장' 같은 아트마켓도 함께 할 수 있게 된 거죠. 협력의 기회를 통해 스스로 대안들을 만들 수 있게 되고. 또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 뭐가 필요한지 이야기하게 되니까 그게 또 공동의 의제가 되고. 공론의 장을 만든 것도 이런 것을 조금 더 넓혀서 양천구나 양천문화재단에 "이런저런 거 필요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공론장을

33) 'N개의 서울' 사업은 자치구 대상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으로 사업신청대상은 자치구 또는 자지구 문화재단이거나 민관 거버넌스 형태였다. 2018년 당시 양천구는 양천문화재단을 발촉하기 이전으로 '플러스마이너스1도씨'를 주축으로 <모기동 공동체>가 양천구와 거버넌스 형태로 사업을 운영한다.

34) '플러스마이너스1도씨'(2018),『지역이 예술이다-space에서 place로』.

통해 다양한 의제를 발굴하는 것이 일종의 일상과 정책을 조금씩 만나게 해주는 작업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정은)

2018년에 나왔던 의제들을 2019년 사업 설계할 때 반영하려고 노력했죠. 정보공유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홈페이지는 아직 못 만들었지만 '양천 문화예술 정보플랫폼'이라는 카톡방을 먼저 개설했고 90여 명이 넘는 양천구 문화예술인들이 정보를 주고받고 있어요. 예술가의 자생력을 위해 판로 개발을 위한 마켓 형 축제도 만들었고 스스로 모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요. '카페마을' 공간도 양천구 예술가들을 위해 공유하고 있어요. (은지)

모기동 사람들은 양천구 예술인들의 생각을 들으러 다니고 자꾸 문제를 끄집어내 의제를 만드는 공론화 작업을 하며 일상과 정책의 가교 역할을 하였다. 이들의 이런 활동은 양천구의 문화인력과 자원을 발굴하고 엮고 함께 활동할 문화주체를 발굴하는 중요한 작업으로 해석된다. 다양한 주체들이 만나고 협업하면서 새로운 네트워크가 형성되었고 라운드테이블과 공론장을 통해 의제가 발굴되었다. 공론장을 통해 나온 의제들은 적극적으로 정책과 사업에 반영되었는데 열린 구조와 쌍방향 소통, 상향식 실천 과정이라는 차원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었다. 또한 참여자들이 문화예술 환경, 창의성의 표현,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에서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하는 것은 문화민주주의의 실천과도 연결된다.

2018년에는 양천구의 다양한 문화예술가들과 네트워크를 만들었다면 2019년에는 '공동운영단'과 함께 고민하며 운영했죠. 지역 문화예술 네트워크의 방향을 함께 기획하고 운영할 '공동운영단'이라는 자리를 공식적으로 열었죠. 사업 영역도 확장되었고 새롭게 참여하고 싶은 사람에게도 열어주고 싶어서 블로그를 통해 공개 모집했죠. 양천구에 살거나, 활동하거나 활동해보고 싶은 예술가 등 누구나 참여 가능했어요. (연희)

이들은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과 힘을 독식하기보다는 '공동운영단'과 함께 운영

을 한다. ‘공동운영단’은 공평하고 수평적으로 운영구조로 ‘공동운영단’의 참여기회는 기존 사람이거나 특정 몇몇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블로그를 통해 모두에게 개방되었다. <모기동 공동체> 사람들은 예산이나 모든 권한을 혼자 갖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분배해서 운영하고 양천구라는 큰 지역으로 공동체의 가치를 확장하지만 다시 일상과 더욱 밀착된 동네로의 회귀를 계획한다. 일반적으로 예산과 활동의 영역이 넓어지면 권력화되기 쉬운데 이들은 2019년 5월 새로 발족한 양천문화재단에 그 역할을 넘겨주고 본인들이 잘하는 밀착된 관계, 일상의 터전인 영역과 골목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다.

> 이제는 사람들도 조금씩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작고 큰 네트워크도 눈에 걸리고. 양천문화재단도 발족하고. 이제 기반이 많이 생겨나서 우리는 다시 동네에 돌아와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확장의 시간을 가졌다면 이젠 다시 우리 에너지를 모으고 다시 작게 사람들 안으로 쓰고 싶어졌어요. 뭔가 점령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거나 계속 확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양천구의 판이 열렸다면 우린 다시 우리의 자리로 가고 싶어요. 욕심과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아래로 안으로 골목으로 사람으로 작은 관계로 가는 게 우리죠. 그래서 골목문화재단을 만들고 싶어졌어요. 삶 문화정책이 필요해서요. (은지)
>
> 예술이 우리 삶 속에 깊게 스며들기 위해서는 좀 더 촘촘한 ‘삶 문화정책’이 필요하다. (중략) 사업적 필요를 넘어 삶의 필요를 나누는 인간적인 일들, 인간적인 장소들이 곳곳에 존재하며 오랫동안 유지되다 보면 지역의 문화정체성이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는 사람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자라나고 깊게 새겨지지 않을까.
>
> 출처: ‘플러스마이너스1도씨’(2018),『지역이 예술이다-space에서 place로』.

거창한 목표보다는 “다시 우리의 자리로 가고 싶”다고 말하는 은지의 다음 언사는 <모기동 공동체>의 정체성을 잘 보여준다. “아래로 안으로 골목으로 사람으로 작은 관계로 가는 게 우리죠”라는 말을 통해 이들이 양천구로 영역을 확장하고 양천구의 카운터파트가 됐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작은 골목과 작은 관계로 돌아가고 싶은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동네에 밀착해 삶의 문화를 함께 고민하고 지

원하는 '골목문화재단'을 상상한다. 골목문화재단은 사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일상을 살다가 자연스럽게 사업이 되는 것을 꿈꾸며 삶의 장소와 사람을 지원하는 곳으로 그려지는데, 여러 기초, 광역기관들이 등장하지만 일상과 현장으로 닿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예술이 삶 속에서 깊게 스며들기 위해서 좀 더 촘촘한 '삶 문화정책'이 필요하다는 이들의 생각을 잘 보여준다.

<모기동 공동체>는 이들의 정체성과 공동체의 가치를 양천구로 확산해서 실천한다. 양천구로 공간성, 지역성이 확장되었지만 여전히 일상과 문화예술, 관계에 대해 놓지 않으며 <모기동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역과 결합해내고 있다. 크고 작은 소통의 장을 만들어 다양한 의제들을 발굴하고 공론화하는 판을 벌이며 <모기동 공동체>에서 행했던 민주주의의 실천을 양천구에서도 확장해 진행했다. 이들이 더 많은 예산을 다루고 큰 실적을 낼 수 있는 양천구 중심의 활동에서 마을과 동네로 활동의 방향을 다시 전환하는 것은 초심을 잃지 않은 행위로 주목할 만하다. 양천구에서 활동의 내용과 '골목문화재단'의 상상은 일상과 삶에 가까운 정책을 펼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제 5 장 결 론

본 연구는 마을공동체 사업이 구체화되고 시민에게 주도권을 돌려주려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개념이 활발하게 소개된 201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지역공동체 활동이 갖는 의미와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2010년 즈음 태동하여 현재까지 성장·발전해 온 <모기동 문화예술공동체>[35]를 사례연구 하였다. '동네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박한 마음에서 출발한 여성들의 문화예술 활동이 여러 성과들을 낳으면서 탄탄한 지역공동체의 출현으로 이어졌고, 협동조합 등 법적·제도적 틀거리를 만들고 자신들의 활동을 지역의 커먼즈로 축적해가며 지자체 정책의 카운터파트로까지 성장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모기동 공동체>가 등장하고 성장한 과정을 정리하고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고 공유되어 여전히 지켜지고 있는 독특한 운영 원리를 밝혔다. 이 안에서 지역공동체의 주체로서 여성들이 무엇을 경험하고 공유하며, 이들이 공동체를 만들고 확장해 나간 방식은 어떠했는지를 이들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읽어내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였다. 이 공동체를 만들고 기틀을 잡은 주체가 압도적으로 여성들이었다는 점, 그리고 이 공동체의 모든 활동이 '문화예술 활동'으로 이뤄져 왔다는 점은 <모기동 공동체>의 성과와 활동방식을 검토하는 두 개의 착안점이 되었다.

<모기동 공동체>는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졌고 현재 주축이 되는 사람들도 대부분 여성이지만, 참여자의 성별을 여성으로 한정하거나 명시적으로 성평등을 표방하는 단체도 아니다. 그러나 이들의 공동체 형성과 운영방식, 외연이 확장됨에도 지속되는 평등한 공동체로서의 자발성은 페미니즘과 시민민주주의의 잠재력을 분명히 드러낸다. 그 속에는 현대 한국의 젠더화된 사회구조 속에서 스스로 삶의 주체이기를 추구하는 동시에 일상 속에서 연대하고 지지하는 관계를 중시해

35)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모기동 문화예술공동체>라는 명칭은 이 공동체의 공식 명칭이 아니라 연구자가 붙인 것이다. 이 공동체 사람들은 공동체의 존재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공유하고 있지만 스스로 공동체에 이름을 붙이는 것을 경계해 왔다. 이들은 공식명칭을 제정하기보다는 스스로를 <모기동> 혹은 <모기동 사람들>이라고 부르며, 이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온 여성 주체들의 모습이 녹아있다.

본 연구는 마을 위의 살아있는 지역공동체로서 <모기동 공동체>를 주목하고, 공동체의 형성과정과 현재의 활동이 갖는 의미를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재구성함으로써 도시재생이나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함의 또한 찾아보고자 했다. 신자유주의 시대 격화된 현대인의 개인화와 불안은 마을과 공동체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켰고 도시재생 등과 관련하여 많은 지역에서 정책화되어 작동 중이나, 특히 젠더 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한계가 지적되었다.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자의 대다수가 여성임에도 사업의 대부분이 성맹적으로 설계되어 이들의 위치나 조건이 누락되었다는 지적은, 시민주체성이 마을공동체 사업의 주요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책사업화에서 이것이 오히려 주변화되었다는 지적과 연결된다. 마을공동체 사업의 시민주체성이 '마을'이라는 공간성 위에서 지역공동체를 꾸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체로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면, 실제 지역에서 일상을 운영하는 많은 여성들과 이들의 젠더화된 삶의 조건이 누락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시민주체성의 도외시를 드러내는 징표일 것이다.

본 연구는 <모기동 공동체>의 주축을 이루는 여성들을 심층면접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공동체의 활동을 읽어냄으로써 지역 주민을 성맹적 존재로 보는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였다. 또한 '모기동'이라는 이름이 이 공동체가 위치한 지역명칭에서 나온 데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이들의 활동이 본질적으로 지역공동체 활동으로 이뤄져 온 것에 주목하였다. 모기동 사람들의 이야기에서는 '마을', '일', '동네 사람'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이들이 이 표현 속에 담아내는 것은 이들이 모여 사는 지역의 공간성과 그 공간 위에 얽혀 살아가는 사람들, 일상과 돌봄을 공유하는 관계망이다. 이들이 수년간 활동해오는 과정에서 공동체의 공식명칭 하나 제정하지 않을 정도로 자발성과 유연성을 중시하는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구성원 사이에 '우리'라는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 그리고 그 '우리'가 일하는 방식과 원칙이 분명하게 공유되고 있는 것은 이에서 연유한다. 구체적인 공간성과 생활 네트워크의 결합이 이 공동체의 핵심에서 구심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 <모기동 공동체>의 활동 내용이 압도적으로 '문화예술'을 둘러싸고

이뤄져 있어 모기동 사람들의 주체적인 문화예술 활동과 문화민주주의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든다는 점이다. 모기동 사람들은 모두 자신을 문화예술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 문화예술은 이들에게 오롯이 나 자신이 될 수 있는 계기이며, 그런 차원에서 가족이나 일상 속에 지워지기 쉬운 여성의 자아를 지키고 키워나가는 통로가 된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문화예술 활동이 고독한 예술가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의 문화예술 활동은 일상과 돌봄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쿵짝이 맞아서' 함께 하는 것이며, 따라서 본질적으로 출현적인(emergent) 것이다. 이들에게 문화예술이란 일상과 나 자신으로 출발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자 '우리들'의 관계망 속에서 작동하는 역동으로부터 발현되는 것이며, 따라서 누가 독점할 수도 없고 관계망 외부로부터 주어질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모기동 공동체>가 가진 자발적이고 비위계적이며 철저하게 민주적이며 공동체의 자율성을 지향하는 '우리의 원칙'은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활동 내용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자신들의 활동을 문화정책이 제공하는 다양한 사업 기회와 결합하여 지속하면서도 끊임없이 자신들만의 새로운 길을 모색해 온 과정은 문화예술에 대한 엘리트주의적 접근이나 관료적 접근을 타파하고 시민의 손에 문화예술의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는 문화민주주의의 이상에 맞닿아있다.

본 연구 결과의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문화예술을 매개로 지역공동체를 만들고 운영해온 여성 주체들의 경험에 주목하여 이들의 활동으로부터 새로운 민주주의의 등장을 살펴보았다. 시민을 단일한 존재로 보거나 시민 안에 다양한 차이와 위치가 존재함을 인식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의 개념을 공허하게 만드는데, 이는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이자 민주주의의 주체인 '시민'을 성맹적으로 파악해온 기존의 시각에 문제를 제기하고 '여성' 시민의 존재와 행위성을 가시화하는 의미를 지닌다. 여성주체를 비가시화하거나 공/사 이분법에 의해 사적 영역으로 몰아넣어 평가절하 하지 않고, 반대로 여성 주체들을 충분히 가시화하고 그 활동을 제대로 읽음으로써 페미니즘과 민주주의가 만나는 지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모기동 공동체>의 주된 참여자는 여성이고 삶의 맥락을 꾸준히 갖고 가는 개인이다. 각자 '일이 아닌' 일상을 살고 싶거나 '이름 붙일 수 없는 문제'를 겪은 사람들로 동네에 들어와, 자기 삶의 맥락을 버리지 않으면서 '나'로 존재할 수 있

는 공동체를 만났다. 여성 참여자들은 문화예술 활동을 하며 그것을 일로 해석하기도 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였으며 삶의 현장에서 자율성과 숙의민주주의, 아고니즘의 정치를 실현하고 커먼즈를 축적하면서 공동체 구성원이자 민주적 시민 주체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둘째, 본 연구는 일상의 맥락을 놓지 않은 채 문화예술 활동과 지역공동체 활동에 뛰어든 여성 주체들의 역량이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함을 드러낸다. 두 명의 문화기획자가 연 작은 카페가 협동조합이 되고 끈끈한 공동체로서의 성장을 견인한 것도 여기에 참여한 여성 주체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삶의 맥락에 대한 감각과 돌봄의 감각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공동체의 원칙으로 승인했기 때문이다. 여성 참여자들은 문화예술 활동의 주체이자 자기 삶의 주체로서 관계와 배려, 돌봄의 공동감각으로 함께 활동해왔다. 이는 페미니스트들이 제시해온 돌봄사회의 이상이 곧 우리가 생각하는 새로운 시민민주주의의 이상과 연결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박제화된 민주주의를 외치거나 사적・개인적 활동에 매몰되지 않고 삶의 현장성을 공간적으로도 확보하면서 자율성과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자신들의 활동을 지역의 커먼즈로 축적해 간 이들의 활동은, 공공성 개념의 재구성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를 낳았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공동체 구성원들이 가진 관계와 배려, 돌봄의 감각에 기반해서 가능했다는 것이다. 과도히 이념화된 공동체적 가치나 추상적인 원칙보다 관련된 사람들의 관계와 자율성을 소중히 하는 태도와 상호존중・상호의존이야말로 새로운 민주주의의 바탕이 될 수 있음을 <모기동 공동체> 사례는 잘 보여준다.

셋째, <모기동 공동체>의 활동은 '생활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한다. 공/사구분에 의해 배제되거나 과소평가 되었던 여성, 일상생활, 돌봄과 같은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재가치화함으로써 생활정치를 실천했다. 삶의 다양한 의제들을 자율적이고 숙의적인 정치과정을 통해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문제로까지 관심을 확장하며 제도적 틀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협력 파트너가 되어간 일련의 과정은 삶으로부터 정치과정으로 이어지는 방식을 잘 보여준다.

넷째, <모기동 공동체> 활동은 문화예술의 권리가 시민에게 있다는 문화민주주의의 개념에도 부합한다. 이들은 자기 내면과 경험에서 시작해 스스로 생활 속 문

화예술을 기획하고 창조해 나간 문화예술의 주체이자 생산자이다. 동시에 이들은 함께 마을축제를 커먼즈로 만들어갔으며 공론의 장에서 숙의와 열린 소통을 통해 문화예술 의제도 만들고 해결해 나간 민주적인 활동의 주체이기도 하다. <모기동 공동체>는 문화예술 전문가와 그것을 단순히 소비하는 대중이라고 하는 이분법을 가뿐히 뛰어넘는다. 그 대신에 개개인이 가진 문화예술적 역량이 지역공동체의 역동과 만나 아래로부터 만들어지는 문화예술적 성과와 그 축적이 시민적 커먼즈로 공유되는 문화민주주의의 과정을 보여준다.

다섯째, 이 연구는 <모기동 공동체>의 활동을 통해 커먼즈의 축적과 새로운 공공성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모기동 사람들은 즐겁기 위해 시작했고 특별한 목적을 선언하지 않았지만 결국 자신들의 성과를 커먼즈로 만들어 간다. 골목에서 시작한 축제는 마을의 대표축제가 되었으며 개인이 운영하던 카페는 모기동의 거점공간이자 공유공간으로써 공유재가 된다. 마을 전체를 위한 기금도 모았으며 공동체에 공유된 돌봄은 동네를 넘어 지역의 아이들을 함께 돌보는 실천으로 이어진다. 모기동 사람들은 적극적인 공유화(commoning)를 실천하며 이들의 성과를 개개인의 것이 아닌 공동의 것으로 만들어 간다. <모기동 공동체>에서 만들어진 커먼즈와 공공성에 대한 감각은 기존의 공공/ 민간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으로 공공성을 재단하는 것을 넘어 시민과 일상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공공성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한 발 더 나아가 <모기동 공동체>의 활동은 공공 정책적 측면을 배제하지도 않고 시민적 공공성을 놓치지 않으며 어느 한쪽에만 환원되지 않는 새로운 공공성의 영역을 개척해 나간다.

연구의 결과에 따른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공공거버넌스 사업 추진에 대한 제언이다. 실제 취지는 그렇지 않지만 마을공동체 사업을 비롯하여 공공거버넌스 사업은 단기간에 목표 달성을 위해 사람이 몇 명 참여하는지 양적 수치로 접근하는 성과주의와 그를 위한 위계적인 조직성이라는 한계를 보인다. <모기동 공동체>의 사례는 이 같은 행정적 관성을 넘어서야 할 이유를 보여준다. 참여하는 주체의 목소리를 얼마나 잘 반영되는지, 과정이 투명하고 민주적인지, 내용과 결과가 지역의 삶 속에 작동되는지를 담고 확인하는 작업이야말로 공공거버넌스 사업에서 가장 중시되어야 할 부분이고 그것이 중시될 때 공공

성의 새로운 개념이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문화예술 정책과 지원사업에 대한 제언이다. <모기동 공동체>가 성장한 것은 다양한 공적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서울시와 정부에서 제공한 많은 지원사업이 이들의 활동을 개인과 개인의 아주 작은 사적 네트워크나 단순히 재미있는 일 정도로 끝나지 않도록 외적인 구조를 제공했다. <모기동 공동체> 사람들은 이 구조를 활용하면서도 그 안에서 자신들이 발휘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율성을 이끌어냈다. 공적자금을 통해 사업의 스케일을 키우고 공공성의 개념과 끊임없이 연결되면서도 지원사업의 틀에 몸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고 이들에게 맞는 사업을 만들며 성장해 왔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주어진 언어나 규칙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규칙을 함께 만드는 자율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문화정책과 지원사업이 사업의 스케일, 다양한 사업의 가능성, 조직의 합리적 운영 등에 대해서 확실히 제공함과 동시에 참여자들의 문화적 역량이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의 섬세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한계와 앞으로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일사례연구라는 한계이다. <모기동 공동체> 연구에서 포착된 역동성과 가능성을 다양한 현장에 접목할 수 있으려면 단일사례연구의 한계를 벗어나 좀 더 많은 사례발굴과 비교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다른 각도로 심화된 연구의 필요성이다. <모기동 공동체>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 각각의 목소리에 주목하다 보니 공동체 내부의 역학관계와 리더십 등의 문제를 다루지 못하였다. 추후 추가 연구 등을 통해 <모기동 공동체>의 리더십과 실제 문화예술적 성과에 대한 심도있는 탐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논문>

강용진. 2008. “숙의민주주의와 한국정치 – 숙의정치의 활동과 정치발전”. 『대한정치학회보』 15(3): 67-96.

김경욱. 2003.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각”. 『문화경제연구』 6(2): 31-53.

김보명. 2018. “공백으로부터, 아래로부터, 용기로부터 시작하는 페미니즘, 교차성”. 『교차성x페미니즘』. 여이연. 49-96.

김영빈. 2015. “사회적협동조합”. 『국토』 409: 47.

김정인. 2018. “한국 사회에서의 숙의민주주의 제도화 가능성에 관한 연구 – 일본 삿포로 시 제설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1(1): 1-25.

김진형. 2019. “무비판적 공동체 담론의 문제와 대안”. 『인문콘텐츠』 55: 9-25.

김혜진. 2010. “2000년대 이후 한국의 공공미술 프로젝트 유형”.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8): 198-208.

라도삼. 2018. “서울시 문화정책의 지역화 전략과 방향”. 『2016-2017 문화정책위원회 활동보고서』. 114-147.

류경희・김순옥. 2000. “공동육아협동조합의 대안적 가족형태로서의 가능성 탐색”. 『한국가족관계학회지』 5(2): 119-151.

박주형. 2013. “도구화되는 ‘공동체’: 서울시「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비판적 고찰”. 『공간과 사회』 43(1): 4-43.

박찬경・양현미. 2008. “공공미술과 미술의 공공성”. 『문화과학』 53: 95-125.

배은경. 2016. “젠더 관점과 여성정책 패러다임- 해방 이후 한국 여성정책의 역사에 대한 이론적 검토”. 『한국여성학』 32(1): 1-45.

백영경. 2017. “복지와 커먼즈: 돌봄의 위기와 공공성의 재구성”. 『창작과 비평』 45(3): 19-38.

백은미. 2012. “여성들의 지역생협운동 경험에 관한 연구: icoop 부산지역 생협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여성학 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서순복. 2006.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문화정책과 문화민주주의”. 『한국거버넌스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06(2): 471-490.

_____ 2007.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 정책적 함의”. 『한국지방자치연구』 8(3): 23-44.

손은하・신나경. 2010. “공공미술의 전개와 로컬공간의 재생”. 『기초조형학연구』 11(4): 133-143.

손철성. 2007.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주요 논쟁점에 대한 검토”. 『동서사상』 3: 17-32.

서윤경. 2017. “시민 문화예술활동의 사회적 의미 고찰- 서울시 마을예술창작소 사업의 일상성 공동체성 공공성을 중심으로”. 『도시인문학연구』 9(1): 225-251.

오장미경. 2002. “생활정치와 페미니즘: 생활자치운동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동향과전망』 52: 182-199.

유창복. 2013.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의 배경과 과제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개설에 즈음하여”. 『환경철학』 15: 173-226.

윤보라. 2011. “온라인 외모관리 커뮤니티와 20-30대 여성들의 정치 주체화 -‘2008 촛불’ 맥락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여성학 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이상봉. 2011. “대안적 공공공간과 민주적 공공성의 모색 - 지역적 공공성과 생활정치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19(1): 23-45.

이선영. 2019. “문화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생활권 문화공간에서 운영자의 역할 - 진접문화의집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 실천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이영욱. 2010.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과 그 비판”. 『한국미학회』 61: 101-138.

이일영. 2017. “커먼즈와 새로운 체제”. 『창작과 비평』 45(4): 324-340.

이현희. 2004. “여성주의 정치학으로서 생협운동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 한살림과 민우회 생협의 활동여성들을 중심으로”. 이화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교 석사학위논문.

임성호. 2013. “탈경계 시대의 민주주의 패러다임: 자유주의, 공동체주의를 넘

어 성찰적 민주주의로”.『신아세아』20(3): 36-64.

장수정. 2012.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지역 돌봄 공동체 사례연구: 마포 두레생협 돌봄두레 ‘어때동무’를 중심으로”.『한국여성학』28(2): 1-31.

전희경. 2014. “마을공동체의 ‘공동체성’을 질문하다: 서울시 마포 은평지역 비혼/퀴어 페미니스트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페미니즘 연구』 14(1): 75-112.

정남영. 2017. “대안근대로의 이행과 커먼즈 운동”. 『오늘의 문예비평』. 202-216.

정상호. 2009. “정치담론으로서 ‘생활정치’ 연구의 현황 및 과제”.『시민사회와 NGO』7(2): 5-38.

정성훈. 2011. “현대 도시의 삶에서 친밀공동체의 의의”. 『철학사상』 41: 347-377.

_____ 2013. “도시공동체의 친밀성과 공공성”.『철학사상』49: 311-340.

정영신. 2016. “엘리너 오스트롬의 자원관리론을 넘어서: 커먼즈에 대한 정치생태학적 접근을 위하여”.『ECO』21(1): 399-442.

_____ 2017. “커먼즈와 커뮤니티 관계의 역사적 변동: 제주도 선흘리 마을과 선흘곶-동백동산 관계를 사례로”.『로컬리티인문학』17: 119-163.

정철현・박윤조. 2011. “공공미술정책을 위한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의 적용”. 『사회과학연구』50(2): 81-113.

조대엽. 2012. “현대성의 전환과 사회 구성적 공공성의 재구성- 사회 구성적 공공성의 논리와 미시공공성의 구조 ”.『한국사회』13(1): 3-62.

_____ 2014. “생활정치패러다임과 공공성의 재구성”. 『현상과 인식』 38(4): 131-156.

조옥. 2012. “지역화폐운동 대안성에 관한 여성주의적 연구: 한밭레츠 참여자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조한혜정. 2006. “후기 근대적 위기와 ‘돌봄 국가’적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시론: ‘차가운 근대 cold modern’에서 ‘따뜻한 근대 warm modern’로”.『사회과학논집』37(1): 71-97.

최태현. 2019. “公과 共의 사이에서: ‘작은 共’들의 공공성 가능성의 고찰”.『한

국행정학보』 53(2): 1-27.

하승우. 2009. “한국의 시민운동과 생활정치의 발전과정”. 『시민사회와 NGO』 7(2): 39-71.

Fisher, B. and Tronto, J. 1990. “Towards a Feminist Theory of Care” In E. Abel and M. Nelson, eds. *Circles of Care*. Albany, N. 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Hardin, Garrett. 1968. “The Tragedy of the Commons”. *Science* 162: 1243-1248.

Langsted, Jorn. 1990. “Double strategies in a modern cultural policy”. *Journal of Arts Management & Law* 19(4): 53-72.

Tronto, J. C. 1998. “An Ethic of Care”.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on Aging* 22(3): 15-20.

<단행본>

데이비드 볼리어. 2015. 『공유인으로 사고하라』. 배수현 옮김. 갈무리 (Boiller, D. 2014. *Think like a commoner: a short introduction to the life of the commons.* Gabriola, British Columbia: New Society Publisher).

박삼철. 2006. 『왜 공공미술인가』. 학고재.

베티 프리단. 2018. 『여성성의 신화』. 김현우 옮김. 갈라파고스 (Friedan, B. 1963. *The Feminine mystique*. New York: Norton).

사이토 준이치. 2009. 『민주적 공공성』. 윤대석・류수연・윤미란 옮김. 이음 (齋藤純一. 2000. 『公共性(Publicness)』. 東京: 岩波書店).

수잔 레이시・김인규. 2010.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 지형 그리기』. 이영욱 옮김. 문학과학사.

실비아 페데리치. 2013. 『혁명의 역점』. 황성원 옮김. 갈무리 (Federici, S. 2012. *Revolution at point zero: housework, reproduction, and feminist struggle*. Oakland, CA: PM Press).

앤서니 기든즈. 2010. 『현대성과 자아정체성』. 권기돈 옮김. 새물결 (Giddens, A. 1990. *Modernity and self-identity: self and society in the late modern age*.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에바 키테이. 2016.『돌봄: 사랑의 노동』. 김희강 옮김. 박영사 (Kittay. E. 1999. *Love's labor: essays on women, equality, and dependency.* New York: Routledge).

엘리너 오스트롬. 2010.『공유의 비극을 넘어』. 윤홍근・안도경 옮김. 알에이치코리아 (Ostrom, E. 1990. *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위르겐 하버마스. 2010.『공론장의 구조변동』. 한승완 옮김. 나남 (Habermas, J. 1991.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an inquiry into a category of bourgeois society.* Cambridge, Mass.: MIT Press).

조주현. 2018.『정체성의 정치에서 아고니즘 정치로: 여성학 방법론과 페미니즘 정치의 실천적 전환』. 계명대학교 출판부.

줄리아 우드. 2006.『젠더에 갖힌 삶』. 한희정 옮김. 커뮤니케이션북스 (Wood, J. 2003. *Gendered lives: communication, gender, and culture.* Belmont, CA: Thompson/Wadsworth).

캐럴 길리건. 1997.『다른 목소리로』. 허란주 옮김. 동녘 (Gilligan, Carol. 1936.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캐럴 페이트만. 2001.『남과 여 은폐된 성적 계약』. 이충훈 옮김. 이후 (Pateman, C. 1988. *The sexual contract.*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Tronto, J. C. 2015. *Moral boundaries: a political argument for an ethic of care.* New York, New York; London: Routledge.

<연구보고서 및 기타 정책자료>

국토교통부. 2019.『2020 지적통계 연보』.

김영정. 2015.『마을공동체 사업의 성역할 분석 및 여성참여의 지역거점활용 방안』.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김찬동. 2012.『마을공동체 복원을 통한 주민자치 실현 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2019.『2019 마을예술창작소 모니터링 및 평가연구보고서』.

서울문화재단. 2019.『서울문화재단 생활문화정책 2.0 수립연구』.

양천구. 2015.『2015 행정수요조사』.

_____ 2019.『2019 양천구 통계연보』.

플러스마이너스1도씨. 2018.『지역이 예술이다: space에서 place로』.

<신문기사>

김두일. 2020. “ ‘Yes 양천’ 비전 H-Plan으로 동서간 빈부격차 줄일 것”.『파이낸셜뉴스』2020.3.15.

김민수. 2020 “[인터뷰] 김수영 양천구청장 “목동 아파트 재건축 빠를수록 좋다” ”.『노컷뉴스』2020.6.25.

서일범. 2010. “서울 목2동 일대 34만㎡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서울경제』2010.10.10.

이정은. 2011. “역세권 시프트 공급 겉돈다”『아주경제』2011.6.15.

<온라인 자료>

서울문화재단 https://www.sfac.or.kr/site/SFAC_KOR/03/1030402010000201810230 4.jsp (2020년 11월 25일 검색)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https://www.15445077.net/fe/cooper/info/NR_index.do;jsessionid=076DBD742E5508ECAA890BE3E7F55669 (2020년 9월 3일 검색)

플러스마이너스1도씨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theworkplace
https://blog.naver.com/plusminus1c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양천구&ridx=0&tot=1120 (2020년 8월 15일 검색)

Abstract

New Publicness and Women Subjects through Local Arts and Culture Activities

- Case Study of 〈Mogi-dong community〉 -

Hyunah Lee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Gender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e the meaning and potential of women's local community activities in Korean society since the 2010s, when 'Maeul community projects' appeared and the concept of a new citizen led democracy was actively introduced. Accordingly, the case study was conducted on <Mogi-dong arts and culture community>, which has been active and mainly operated by women in the local community for more than 10 years. <Mogi-dong Community> started from a small-scale relationship of people holding small festivals together when two arts project managers in public art opened a cafe in 'Mogi-dong (Mok2-dong)' in Seoul and started living in 'Mogi-dong'. Although they started out with a simple goal, which was just to become 'a neighbor', they produced various achievements and led to the emergence of a strong local community. They have developed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such as

cooperatives, and have grown to become counterparts of local government policies by making their activities into local commons. This study sought to find out the meanings through the participants' voices of <Mogi-dong community> and tried to understand them as the subject of the local community. It focused on what kind of people they were, their experiences, and how they have developed <Mogi-dong community> in terms of their unique operating principles.

Most of the participants in <Mogi-dong community> were women, but their experiences escaped the structure of 'woman = mother, motivation for participation = co-parenting' which easily could be found in the existing 'Maeul community projects'. The arts project managers became 'a neighbor' dreaming that work and life should not be separated and, they participated in <Mogi-dong community> while they kept their passion for arts. The participants of <Mogi-dong Community> found it as a place where they could exist as 'I' rather than being buried in their families, without giving up the context of their own life. Therefore, they were finally able to do arts and culture activities more independently and autonomously. Obviously, arts and culture activities were not just a hobby for them, however it was a serious process of identifying one's self and self-proving as a social being. Based on their daily experiences, they felt pleasure through the activities, and were able to develop a common sense of consideration, trust, and inclusion. Through the joyful experience of the festival, they found their identity as 'people who are together with the festival', and shared the spatiality at the beginning in the cafe, called 'Sookyoungwon' which eventually has led <Mogi-dong community>. Three cooperatives were formed: 'Cooperative Cafe Village', 'Mogi-dong Village School Social Cooperative', and 'Housing Cooperative Living Together', which became the institutional frameworks for stabilizing <Mogi-dong community>. The participants of <Mogi-dong community> with intimacy expressed in 'chatting' and horizontal communication capabilities took a great deal of pride in creating 'our own rules' autonomously without being controlled by externally given goals or bureaucratic languages. When making decisions, they took enough time for

deliberation. Even if there were differences and conflicts, they showed the signs of an alternative democracy putting greater significance on the process of solving issues together through communication and reflection. They have begun to take care of each other to practice 'caring together'. By expanding it to the local community, the unique value for 'caring' which has led to the social agreements solving local problems together, has created. <Mogi-dong community> has made the achievements such as 'Mogi-dong Festival', 'Cooperative Cafe Village', and 'Mogi-dong Village School Social Cooperative'. They were not only for the women themselves but also for everyone as a common asset of villages and regions, that is, the local commons. <Mogi-dong community> has been spreading their capacities and values to Yangcheon-gu beyond neighborhoods and alleys, also it has become a counterpart of Yangcheon-gu's policies for arts and culture. In spite of such expansion and growth, the participants of <Mogi-dong Community> came back to continue their arts and culture activities in Mogi-dong without losing their original spirit. They have dreamed to continue arts and culture activities by creating 'Alley Cultural Foundation', directly run by the community, while making the previous achievements as a common for the region.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focused on the experiences of women who have actively participated in <Mogi-dong Community> based on arts and culture, and reviews the emerging of new democracy resulted from their activities. Second, the participants who have engaged in local community activities while maintaining the context of daily life should have been evaluated fairly with their competences in terms of relationship, consideration, and sense of care. Third, the activities of <Mogi-dong community> could be a concrete example of 'life politics' which led from life to the political process. Fourth, therefore the study assumed that the result which has been created and developed by the activities would fit into the concept of cultural democracy. Fifth, through the activities of the <Mogi-dong Community>, the accumulation of commons and the possibility of new publicness were presented.

The policy suggestions according to this are: First, the most important thing in

promoting ‘Maeul community projects’ or ‘governance projects on public sector’ is not about measuring the quantitative performance, but the context for the participants and their local life. Also, it needs to be emphasized to confirm and monitor how well the participants’ voices are reflected, whether the process is transparent and democratic, also the contents and results of the promotions in the aspects of their local life. Second, policies and supports for citizens’ arts and culture activities are necessary in order to encourage growth of arts and culture activities, but they must be carefully designed so as not to undermine participants’ capacity for arts and culture and their autonomy.

Key words: women subjects, arts and culture, local community, commons, publicness, democracy

Student number: 2002-23237